



성남 생활문화정책평가 및 발전 방안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전략 -

2018. 12.

■ 책임연구 Ⅱ

박 지 훈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김 영 주 (일생활균형재단 WLB연구소 소장)

■ 공동연구 Ⅱ

이 수 철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김 유 진 (문화기획자)

설 동 준 (교육공학자)

안 선 영 (일생활균형재단 WLB연구소 책임연구원)

■ 자문 Ⅱ

정 병 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박 찬 국 (서울시 문화비축기지 개원과정 예술감독 외)

유 상 진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사업부 부장)

목차

1부. 연구 추진 배경	1
1. 연구 배경 요약	3
2.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문화예술정책의 변화 흐름	4
2-1.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 과정 및 문화예술의 변화	4
2-2.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과 문화권(cultural right)	8
(1)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실질적 측정을 통한 결과	8
(2) '문화기본법'과 문화권(cultural right)	10
3. 생활SOC와 성남문화재단의 정책적 전환 필요	13
3-1. 생활SOC 사업의 대두	13
3-2. 성남문화재단의 생활문화 정책 전환의 필요성	15
2부.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정책	17
1.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 정책 전개 양상	19
1-1. 사업 초기 사회 배경과 기본 구상	19
1-2. 도시 정체성 구축 사업의 성장과 굴곡	21
1-3. 생활 SOC와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23
2. 생활문화공동체 성과평가 결과	24
1-1. 생활문화공동체 평가 체계화 과정	24
1-2. 2016~2018 생활문화공동체 종합평가	26
(1) 종합성과 개요	26
(2) 종합성과를 통해 보는 정부의 생활문화공동체 개입 논거	28
(3) 종합성과 시사점	34
3. 2018~2021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조성 계획	35
4.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 자원 및 역량	37
4-1. 운영 주체 및 운영 체계와 역량	37
4-2. 하드웨어	40
4-3. 소프트웨어	42
4-4. 휴먼웨어	46
(1)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참여 마을	46
(2)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가입 클럽	47
(3)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분야 및 참여단체수	49

3부.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현장 인터뷰	53
1. 거점 모델 : 단대동 논골만들기 추진위 성장 과정	55
1-1. 개요	55
(1) 사례 선정 배경	55
(2) 사례 분석 자료	55
1-2. 사례 분석	57
(1) 커뮤니티의 발생	57
(2) 의사결정 구조 개요와 성장과정	58
(3) 주민 의견개진 과정 및 자치 역량	60
(4) 커뮤니티 거점 공간	64
(5) 재정 운영	65
(6) 논골작은도서관 활용 동아리 활동 시간 특성	66
(7) 지역협력 관계망	66
(8) 협업 내용	68
(9) 논골추진위 커뮤니티의 특징	69
1-3. 논골 모델의 시사점	73
2. 성남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활용 경험 분석	75
2-1. 개요	75
(1) 경험분석 배경 및 목적	75
(2) 인터뷰 참여그룹 개요	75
2-2. 인터뷰 참여자 평가 및 기대사항	76
(1) 생활예술 확산에 대한 욕구 및 사회적 필요성 증가	76
(2) 기존 시스템 및 공간 이용의 한계와 문제점	78
(3) 생활예술 활동의 확산을 위한 고려사항	83
2-3.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활용 경험 시사점	94
4부. 국내외 참고 사례 연구	97
1. 생활문화공간 사례 연구 - 해외	99
1-1. Art Scape (캐나다 사례)	99
1-2. 영국 사례	108
1-3. 기존 해외 사례 연구 발췌 요약	110
1-4. 해외 사례의 시사점	113
2. 생활문화공간 사례 연구 - 국내	115
2-1. 국내 생활문화시설의 종류와 설치 현황	115
2-2. 법정 생활문화시설 운영 현황 및 특징	117
2-3. 기타 국내 생활문화시설 사례	119
2-4. 국내 사례 시사점	124

5부.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전략	127
1.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조성 방향	129
1-1.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의 의미	129
1-2. 사업 추진체계 혁신 및 체계화의 중요성	131
(1) 문화권과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추진체계의 관계	131
(2) 성남문화재단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체계 개념	132
2.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구현 방법론	135
2-1. 정책 프레임 워크의 문제	135
(1) 15개 공간의 구조적 관계	135
(2) 통합적인 공간 정체성의 문제	135
2-2. 분산 공간의 공통성과 개별성 (운영체제 가이드)	137
(1) 공간 운영체제의 공통 뼈대	137
(2) 개별 공간의 운영모델 유형화	138
2-3.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검토 이슈	140
(1) 공간 이용계약의 문제	140
(2) 지역에서의 생활문화 민간전문단체 육성 및 지원의 문제	140
(3) 영리 모델 도입의 문제	141
(4) 운영 비용의 문제	141

표 목차

[표 1] 사회경제적 변화와 문화정책의 흐름	3
[표 2] 문화정책의 흐름과 주요 생활문화 공간	4
[표 3] 삶에 대한 만족도 국제 비교 중 한국의 결과	9
[표 4]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3단계 추진표	14
[표 5] 성남문화재단 중장기 문화정책	17
[표 6]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평가 지표 개발 및 검증 과정 (2013~2018)	22
[표 7]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 2016~2018 종합 만족도	24
[표 8] 2017~2018 종합 요인분석 (n=528)	25
[표 9] 성남아트센터 및 성남문화재단 관리 운영 시설	38
[표 10] 지역공동체 친화적인 생활권 복합문화시설의 예	39
[표 11]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 내용 (2018년 기준)	40
[표 12]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지원 내용	40
[표 13] 논골문화마을 프로그램	41
[표 14] 2018 신흥공공예술창작소 프로그램 성과	42
[표 15]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참여 지역 및 주체	44
[표 16] 사랑방문화클럽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요 악기	45
[표 17] 음악 분야 활동 및 장르 양상	46
[표 18] 노래 활동 양상	46
[표 19] 미술 활동 양상	46
[표 20] 무용 활동 양상	47
[표 21] 기타 장르	47
[표 22] 인터뷰 참여자 개요	52
[표 23] 사업 참여도에 따른 마을사람별 그룹	57
[표 24] 논골 주민자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59
[표 25]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활용 인터뷰 참여그룹	71
[표 26] 해외 지역 문화공간 사례	104
[표 27]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109
[표 28] 문화원 및 문화의 집 설치 현황	109
[표 29] 생활문화센터 설치 현황	110
[표 30] 주요 생활문화시설 비교	110

그림 목차

[그림 1] 국민의 삶 종합지수	7
[그림 2] 삶의 질 종합 지수 및 영역별 종합지수	8
[그림 3] 생활문화의 정의 분석	11
[그림 4] 10대 주요 생활SOC 사업 중 여가/건강 부문 주요 사업	12
[그림 5] 성남문화재단 5대 문화정책사업 개념도 (2006 모델)	17
[그림 6] 사회자본에 관한 생활문화공동체 참여자와 일반 국민 인식 비교	27
[그림 7]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성과 3년 추세	28
[그림 8]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참여자 고연령화 추세	29
[그림 9] 인류 보편가치에 관한 생활문화공동체 참여자와 일반 국민 인식 비교	30
[그림 10] 5분 거리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조성 추진 로드맵	34
[그림 11] 5분 거리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조성 추진일정	34
[그림 12] 2017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현장	35
[그림 13]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구조도	36
[그림 14] 성남문화재단 조직도	37
[그림 15] 성남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48
[그림 16] 논골 마을회의 조직도	54
[그림 17] 논골 마을 현안 처리 과정	55
[그림 18] 논골추진위 의사결정기구 성장과정	56
[그림 19] 논골마을공동체마을회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58
[그림 20] 논골추진위 거점공간	60
[그림 21] 논골추진위 협력관계망	63
[그림 22] park dale centre 사진	94
[그림 23] park dale centre 운영 정보 요약	94
[그림 24] Wychwood barn 사진	95
[그림 25] Wychwood barn 운영 정보 요약	95
[그림 26] West Qween west 사진	96
[그림 27] West Qween west 운영 정보 요약	96
[그림 28] Gibraltar point 사진	97
[그림 29] Gibraltar point 운영 정보 요약	97
[그림 30] Distillery Studio 사진	98
[그림 31] Distillery Studio 운영 정보 요약	98
[그림 32] Art Scape Inc. 2017년 손익계산서	99
[그림 33] Art Scape Foundation. 2017년 손익계산서	100

[그림 34] ANPHI Inc. 2017년 손익계산서	101
[그림 35] Creative People and Place 프로젝트 개념도	103
[그림 36] 캐나다 <Vibe Arts>의 이해관계자 그룹 다이어그램	106
[그림 37] 서대문구 마을예술창작소 <닷라인TV>	113
[그림 38] 송파구 마을예술창작소 <다락>	113
[그림 39] 마을예술창작소 구글 맵핑	113
[그림 40]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개념도	114
[그림 41] 창생공간 <생활적정랩 뽀뽀> - 발효키친 제작 특화	115
[그림 42] 창생공간 <재미> - 목공, 도예, 리사이클링 제작 특화	115
[그림 43] 창생공간 조성 및 운영 개념도	115
[그림 44] 전주시민놀이터	116
[그림 45] 전주시민놀이터 대관현황판	117
[그림 46] 성남 생활문화 공간 조성 추진체계 개념도	124
[그림 47]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의 공통 운영 골격	129

1부.
연구 추진 배경

1. 연구 배경 요약

- ◎ 본 연구의 대상인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은 최근 정책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활문화’를 촉진하고, 영위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간이라 할 수 있음. 공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그것은 하드웨어로서의 물리적 공간(space)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그 곳에서의 활동 내용과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이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 관계적 기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곳으로 바라봐야 함.
- ◎ 이러한 공간의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생활문화라는 정책적 이슈가 놓여있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여기에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과 이에 따른 문화예술의 시대정신의 변화라는 통시적 맥락,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환경이라는 공시적 맥락,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인 성남이라는 지역적 맥락에 대한 다면적 이해가 포함되어야 함.
- ◎ 이에 본 연구는 1부 <연구의 배경>에서 생활문화가 놓여있는 역사적, 사회적, 정책적, 지역적 환경을 일별함으로써, 연구 과제가 놓여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남문화재단의 생활문화정책의 태동부터, 부침의 과정, 현재의 모습과 과제 등을 살펴보았음. <3부>에서는 실제로 성남 내에서 생활문화공동체로 자리매김한 사례 및 생활문화 공간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현장조사하여 생활문화공동체의 조성, 촉진, 운영, 분화 등에서 주목해야할 시사점들을 찾아보았으며, <4부>에서는 국내외의 유사 사례 및 참고 사례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음. 최종적으로 <5부>에서는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및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의 밑그림을 제안하였음.

2.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문화예술정책의 변화 흐름

2-1.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 과정 및 문화예술의 변화

- ㉠ 생활문화의 개념은 해방 후 민족문화 창달에서부터 시작해 문화예술 진흥, 문화복지 등의 공급자 중심 정책을 지나 최근에 와서야 한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개념임. 생활문화 정책이 놓인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적 변화와 이에 따른 국가 문화정책의 흐름이 어떠한지를 거시적 맥락에서 일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

[표 1] 사회경제적 변화와 문화정책의 흐름

(금성희, 「문화예술정책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8. 발췌 요약)

구분	사회적 상황	국가 문화예술 정책
해방 ~ 1960년대	- 국가 건립기 5.16 이후 독재정권 형성	- 문화는 국가 정책의 선전선동 수단 (공보적 기능) <공연법> 제정을 기점으로 문화예술 정책의 법적 기초 형성기
1970년대	- 유신체제 성립 - 경제적 고도성장기	- 민족문화, 전통문화 진흥 기조 유지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하지만 문화예술의 공보적 성격은 유지 - 장르별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 및 국가시상제도 중심
1980년대	5공화국 성립 88올림픽을 통한 국제화 및 문화 수준에 대한 자극	- 문예진흥 개념 본격화. 하지만 실제 지원 정책은 고급예술/장르예술 중심 - 전통문화 중심에서 문화예술 중심으로¹⁾
1990년대 ~ 1997년	- 개혁·개방기 (WTO체제) - 세계화 바람 - 경제정책 일반도에서 국민 삶의 질에 대한 인식 환기 - 인터넷 보급기	- 문화를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 - 문화복지, 국민문화예술향수로 정책적 관심 이동
1998년 ~ 2002년	- IMF 체제 - 국가적 구조조정기 - 인터넷 폭발기	문예진흥과 문화복지 균형이라는 기조 유지
2003년 ~ 2012년	- 참여정부/이명박 정부 - 지방 분권화 / 수도 이전	- 정책기조의 근본틀 유지 - 문화예술교육 본격화 - 복권기금 유입 - 생활문화시설 확충
2013년 ~ 현재	박근혜 정부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촛불 정부	생활SOC 조성

1) 추미경 외,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지역문화진흥원, 2018. 13p.

[표 2] 문화정책의 흐름과 주요 생활문화 공간

(최혜자 외, 「생활문화 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7. 39p 및
 금성희(2018) 발췌 요약 종합하여 재정리)

구분		국가 문화예술 정책 (상동)	정책적 생활문화 공간/시설
[1기] 문화예술 진흥 + 국가 통제·관리	해방 ~ 1960년대	- 문화는 국가 정책의 선전선동 수단 (공보적 기능) <공연법> 제정을 기점으로 문화예술 정책의 법적 기초 형성기	문화원 (민간단체에서 관변 단체로 성격 변화)
	1970년대	- 민족문화, 전통문화 진흥 기조 유지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하지만 문화예술의 공보적 성격은 유지 - 장르별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 및 국가시상제도 중심	-
	1980년대	- 문예진흥 개념 본격화. 하지만 실제 지원 정책은 고급예술/장르예술 중심 - 전통문화 중심에서 문화예술 중심으로	문예회관 건립기
[2기] 문화복지 공급자 중심 향유 정책	1990년대 ~ 1997년	- 문화를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 - 문화복지, 국민문화예술향수로 정책적 관심 이동	- 문화의 집 - 문예회관 확대 보급
	1998년 ~ 2002년	문예진흥과 문화복지 균형이라는 기조 유지	-
	2003년 ~ 2012년	- 정책기조의 근본틀 유지 - 문화예술교육 본격화 - 복권기금 유입 - 생활문화시설 확충	작은 도서관
[3기] 문화권 시대	2013년 ~ 현재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생활문화센터
		생활SOC 조성	- 생활문화센터 - 작은 도서관 확대 조성 - 유희공간의 생활문화 공간 전환 및 신설

◎ [1기]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주도 진흥과 통제·관리의 시대 : 장르예술, 순수예술의 시대

-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는 시기별로 세부 사항과 조건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주도의 진흥과 통제·관리의 시기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
- 1960년 이전까지는 사실상 전쟁 후 국가의 기본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였으며, 국가 재정 역시 매우 취약한 시기였음. 당시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 정책이 부재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음.
- 이후 5.16쿠데타를 통해 정권이 바뀌게 되고, 1961년 <공연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첫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됨. 1960년대는 <공연법>을

시작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개별법들이 만들어진 시기였음. 또한 국가 전반적으로 통제 사회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문화예술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육성하되, 국가 정책과 필요를 선전하는 공보적 성격이 강하였음. 이러한 성격은 1980년대까지 지속됨.

- 이 시기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핵심은 전문화된 장르 예술에 대한 지원과 장르 예술을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에 있었음. 개별 예술에 대한 국가적 시상과 장려의 기능을 겸하는 소위 ‘국전’(대한민국미술대전) 등의 장르별 대규모 행사가 이 시기의 대표적 문화예술 사업이었다는 것이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줌.
- 또한 문화공간의 측면에서 보면 각 지자체별로 대규모로 문예회관을 건립하던 시기이기도 함. 당시 조성된 문예회관이 대개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조성되기는 했으나, 공연, 미술 등의 장르 예술 향유의 기능이 결합된 공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 공간 조성 역시 장르 예술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2기] 문화예술 정책에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고려된 시기 : 문화복지의 시대

- 88올림픽 이후 세계화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는 가운데, 정권이 문민정부로 바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강조되었고, 국민의 삶의 수준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기 시작함.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의 문화복지 개념이 문화예술 정책의 전면으로 등장함. 1990년 1월에 독립적 중앙부처로 개편된 문화부의 1대 장관에 취임한 이어령은 취임기자 회견에서 국민문화 향수권과 참여권의 신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문화 진흥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²⁾.
- 문민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지속되는 문화복지 개념은 국민의 문화 향수권 혹은 향유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장르 예술 지원 중심의 지난 시기 정책 기조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문화 향유의 내용에서는 여전히 장르 예술의 결과물이 전 국민에게 고르게 보급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담고 있음. 즉, 장르 예술 기반의 공급자 중심 문화복지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해당 시기에 IMF 관리체제로 인한 전 사회적 구조조정 시행, 좌우 정권의 교체 및 문화권력의 판도 변화 등 다양한 사건이 있었지만, 문화복지 확대라는 기본틀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특히 2004년 문예진흥기금 모금 중단 이후 부족한 문화재정을 복권기금으로 충당하면서 문화복지 정책은 사업 단위에서도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음.
- 문화공간의 측면에서는 96년부터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공간으로 ‘문화의 집’을 조성하였으며, 노무현 정권에서는 영부인의 작은도서관 운동 지원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조성됨³⁾.

2) 최성자, “민족동질성 바탕 29개 사업 추진” 이어령 문화장관 기자회견, 한국일보, 1990.01.16.

◎ [3기] 공급자 중심 문화정책에서 개개인의 고유한 문화적 활동과 권리 보장으로 :
문화권의 시대

- 이 시기의 핵심적인 변화는 문화예술 정책이 장르 예술의 양질의 결과물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국민 개개인의 고유한 문화적 취향, 활동을 지원하고, 이러한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 측면으로 재인식한 문화권 개념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임.
- 2013년 <문화기본법>이 재정되면서 ‘문화권(cultural right)’을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천명하였음. 같은 시기에 준비되어 <문화기본법>에 이어 발표된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생활문화’의 개념이 최초로 법적으로 제시됨.
- 이는 문화예술을 특정한 교양의 형태로, 교양 있는 시민이 갖추어야 하는 문화적 소양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사고한 기존의 정책적 시각과 달리, 각 개인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일상)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조건과 체제를 문화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적 전환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앞서의 시기들이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결절점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것과 달리, 미시적인 삶의 방식의 변화에 일부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더해지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기술적으로는 이미 앞선 시기인 90년대 중반부터 텔넷이 보급되고, 90년대 후반에는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조직되고, 온/오프라인을 매개로 교류가 활발해졌음.
- 이와 함께 2천 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 웰빙⁴⁾, 로하스 등의 열풍이 불었고,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장기불황 저성장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소확행, 워라밸 등 개인의 안녕에 대한 욕구가 전 사회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함.
- 또한 정치적으로도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 방향에 ‘문화융성’이 포함되면서⁵⁾ 2006년 발표 이후 뚜렷한 실물화를 달성하지 못했던 ‘문화현장’의 정신이 <문화기본법>으로 실현되는 등의 실체적 성과를 거둠.
- 이처럼 90년대 중반부터 실생활 영역에서 존재하던 국민 개개인 혹은 집단의 다양한 문화적 활동의 토대와 개인의 안녕 및 삶의 질에 관심 증대, 국민의 기본권 및 국가의 책무에 대한 인식 성장 등의 종합적 영향이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이 법제화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음.
- 이러한 흐름은 현재도 유효한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 중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가 선정되었으며, 생활문화 확산은 앞으로도 계속될 추세임.

3) 김범현, 권여사 ‘도서문화’ 각별한 관심, 연합뉴스, 2005.09.06.

4) 김기린 외, 「대중문화사전」, 현실문화연구, 2009. <웰빙> 항목 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71161&cid=42028&categoryId=42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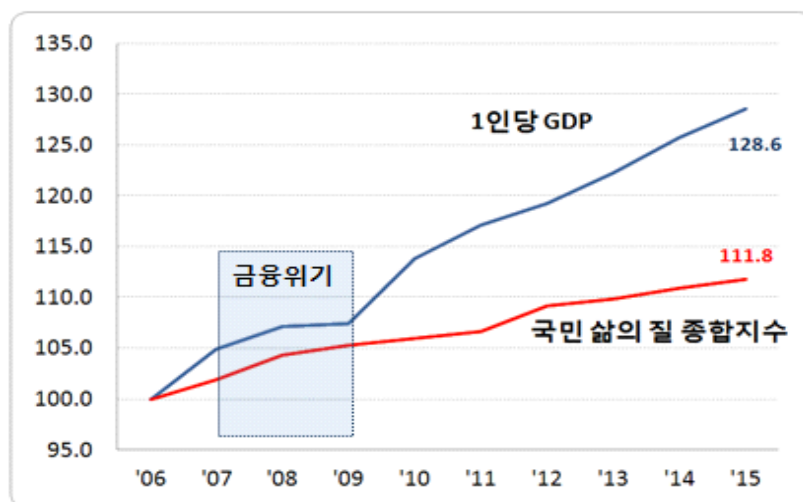
5)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융성’,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2-2.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과 문화권(cultural right)

(1)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실질적 측정을 통한 결과

- ◎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2천 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됨. 한국은 이미 김영삼 정부 시절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을 돌파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국부의 성장을 과시하였으나, 1997년 IMF 사태를 맞이하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됨.
- ◎ 김대중 정부는 IMF 체제 조기 졸업을 목표로 하여 2002년 다시 국민소득 1만 불을 회복하고, 이후 빠른 속도로 GDP가 성장하면서 2006년 이후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었음. 2018년에는 환율 효과 등의 외생 변수가 작용하였으나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선 국가가 되었음.
- ◎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체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적용된 신자유주의 시스템은 전 사회적인 구조조정, 효율화, 경쟁 시스템, 고용 및 사회적 안전망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켰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GDP의 성장에 비례하는 국민의 삶의 질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음.
- ◎ 통계청은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어선 2006년을 기점으로 12개 영역, 80개 지표를 사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측정을 하였는데, 측정 시작 10년 간 총 국부에 해당하는 GDP의 성장(1인당 국민소득의 성장) 대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은 만족할 만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을 2017년 통계청 발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음(아래 그림⁶⁾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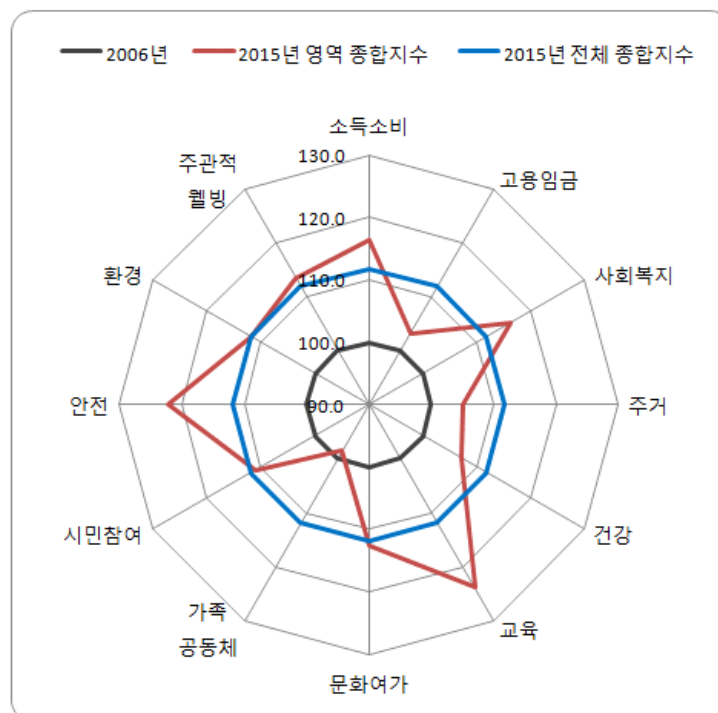
[그림 1] 국민의 삶 종합지수



6) 통계청 보도자료,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결과, 2017.

- ◎ 구체적으로는 삶의 질 측정 기준년도인 2006년 대비 1인당 실질 GDP가 10년간 28.6% 증가할 때, 국민의 삶의 질 전체 종합지수는 11.8% 증가하였음. 국부의 성장 대비 실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정도는 41.3%에 불과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해가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2천 년대 이후 대두된 양극화 이슈, 사회적 부의 편중 문제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임⁷⁾.
- ◎ 80개 측정 지표의 구체적 내용을 볼 때⁸⁾, 12개 영역 중 생활문화는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주관적 웰빙> 영역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전체 종합 지수 외, 3가지 영역별 종합 지수의 경우 문화·여가는 12.7% 증가, 주관적 웰빙은 3.3% 증가, 가족·공동체는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아래 그림⁹⁾ 참조).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GDP는 28.6% 증가함.

[그림 2] 삶의 질 종합 지수 및 영역별 종합지수



- ◎ 통계청의 본 조사는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외, 산업재해율, 강력범죄 발생률, 고등교육 이수율, 고용률 등의 객관적 사회 지표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년도인 2006년 대비 소폭의 개선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주관적 만족도만을 측정한 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삶에 대한 만족도의 주관적 인식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

7) 다만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특이 상황은 아니며, 통계청의 삶의 질 종합지수 조사의 참고 사례인 캐나다의 CIW(Canadian Index of Wellbeing) 지수 역시 GDP 성장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부의 편중과 양극화 문제 역시 21세기 들어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다만 한국에서의 GDP와 삶의 질 간의 격차가 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이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이 그것을 이유로 삶의 질에 대한 불만족을 감쇄할 이유는 없음.

8) 통계청 보도자료.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결과, 2017. 12p.

9) 통계청 보도자료.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결과, 2017. 8p.

는 것으로 나타남(아래 표¹⁰⁾ 참조)

[표 3] 삶에 대한 만족도 국제 비교 중 한국의 결과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5.33	5.77	5.39	5.65	6.12	6.95	6.00	5.96	5.81	5.78

-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개인의 삶의 안녕을 국가의 성장과 동일시하면서 고도성장을 이루던 시기와 달리, 개인의 삶을 국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천 년대 이후 꾸준히 회자되고 있는 삶의 질 관련 키워드들은 개인의 삶을 바라보는 이러한 인식 틀의 변화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권리들에 대한 인식의 성장을 동반한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한국 헌법에서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5가지를 기본권으로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음.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누리고, 나누는 것은 사회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헌법에는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의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으로 사회권을 제시하고 있어 문화의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임¹¹⁾.
- 문화적 권리의 공백에 대해서는 <문화기본법> 제정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민-관이 합동으로 문화현장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2006년 5월 문화적 권리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문화헌장¹²⁾>을 발표하였음¹³⁾. 하지만 당시 발표된 <문화헌장>은 법률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참여 정부가 마칠 때까지 입법화 과정을 밟지 못하였음.
- 이후 이명박 정권을 지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융성’이 4대 국정기조¹⁴⁾의 하나로 채택되면서 <문화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정책적 동력을 확보하게 됨.

(2) ‘문화기본법’과 문화권(cultural right)

-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기본법’의 제정과 문화권의 개념 공식화는 제도가 선도하고, 사회적 인식이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방식이었다고 볼 수 없음. 오히려 사회적으로 이미 조성

10) 통계청 보도자료.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결과, 2017. 22p에서 재인용

11) 비상학습백과 중학교 사회 <기본권> 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79323&cid=47333&categoryId=47333>

12) 헌장에는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기초다. 문화는 시민 개개인이 삶의 다양한 목표와 염원들을 실현해 나갈 자유로운 활동의 터전이고, 공동체를 묶어주는 공감과 정체성의 바탕이며,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의미, 아름다움의 원천이다”라고 문화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선포하고 있음.

13) 이재성. 민-관 뜻모아 ‘문화헌장’ 첫 제정. 한겨레, 2006.05.19.

14)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면서 제시한 4대 국정기조는 ‘경제부흥(창조경제)’,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었음.

된 다양한 문화예술 자발 공동체의 활동, 인터넷 등 전자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한 개인/단체 간 교류의 증가, 경제 성장보다 실제적으로 와 닿는 삶의 질과 현재적 행복에 대한 관심 증대, 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문화복지 정책 사업들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경험의 축적 등으로 만들어진 토대¹⁵⁾를 법률과 제도가 후행적으로 받아 안으면서 공식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임. ‘문화기본법’의 실질적 전신에 해당하는 ‘문화헌장’이 이미 2006년에 공포된 것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음.

- ◎ <문화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라고 문화권(cultural right)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 이것은 기존에 문화를 계몽적 방법으로 학습해야할 교양 혹은 중산층의 교양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 즉, 참여와 표현의 내용이 기존의 장르 중심적 예술로 한정되지 않고, 각 사람이 일궈내고 나누는 것 자체를 문화의 영역으로 수용한 것임¹⁶⁾.
- ◎ 이러한 문화권이 법률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화된 것은 문화의 권리가 명시되지 않은 헌법의 공백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큼. 국회 입법조사관 김휘정은 “국민이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를 ‘문화권’이라는 법률 용어로 정의함으로써, 「헌법」 상 미비한 문화권을 보완하고 「헌법」과 문화 관련 개별법을 이어주는 매개 법률의 역할을 수행한다”¹⁷⁾는 측면에서 <문화기본법>의 제정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문화를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임.
- ◎ 이와 같은 접근은 기존의 생활문화 연구를 어떤 방향에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함. 예를 들어 조광호는 생활문화의 영역을 생활예술, 생활기술, 생활교류, 생활기타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¹⁸⁾, 생활문화의 내용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이 일상의 영역에서 발현되는 무언가가 되는 것이며 정책이 생활문화의 정의를 협소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접근일 수 있음. 기존의 분류가 현재적 차원에서 확인된 현상의 반영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정책은 생활문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의 내용 규정 보다는 그러한 활동이 조성되는 생태계의 역동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임.

15) 추미경 외,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지역문화진흥원, 2018.

16)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제5조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2조 및 제27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5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 역시 한국의 <문화기본법>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을 명시하고 있음.

17) 김휘정, 「문화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입법 과제」, 『이슈와 논점』 제 810호, 국회입법조사처, 2p.

18) 조광호 외, 「생활문화활동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107p.

- ◎ 실제로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적, 정책적 용어가 된 ‘생활문화’의 경우¹⁹⁾ 법률에는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²⁰⁾라고 하고 있음. 최혜자는 법률의 이러한 정의를 아래와 같은 방식²¹⁾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그림 3] 생활문화의 정의 분석

생활문화				생활문화시설
목적	동력	과정	결과	
문화적 욕구 충족	자발적, 일상적	참여, 행위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

19) 최혜자 외, 「생활문화 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정의

21) 최혜자 외, 「생활문화 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7. p.112

3. 생활SOC와 성남문화재단의 정책적 전환 필요

3-1. 생활SOC 사업의 대두

-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문화정책 내외부 환경 변화의 영향 안에서 문화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예술진흥에서 예술 향유/공급 정책을 거쳐,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 보장으로 까지 이어졌음. 그리고 같은 맥락 안에서 ‘생활문화’가 주요한 정책적 의제로 떠오르게 되었음.
- ◎ 법적, 정책적 차원에서의 인식 전환이 문화권의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면, 문화원,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등으로 시도되었던 생활문화 공간에 대한 접근은 최근 ‘생활SOC’라는 개념 및 사업으로 모아지고 있음.

[그림 4] 10대 주요 생활SOC 사업 중 여가/건강 부문 주요 사업
(정부24 기관 소식 “‘워라벨+지역일자리’...내년 생활SOC 8조 7000억 투입”)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578468>



- ◎ 생활SOC는 위 그림에서와 같이 도서관, 체육시설,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인프라를 뜻함. 기재부에서 공개한 혁신성장회의 안건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 확대>에는 생활SOC 추진 배경으로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 사회간접자본의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과 함께 의식주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의 인식 변화를 그 첫 번째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 ◎ 10대 핵심 투자 분야 중 ‘여가’ 관련 영역으로는 생활지역 내 문화·체육 시설²²⁾ 확대, 박물관, 과학관 등에 실감형 콘텐츠 향유를 위한 첨단 기술 지원 등이 있음. 도시재생, 환경 및 안전 관련 인프라 조성을 포함해 2019년에만 총 8조7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 본 연구의 대상인 성남 생활권 문화공간 조성 사업 역시 시대적, 정책적 흐름으로 보면 문화권의 신장에 이은 생활SOC로의 전환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22) 국민체육센터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이 있으며, 작은도서관 230여개 건립 및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을 포함 2023년까지 공공도서관을 400여 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별도로 발표되었음.

3-2. 성남문화재단의 생활문화 정책 전환의 필요성

- 성남문화재단은 국가 차원에서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문화권의 개념을 법률화하고, 생활SOC로의 사회인프라 개념을 전환하고 있는 것과 달리 2천 년대 초반부터 시민 생활 문화 축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진행해왔음. 현재는 생활문화공동체 중장기 계획의 3단계(2014~2020년) 종료까지 2년 남긴 시점이며 향후 중장기 방향성을 모색 중임.

[표 4]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3단계 추진표
(성남문화재단 2018 마을 공동체사업 심층조사 사업실행계획서 중)

중장기 계획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조도시’ 3단계 7개년 계획(2014~2020) 문화공동체 발전방안 연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생활문화성과평가	- 지표개발, 측정 - 지표보정	- 지표 및 조사 컨설팅 - 측정 및 결과 분석	- 3년차 데이터 추적 - 생활문화 트렌드 분석
생활문화 프로그램 조사	- 전국 생활문화 사례조사 - 유형화 및 분류	- 동호회 활동가 심층분석	- 마을공동체 심층 연구
지역현안 연구	- 성남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방안 연구	- 문화예술지원 정책 연구	- 3단계 계획 중간 평가

- 성남문화재단은 마을, 동호회 사업을 축으로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정책적 시도의 결과 일정 부분에서의 하드웨어(연습 공간 등), 소프트웨어(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 및 축제), 휴먼웨어(사랑방문화클럽지기 및 지역활동가) 등의 자원을 축적해왔음. 즉, 타 지역과는 다른 조건에서 생활밀착형 공간을 중심으로 생활문화 조성 및 축진을 위해서 필요한 접근이 무엇이어서 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할 수 있음.
- 전술한 생활SOC 사업의 경우 이것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본격적 개념 전환이나, 혹은 기존의 토건 중심의 SOC에 간판만 바꾼 버전이냐에 대한 논란이 아직 있는 상태임²³⁾. 이러한 논란이 보여주는 바는 생활문화 공간 조성이라는 하드웨어 구축 사업이 해당 공간의 운영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과 함께 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생활SOC 역시 기존과 다를 바 없는 토목/건축 사업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이를 통해 볼 때, 기존의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 자원 및 성과를 축적한 성남문화재단에서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이것의 실질적인 운영 모델과 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 그 결과는 비단 성남 뿐 아니라, SOC 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논란과 변화의 시기에 타 지역 및 유사 사업 전반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임.

23) 안승진, '생활밀착형 SOC' 성격 공방... "결국 SOC" vs "발상의 전환", 세계일보. 2018.08.25.

- ◎ 성남문화재단의 기존 사업의 성과 및 국내외 관련 사례, 현장 연구의 결과 등은 2부 이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2부.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정책

1.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 정책 전개 양상

1-1. 사업 초기 사회 배경과 기본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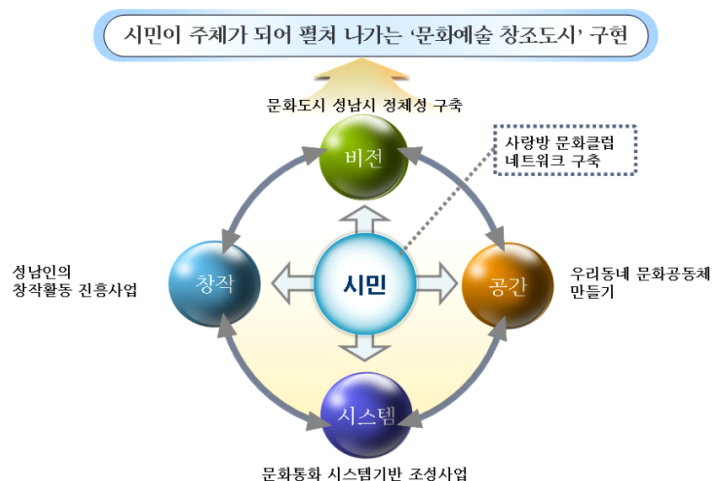
- ◎ 성남은 1960년 대 말 이주민 정착 도시로 형성됨. 1990년 대 중반 분당 신도시의 건설로 다양한 이주민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지역 구성원이 이분화되어 도시 정체성 구축에 어려움을 겪게 됨.
- ◎ 이러한 상황을 문화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부터 시민주체의 형성을 위한 성남시 정체성 구축 사업을 시작함. ‘시민 주체, 문화예술 창조도시’라는 비전 하에 2006년~2020년에 걸쳐 3단계 발전 방향을 세우고 지자체로서는 드물게 중장기 문화정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표 5] 성남문화재단 중장기 문화정책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

1단계 (2006~2008)	2단계 (2009~2013)	3단계 (2014~2020)
기초다지기	구조세우기	구조강화하기
시민주체형성을 위한 시범사업	문화공동체 시스템 만들기	생활예술공동체 네트워크 확산

- ◎ 성남문화재단은 1단계 사업에서 아래 그림처럼 비전(조사·연구사업), 시민(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공간(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시스템(문화통화), 창작(창작활동 진흥사업)의 다섯 가지 개념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설계하였으며 이 5대 사업은 현재까지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정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음.²⁴⁾

[그림 5] 성남문화재단 5대 문화정책사업 개념도 (2006 모델)



24)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사업에서 정책 프레임워크가 조정되지 못하고 초기 모델이 유지·보수되고 있는 이유는 애초 정책 설계가 거시적이었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2010년 이후 외부 연구자들과 결합해 운영한 '정책실행 TF'의 해체와 예산 삭감으로 큰 규모의 정책 기획 연구가 실행되지 못해서이기도 함.

◎ 시민 주체에 초점을 둔 부분은 문화공동체적·문화민주주의적 접근이라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접근법은 ‘문화 진흥’과 ‘문화 복지’ 및 ‘문화 향유’ 정책을 거쳐 일상 속에서 누구나 스스로 문화를 창조하고 나누는 ‘문화권’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신호탄 같은 것이었음.

◎ 때문에, 5대 사업 중에서도 문화 시민의 발굴과 활동 지원, 네트워킹을 통해 ‘시민 주체’란 개념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려했던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은 많은 주목을 받았고 특히, 2010년과 2012년에 걸쳐 전국적 명성을 얻게 됨.²⁵⁾

이처럼 관심이 쏟아진 이유는 90년대 문화 복지 개념 대두와 함께 설치된 ‘문화의 집’ 등 시민의 육성 및 계도를 위한 기관 중심 접근법이 보편화되어 있던 시기에 일상권역에서 펼쳐지는 시민의 문화 활동을 발굴하고 연결하자는 접근법이 비교적 의미 있는 규모로 실현된 사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초창기 양적·질적 폭발적인 성장 이후 추진 체계의 관료화, 사업의 정형화, 가입 클럽의 친밀성 저하와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자발적 동기 부여 지속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거듭 거론되고 있으며 사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재단 직원 및 클럽 운영위원들이 사업 외부 사람들보다 위기의식을 더 첨예하게 느끼고 있음.

◎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도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만큼은 아니지만 사적 영역에 개별적으로 고립된 주민들을 마을이라는 생활권역 내에서 연결해주려는 지자체 단위의 지원을 일찍이 시작해 2010년 이후 전국적 명성을 얻게 됨.

성남문화재단은 지역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사업 모델의 보편화를 통해 성남 전역에서 사업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 골목길, 공단, 아파트, 시장, 상가 등 동네를 유형화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또한 성남시민 창작활동 진흥 사업과 통합·연계함으로써 예술가는 일상 공간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지역 주민은 예술 창조의 주체로 나서도록 지원함.

이와 같은 노력이 성과도 있었으나 지역 유형에 따라 다양해지는 사업 실행구조로 인해 필연적으로 행정 절차와 예산 사용이 복잡해지는 한계를 낳게 됨. 또한, 커뮤니티 아트 활동을 하던 예술가들이 재단, 기업 등과 결합해 주민을 만나는 등 다양한 사업 주체가 상호작용해야 하는 복잡성 속에서 지역과 밀도 높은 접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함.

25) 2010년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10대 트렌드' 선정,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지역·전통 문화 브랜드 공모' 대상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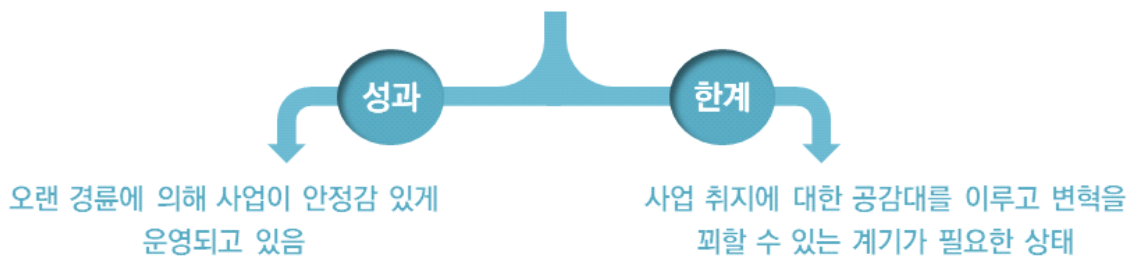
1-2. 도시 정체성 구축 사업의 성장과 굴곡

- ◎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집행 부문에서 가장 큰 성과는 민관협력 추진체계 및 운영체계를 일찍이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점이라 할 수 있음.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시민 운영위원회, 우리동네문화공동체 사업의 주민 협의체는 성남문화재단과 협력하는 민간 주체로 사업 처음부터 기획되었으며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생활문화 리더를 성장시키고 배출해 왔음.
- ◎ 민관협치는 2단계 중장기 계획으로 들어서는 시기에 ‘사랑마루’라는 이름으로 보다 본격적인 형태로 제시됨. 사랑마루는 초기 3년간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지역 활동가, 예술가, 연구자들로 구성된, 일종의 민관협치형 중간지원조직으로 구상되었음. 구체적으로는 7개 동네에 4명의 팀장을 배치하고 주민 운영위원회와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유형별로 따로 움직이고 있는 마을을 엮고자 했음.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거점을 갖지 못한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과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디딤돌이기도 하였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화예술기획자 양성의 문제가 부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음.
- ◎ 사랑마루는 3년 간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 이러한 중간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성남문화원, 성남 YMCA 등 지역 문화조직과 협력할 수 있었으며, 책과 영상 등 동네별 기록을 추진하였음. 또한, ‘나도야 문화예술 코디네이터’라는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교육을 실시함.
- ◎ 그러나 사업 추진 중, 예기치 못하게 지역의 정치적·경제적 상황 변화의 영향으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사업의 선택 및 집중이 일어나게 됨.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경기가 위축되면서 민선 4기부터 성남시가 긴축재정에 돌입하게 되었고 성남문화재단 재정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음. 이로 인해 5대 사업 중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와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이외 사업들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됨.
민선 5기에 들어선 2011년에는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을 시장의 정치적 동원자원으로 인식한 의원들의 반대로 예산삭감이 이루어짐. 사랑마루를 포함한 우리동네문화공동체 사업 예산은 총 2억 3천만 원이었으나 4천 3백만 원을 제외한 모든 사업예산이 삭감됨.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은 예산삭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는 그 당시 여러 수상을 통해 사업의 전국적 인지도 및 영향력을 획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았으나 장기적으로 지역 생활공간을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과 연계해 성남시 전역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일상화하겠다는 계획은 좌절되었으며 이후 성남문화재단은 사업 방향을 보수적으로 선회해야 했음.
- ◎ 그 결과, 십여 년 넘는 세월 동안 사업의 큰 방향성이나 혁신적 신사업 없이 기존 사업의 보완·개선 위주로 운영됨.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는 정체되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려 애썼으나 기존의 정책 프레임워크 속에서 한계를 느낌.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개별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됨. 이에 따라 2013년 단대동, 판교동 2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동네가 공모한 사업 내용을 추진하며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됨. 이렇게 하여 현재 전국적 인지도를 얻게 된 사례가 단대동 논골문화마을임.

1-3. 생활 SOC와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 ◎ 2018년 현재 한국 상황은 2006년 성남문화재단이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을 설계할 때와 많이 달라졌음.
성남문화재단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생활문화로 도시를 브랜딩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지난 십여 년 전국적으로 생활문화가 부상한 추세에 있었음. 시대변화를 좇아 제도도 변화해왔고 공급자 시각에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던 정책 사업들은 시민에게 문화예술 창작과 교육 공간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변화해왔음.
- ◎ 생활문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 창작에 관여하는 소비자를 일컫는 프로슈머(생비자(生費者)), 리처드 플로리다의 창조도시, 생활문화공동체와 사회자본,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생활예술과 생활문화 등과 같은 다양한 개념들이 호출되었고 논의된 바 있음.
이렇게 여러 갈래로 펼쳐졌던 논의들은 현재에 다다라서 ‘문화권’과 ‘생활 SOC’라는 개념으로 응집되고 있다 할 수 있음. 즉 생활문화와 관련된 논의 및 활동은 성숙기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이 같은 상황에서 성남문화재단의 3단계 중장기 계획이 2020년 종료를 앞두고 있음. 국내 생활문화 정책 성장의 주요한 주체로서 성남문화재단의 주요한 성과는 오랜 경륜에 의해 쌓인 민관협치 노하우와 시민 주체를 기반으로 한 안정감 있는 사업 운영일 것이며, 부딪친 한계는 시대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고착된 정책 프레임과 혁신 에너지일 것임.



- ◎ 이에 성남문화재단은 향후 정책의 중장기 방향성을 모색 중에 있음. 구체적으로는 2019년부터 걸어서 5분 거리 내 생활밀착형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애초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목표했던 성남 전역 생활문화 확산을 되살리는 것이기도 하며 생활 SOC의 필요성이 부상하는 최근의 정책적 결에 부합하는 방향이기도 함. 성남문화재단 입장에서 생활 SOC는 십 년 넘게 일구어 온 생활문화의 제도적·사회적·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플랫폼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음.

2. 생활문화공동체 성과평가 결과

1-1. 생활문화공동체 평가 체계화 과정

- ◎ 5분 거리 내 생활밀착형 공동체 공간 조성 계획을 살펴보기 전에 십 년 넘게 진행된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의 결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성과평가 사전연구 결과를 알아보고자 함.
- ◎ 성남문화재단은 2단계 중장기 계획을 마무리하던 2013년부터 체계적인 사업성과 평가를 위해 생활문화공동체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2018년까지 지속해왔음. 평가들의 개발 과정은 아래 표²⁶⁾와 같음.

[표 6]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평가 지표 개발 및 검증 과정 (2013~2018)

2013년		2014년		2015년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2013)』		『생활예술정책 성과지표 개선 연구 - Subjective Well Being의 관점에서』		『생활문화공동체사업 성과평가』
프랑소와 마타라스 『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1997)』 지표 활용	⇒	프랑소와 마타라스의 사회적 효과 지표와 개인의 주관적 행복 사이의 연관성을 토대로 생활예술 통한 행복감 측정틀 제시 색채와 자유연상에 근거한 사업 브랜드 이미지 조사	⇒	2014년 측정틀 기반으로 설문 개발 후 현장 조사 취향공동체와 지역공동체 사이의 유사점/차이점 비교분석
2016년		2017년		2018년
『2016 생활문화공동체 성과평가 연구』		『2017 생활문화공동체 성과평가 연구』		『2018 생활문화공동체사업 3개년 종합 성과평가 연구』
경기도문화재단(2016), 『경기도 생활문화지표를 위한 정책 및 측정틀 연구』 측정틀 기반으로 설문 재구성 현장 조사 및 요인분석 통한 측정틀 검증	⇒	2016년 연구 외부 자문 통해 개선 및 안정화 단계	⇒	2016~2018 3년 정량평가 종합 분석

26) 김유진 외, 「2018 생활문화공동체사업 3개년 종합 성과평가 연구」, 성남문화재단, 2018. 4p.

- ◎ 특히 2018년엔 2016~2018년 3개년에 걸친 조사결과 데이터를 종합해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의 정체성 및 변화 추세를 알아보고자 하였음.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생활문화공동체의 현황 및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사업 방향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1-2. 2016~2018 생활문화공동체 종합평가

(1) 종합성과 개요

- ◎ 2016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성남문화재단의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참여자의 종합 만족도와 사업 참여 추천의사는 4.11, 유사사업 참여의사는 4.04로 나타남.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80점 이상의 점수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7]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 2016~2018 종합 만족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반사업만족도	947	1	5	4.11	.740
사업참여추천의사	611	1	5	4.11	.724
유사사업참여의사	966	1	5	4.04	.794
유효수 (목록별)	609				

- ◎ 2016년 경기문화재단 측정틀²⁷⁾을 기본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간 조사를 실시했으며, 2017년, 2018년 2년 간 데이터를 종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함.²⁸⁾ 종합 분석 결과 분류된 각 요인의 의미²⁹⁾는 다음과 같으며 각 요인의 평균값은 아래 표³⁰⁾와 같음.

- **진입여건** : 생활문화공동체로 진입하기 필요한 환경적 용이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생활권 내 활동 공간, 관심 프로그램 유무, 개인이 체감하는 시간과 비용의 여유, 주변에서 유인 동기가 되어주는 인적 네트워크의 정도를 평가함.
- **창의적 학습** :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내용이 개인에게 미치는 문화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값으로 놀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자유로운 표현, 예술적 기예의 숙련, 예술 리터러시 개발, 개인의 취향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봄.
- **공동체 참여** : 생활문화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내집단인 동네/동호회 단위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환대감, 연대감 등을 측정함.
- **소통과 신뢰** :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 맺기의 방식에 변화가 생겼는지를 측정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을 통해 소통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고, 사업 참여 전후로 친밀한 관계부터 낯선 관계까지 신뢰도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봄.
- **개인의 행복** : 생활문화공동체 활동을 통해 개인의 행복감과 건강, 자존감 등에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봄.

27) 김유진 외, 「2017 생활문화공동체사업 성과평가 연구」, 성남문화재단, 2017. 4~5p.

28) 2016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7년 문항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문항 삭제/새로운 문항 추가 작업이 이루어져 2017년부터 데이터 종합이 가능하였음.

29) 김유진 외, 「2018 생활문화공동체사업 3개년 종합 성과평가 연구」, 성남문화재단, 2018. 19p.

30) 위의 보고서, 20p.

[표 8] 2017~2018 종합 요인분석 (n=528)

요인	문항	성분	요인평균	Cronbach's α
진입여건	주변생활문화공간	.790	3.543	0.847
	주변관심있는생활문화활동	.741		
	주변사람제공생활문화정보	.738		
	개인활동시간	.683		
	개인활동비용	.652		
창의적 학습	취향	.719	3.851	0.931
	이해	.707		
	지식과기술	.705		
	상상력	.689		
	비판적사고	.674		
	표현성	.671		
	도전성	.637		
	몰입	.612		
공동체 참여	즉흥성	.574	3.958	0.92
	한대감	.745		
	타인의행복에기여	.728		
	소속감	.709		
소통과 신뢰	공동체목표	.667	3.842	0.945
	신뢰감변화_거주지이웃	.775		
	신뢰감변화_처음만난낯선사람	.772		
	신뢰감변화_생활문화전후변화	.703		
	신뢰감변화_가족/친구	.689		
	신뢰감변화_생활문화활동동료	.624		
	신뢰감변화_재단외생활문화활동가	.599		
	관용_다문화/취약계층수용성	.561		
	소통경험_친교를위한대화	.541		
	소통경험_도움을주고받는관계생성	.524		
	소통경험_새로운관계수용	.511		
	관용_다른가치관및의견에대한포용성	.499		
	소통경험_타인의말을듣는태도	.472		
개인의 행복	행복감_행복변화	.772	3.970	0.932
	행복감_건강변화	.729		
	정서적회복능력_정서조절력	.718		
	행복감_내삶에대한낙관성변화	.718		
	정서적회복능력_자기효능감	.708		
	정서적회복능력_공감능력	.626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 ◎ 종합 요인분석 결과,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은 <공동체 참여>와 <개인의 행복> 영역에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즉, 집단 소속감이 효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웰빙 측면에서 만족감이 높음. 반면, 진입여건은 가장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남. 즉, 참여자들은 사업 과정 중 느끼는 만족에 비해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환경적 측면에서 상대적인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

(2) 종합성과를 통해 보는 정부의 생활문화공동체 개입 논거

- ◎ 사업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베네트(T. Bennett, 1997)가 설명한 문화예술의 긍정적 효과 5가지를 기준³¹⁾으로 평가 결과를 살펴봄.

베네트는 영국이 문화에 개입하게 된 정부 예산 지출의 정당성을 문화예술의 외부효과로 인한 공공재적 특성에서 찾고 있음. 이러한 공공재적 특성은 한국에서 생활문화공동체 정책이 펼쳐지게 된 이유임. 성남문화재단 지표는 사업 내부적 역동을 측정하는데 초점이 있어 성과측정 결과에 한정된 시야를 정책적 목표까지 확장하기 위해 베네트를 활용함. 베네트가 제시한 문화의 공공재적 특성은 아래 5가지임.

- 첫째, 공동체가 공유하는 고유의 문화예술을 통한 정체성 통합 유지
- 둘째, 지역민의 정서적 욕구 충족 및 정서 순화를 통한 인격 함양,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성 개발로 높은 교육적 효과
- 셋째, 미래 세대에 남길 유산으로서의 문화예술
- 넷째,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 문화적 창조력 향상을 통해 지역 전반적인 문화적 저변과 능력 제고
- 다섯째,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 소모임 활동을 촉발시킴으로써 생활예술 지원 효과. 이를 통해 주민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사회의 문화적 수준 제고

◎ 첫째,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의 특성과 지난 3년 간 추세

-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는 전반적으로 중년 이상 여성이 중심이 된 보수적이고 안정적 성격의 공동체 정체성³²⁾을 가지고 있음.
- 여성 위주지만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중심으로 남성 참여가 증가 추세임.
- 장기 지역 거주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새로 이주한 주민의 유입이 어렵다는 뜻으로 생활문화공동체의 고착화 징후일 수 있음.
- 성남 신도심(분당구, 판교) 거주자 역시 증가 추세임.³³⁾
- 지난 3년 추세에서 가장 유의해 볼 부분은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와 공동체 유대감 약화³⁴⁾임.
- 생활문화공동체가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는가는 국민 일반과 생활문화공동

31) 금성희, 「문화예술정책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8. 23~24p에서 재인용

32) 2016~2018년 응답자 953명 중 80.9%가 여성이며, 연령 문항에 응답한 919명 중 40대 이상이 74.77%에 이룸.

평균이 가장 높은 10위 권 내 문항을 보면 <개인의 행복>, <사업 만족도>, <공동체 참여>요인에 대부분 포진되어 있음. <공동체 참여>는 주로 공동체에 대한 안정적 소속감을 평가하는 변수(공동체 목표, 환대감, 소속감)로 구성되어 있음. 반면, <창의적 학습> 요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창의적 학습>을 구성하는 변수 중에서도 '도전성' 점수가 가장 낮았음. <소통과 신뢰> 요인에서는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감 변화 및 '다문화/취약계층 수용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

33) 신도심 거주 참여자는 원도심(중원구, 수정구) 거주 참여자에 비해 경제적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은퇴자가 많다는 점이 질적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적 있으나 2018년 성과평가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검증할 방법은 없음.

34) 지난 3년 간 마을 지도자, 동호회 대표, 성남문화재단 등 생활문화공동체 리더의 경청 문항은 3.70 → 3.81 → 3.54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또한 만족도에는 3년 간 유의미한 변화가 없으나 향후 유사사업 참여의사는 4.15 → 3.98 → 3.95로 약해지고 있음.

2017년에서 2018으로 넘어가면서 공동체 유대 약화의 신호도 보임. 공동체 목표를 공유한다, 공동체가 환대한다고 느낀다는 문항에서 2018년 점수가 2017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으며, 갈등이 생겼을 때 개인 책임을 묻는 경향도 높아짐.

체 참가자 사이에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 신뢰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추론해 봄. 국민 일반의 신뢰도는 <2017 사회통합실태(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성남 생활문화공동체의 신뢰도는 <2018 생활문화공동체사업 3개년 종합 성과평가 연구(성남문화재단)> 조사결과를 활용함. 둘을 비교하면 **국민 일반의 신뢰도는 67.5점,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의 신뢰도는 77.4점으로³⁵⁾ 생활문화 활동이 사회적 통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임.**

- 사회적 통합과 관련해 지역문화진흥원이 연구한 <2017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평가연구>를 보아도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이 공동체 결속과 지역의 사회자본 형성에 효과가 있다고 나타남(아래 그림³⁶⁾ 참조).

[그림 6] 사회자본에 관한 생활문화공동체 참여자와 일반 국민 인식 비교

| 요인별 점수 평균과 조정된 점수 평균 | *앞선 결과 제시와 소수점 자리가 상이함 단위: 점

요인	평가항목	평균		조정된 평균	
		참여자 (표준편차 SD)	일반 국민 (표준편차 SD)	참여자 (표준오차 SE)	일반 국민 (표준오차 SE)
[요인4] 사회자본	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직하다고 생각한다	76.3 (19.019)	72.6 (17.661)	77.0 (0.865)	72.0 (1.087)
	이웃과 잘 알고 지낸다	76.2 (20.409)	71.5 (21.017)	77.0 (0.975)	70.5 (1.225)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자부심을 느낀다	79.3 (18.641)	71.9 (18.43)	80.1 (0.872)	71.5 (1.096)
	우리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	78.3 (18.748)	70.7 (18.853)	78.8 (0.888)	70.4 (1.116)
	종종 이웃을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는다	73.1 (20.135)	63.0 (20.94)	73.1 (0.969)	62.5 (1.217)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편이다	72.8 (20.522)	63.6 (22.314)	73.0 (1.003)	62.9 (1.260)
[요인6] 공동체 의식	이웃과 지역사회 일들과 문제에 관심이 있다	73.7 (18.788)	65.3 (21.657)	73.7 (0.944)	65.4 (1.186)
	우리 지역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76.6 (18.851)	67.4 (22.007)	76.7 (0.952)	67.4 (1.196)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72.7 (19.127)	61.1 (22.087)	72.4 (0.956)	60.8 (1.201)

◎ 둘째, 지역민의 정서 순화 및 창의성 개발로 교육적 효과

- 성남문화재단과 지역문화진흥원 조사에서 정서 순화에 관한 부분은 모두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 행복감을 느끼는 문항과 관련이 있음.
- 우선 생활문화공동체가 정서 순화에 효과를 미치는 전반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원 조사의 ‘행복온도’를 참고함. ‘행복온도’는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지표임. 조사결과 **일반 국민은 66.7°C, 사업 참여자는 79.2°C로 나타나 참여자들의 행복 수준이 더 높았음.**³⁷⁾

35) 「2017 사회통합실태」 설문 문항 30번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은 4점 척도, 「2018 생활문화공동체사업 3개년 종합 성과평가 연구」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비교함. 척도 변경으로 인해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당한 점수차를 나타냄.

36) 코뮤니타스, 「2017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평가연구」, 지역문화진흥원, 2017. 168p.
일반국민 300명, 생활문화 동호회 참여자 500명을 자체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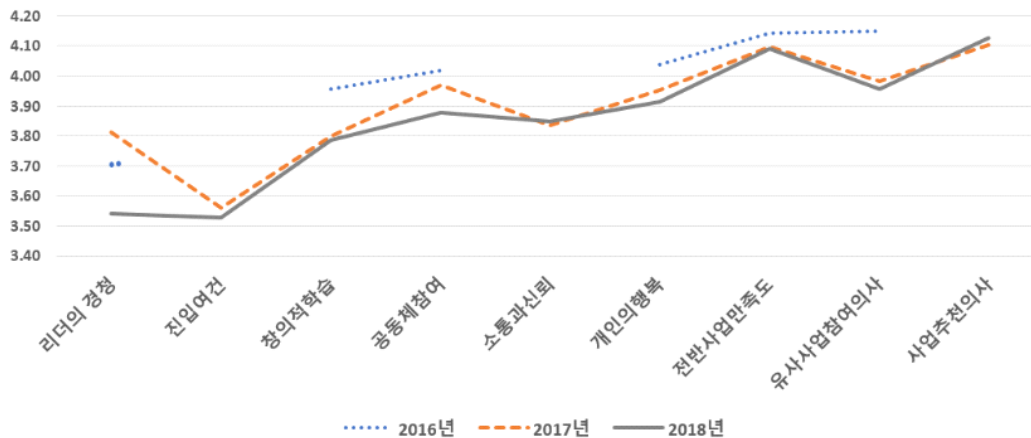
37) 위의 보고서, 158p.

※ 성남문화재단 조사에는 일반 지역민과 생활문화공동체 참여자를 대조하는 내용이 없기에 지역문화진흥원 자료를 참고함.

- 성남문화재단 지표에서는 <개인의 행복> 요인이 지역민의 정서적 욕구 충족 및 순화와 관련이 있고, <창의적 학습> 요인은 창의성 개발과 관련이 있음. 평가지표 요인 5개 중 <개인의 행복>은 5점 만점 중 3.975로 가장 높고, <창의적 학습>은 3.851로 3번째임.
- <개인의 행복>은 세부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조절력’, 자존감을 보호하는 ‘자기효능감’,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등 정서적 회복능력에 관한 문항들과 사업 참여를 통한 ‘행복감 변화’와 ‘건강 변화’, ‘내 삶에 대한 낙관성 변화’ 등 장기적인 심리적 번영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 조사결과,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는 정서적 회복능력보다는 장기적인 심리적 번영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창의적 학습>은 예술적 기예와 지식을 익혔는지, 예술적 표현과 시도를 경험했는지, 예술적 취향과 비판적 견해(예술 리터러시)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예술적 표현과 시도의 경험에 해당하는 ‘표현성’, ‘상상력’, ‘도전성’이 가장 낮은 점수대를 형성하고 있음.
- 3년 간 추세를 보면 <개인의 행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창의적 학습> 점수는 3.96→3.80→3.78으로 조금씩 낮아졌음(아래 그림³⁸⁾ 참조).

[그림 7]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성과 3년 추세

[그림 13] 2016~2018 종합 연차별 사업성과 비교



[표 27] 2016~2018 종합 연차별 사업성과 비교 (ANOVA)

		리더의 경청	진입여건	창의적 학습	공동체 참여	소통과 신뢰	개인의 행복	전반사업 만족도	유사사업 참여의사	사업 추천의사
2016년	평균	3.70	-	3.96	4.02	-	4.04	4.14	4.15	-
	N	338	0	334	339	0	335	337	356	0
2017년	평균	3.81	3.56	3.80	3.97	3.83	3.95	4.10	3.98	4.10
	N	284	287	297	298	293	296	301	302	302
2018년	평균	3.54	3.53	3.78	3.88	3.85	3.91	4.09	3.95	4.13
	N	239	300	305	293	282	305	309	308	309
일원배치분산분석 유의확률		0.002	0.643	0.005	0.071	0.789	0.067	0.619	0.003	0.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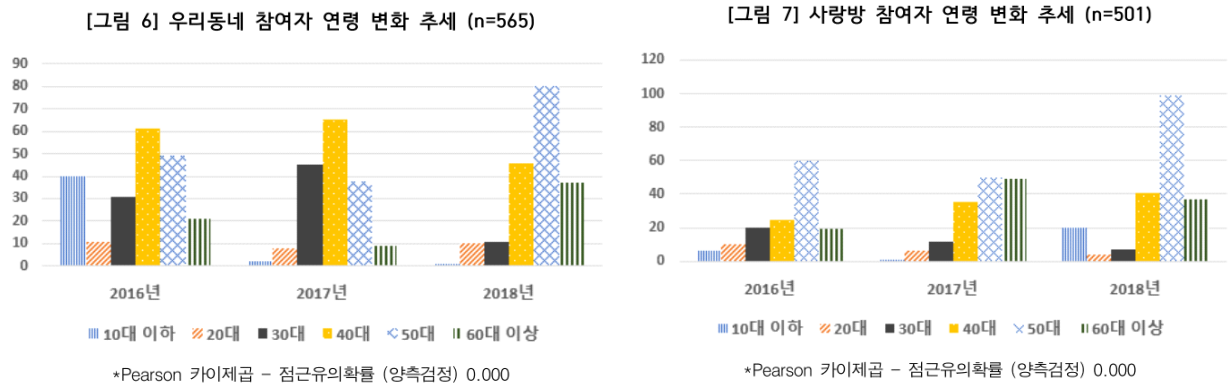
*진입 여건, 소통과 신뢰, 사업 추천의사 : 2016년 추가한 문항으로 인해 케이스 없는 경우가 있어 비교 불가

38) 김유진 외, 「2018 생활문화공동체사업 3개년 종합 성과평가 연구」, 성남문화재단, 2018. 28p.

◎ 셋째, 미래 세대에 남길 유산으로서의 문화예술

- 성남의 생활문화공동체 문화가 미래세대까지로 이어지는 유산이 될 수 있는지는 ①해당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 ②생명력 있는 생태계 형성 등과 상관이 있을 것임. ①공동체 가치에는 전술한 공동체 정체성의 특성, 지역민 정서순화 및 교육적 효과 등과 이후 기술할 지역의 문화적 저변과 능력 제고, 주민 향유권 확대 등이 폭넓게 포함될 수 있음. 때문에 여기서는 ②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즉,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관해서만 살펴보겠음.
-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 중 가장 유의해 보아야 할 점은 공동체의 고령화 현상임. 2018년 들어 우리동네문화공동체 사업과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모두에서 50대 참여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고 2016년~2018년 사이 30대 이하 응답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임.

[그림 8]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참여자 고령화 추세



- 일본의 경우, 이미 도서관으로 몰리는 노인들이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³⁹⁾ 한국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18년 노인 대상 서비스 연구를 수행⁴⁰⁾하는 등 문화정책의 주요 수혜자가 고령화되고 있음. 이는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노인이 소외되는 현상의 일면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취약한 사회적 역할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임.
- 청년층의 유입이 어려워지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생활문화공동체 생태계 구성에 취약점이 될 것임. 청년층 중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의 문제가 심각한데 30대 이하 여성의 <개인의 행복> 수준이 눈에 띄게 낮음. 반면, 40대 이상 남성은 향후 유사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높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관해서는 심층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최근 청년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공동체의 보수적·권위적 문화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39) 이동준, “쾌적, 효율, 저렴, 도서관만한 곳 없더라”...도서관으로 몰리는 노인들, 세계일보, 2018.12.8.

40) 온-나라 정책연구(<http://www.prism.go.kr>) 진행연구과제

「국립중앙도서관 노인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정보 서비스 개발 연구」(수행 기간 2018년 6월~12월)

○ 넷째,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 문화적 창조력 향상을 통해 지역 전반적인 문화적 저변과 능력 제고

- 생활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문화예술인은 전문 예술가와 일반 시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임. 일반 시민은 전문 예술가와 대비해 주로 아마추어 예술가로 일컬어져 왔는데 문화예술인의 전문성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볼 것인가에 따라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구분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형적인 예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들을 생활문화 전문가로 봐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생활문화 정책이 근 십여 년간 펼쳐져왔기 때문에 생활문화 방면에서도 오래 활동하며 리더십을 갖추게 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관행적으로 활동가 범주로 보는 편이며, 문화정책이 한편으론 리더들 중 일부를 포섭하고 또 다른 편으론 새로운 생활문화 전문가를 육성하면서 코디네이터나 퍼실리테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또한 생활문화전문가는 주로 공동체의 관계적 측면을 조율하는 역할로 규정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의 내용적 수월성 역량이 생활문화의 질적 측면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생활문화를 즐기는 아마추어 시민까지 통틀어서 문화예술인이라고 여긴다면 성남 문화재단 생활문화 정책은 위에서 <창의적 학습> 성과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적 기여와 지식의 향유에서는 효과가 높고 예술적 표현과 시도의 경험에서는 취약한 지점을 드러냄.

- 생활문화공동체 활동을 통해 고양되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지역문화진흥원의 문화예술활동 실태 조사 결과를 참고해 볼 수 있음. 일반 국민은 1년 평균 6.7회 문화예술 관람을 하지만 동호회 참여자는 12.3회 관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⁴¹⁾

또한, 생활문화의 효과를 예술 영역으로 좁히지 않고 문화 영역까지 넓혀 볼 경우 동호회 활동은 문화적 태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생활문화 동호회 참여자는 일반 국민에 비해 인류 사회 보편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에 관한 대화나 활동 참여에도 활발함(아래 그림⁴²⁾ 참조).

[그림 9] 인류 보편가치에 관한 생활문화공동체 참여자와 일반 국민 인식 비교

요인별 점수 평균과 조정된 점수 평균 *앞선 결과 제시와 소수점 자리가 상이함		단위: 점			
요인	평가항목	평균		조정된 평균	
		참여자 (표준편차 SD)	일반 국민 (표준편차 SD)	참여자 (표준오차 SE)	일반 국민 (표준오차 SE)
[요인5]	환경, 기아, 전쟁 등 인류 사회 보편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67.6 (21.962)	54.8 (23.698)	67.1 (1.074)	55.5 (1.349)
인류 보편가치	주위 사람들과 환경, 기아, 전쟁 등 인류 사회 보편적 문제와 관련된 대화나 활동에 참여한다	60.0 (23.43)	44.8 (23.384)	58.5 (1.090)	44.8 (1.370)

41) 커뮤니티스, 「2017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평가연구」, 지역문화진흥원, 2017. 152p.

42) 위의 보고서, 168p.

- 성남문화재단 사업 참여자 중 활동성⁴³⁾이 높은 리더 그룹의 특성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드러남. 생활문화 활동성이 높은 군집은 활동이 가장 저조한 군집에 비해 주변 관계에서 생활문화 관련 정보를 1.8배~2.2배 정도 더 제공받고 있음. 또한 생활문화 활동성은 다른 가치관 및 의견⁴⁴⁾에 대한 포용력과 소수자⁴⁵⁾ 수용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생활문화 활동성을 높이면 문화다양성에 열린 자세를 갖게 된다고 추론할 수 있음.

○ 다섯째,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 소모임 활동을 촉발시킴으로써 생활예술지원 효과. 이를 통해 주민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사회의 문화적 수준 제고

- 주민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한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이 실제로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제고하는가는 사업 참여기간에 관한 연구결과⁴⁶⁾와 연관 지어 볼 수 있음.
-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의 경우, 사업 참여기간이 길수록 <창의적 학습> 효과, <공동체 참여> 효과, 개인적 삶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런 평가는 사업 참여 후 1년 이상이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사업 참여를 지속시키는 힘은 활동의 질과 관련된 <창의적 학습>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진입조건>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진입조건>은 사업을 통해 주민의 문화향유권이 행사되고 문화적 수준이 제고되는 사업성과를 지역 사회 전반으로 넓히기 위한 주요 요인임. <진입조건>은 성남 사업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지표로,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은 활동 지속보다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어떤 <진입여건>에 따라 사업 참여기간이 달라지는지 살펴봤을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주변 사람이 제공하는 생활문화정보’로 나타남.⁴⁷⁾ ‘개인 활동 시간’과 ‘주변 생활문화 공간’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개인 활동 시간은 47개 문항을 통틀어 평균(3.166)이 가장 낮아 시간 부족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으며, 2016년 조사결과를 참고⁴⁸⁾해볼 때 단순히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파편화가 문제임을 알 수 있음. 2016년 조사 결과에서 공간 사용의 어려움 1위가 저녁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 역시 공간보다는 시간 파편화의 문제로 볼 수 있음.
- 시간과 관련해 특히 30~40대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남. 30~40대의

43) “여기서 생활문화 활동성이란 군집분석을 위해 사용한 변수인 생활문화 활동 방식, 갈등에 대한 태도를 의미함. 생활문화 활동 방식은 사람을 모으는지, 정보를 자발적으로 탐색하는지, 생활문화 를 주변에 추천하는지, 취미를 혼자 즐기는지 등 활동 적극성에 관한 것임. 갈등에 대한 태도는 관계에 대한 감수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갈등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지, 전체의 뜻을 따르지 않는 개인을 다툼의 원인이라고 보는지, 화해하도 록 중재해야 한다고 느끼는지 등을 물었음.”

김유진 외, 「2018 생활문화공동체사업 3개년 종합 성과평가 연구」, 성남문화재단, 2018. 63p.

44) “나와 다른 성별, 세대, 성격, 관심분야, 정치관 등을 의미”

위의 보고서, 63p.

45) “국제결혼 여성이주자와 자녀,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미 혼모,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뜻함.”

위의 보고서, 63p.

46) 위의 보고서, 61~62p.

47) 위의 보고서, 46p.

48) 여러 활동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결과가 시간 부족 이유 1위
위의 보고서, 21p.

경우 일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나이로 시간 부족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

- 흥미로운 점은 생활문화 활동성이 높아질수록 <진입여건>이 개선된다는 것인데 주변에서 생활문화 정보를 많이 획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도 기꺼이 사용하려는 의지가 생겨남. 즉, 고립된 개인이 생활문화공동체에 진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공동체의 활동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자생성도 높아진다고 추론할 수 있음.

(3) 종합성과 시사점

- ◎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건과 주의를 요하는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 3년 사업성과 분석 결과에 비추어보면 향후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에서 중요한 지점은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임. 사업 참여 지속을 위한 예술 활동의 질,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생성을 높이는 생활권 주변 관계 형성이 사업 활성화의 주요 요건이라 할 수 있음.
- ◎ 현재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상태로 이러한 안정성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참여자가 집단적 정체성에만 안주하는데 머무를 수 있음. 재단 입장에서도 관성적으로 집단의 존속을 사업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중년 여성 중심의 공동체 정체성에서 벗어나 남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특히 30대 이하 여성의 행복감이 왜 낮은지 살펴보는 등 다양한 계층의 유입과 참여자 순환을 통해 분위기를 환기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 높은 진입장벽, 사업 참여자가 고령화되는 현상, 청년층의 부족, 30~40대의 시간 파편화 등을 감안할 때 생활문화공동체가 확산되기 위해선 대중적이고 가벼운 징검다리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리동네문화공동체 사업,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 모두 무거운 의사결정 체계 안에서 주체적 시민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공동체에 소속되어 그에 따른 책임감을 부여받기 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이 있으면 바람직할 것임. 5분 거리 내 생활밀착형 공동체 공간 조성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정책 프레임워크의 변화를 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 ◎ 생활문화공동체를 통한 예술적 경험이 자발적인 기예와 지식 습득에는 도움이 되고 있으나 예술적 의미를 고도화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음. 향후 품질 높은 예술 프로그램/프로젝트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서는 생활문화 전문가에게 필요한 문화예술 역량에 대한 고민이 우선해야 하며, 지역 예술가 등 문화예술의 내용 측면에서 생활문화공동체를 다룰 수 있는 인력/조직의 발굴 및 양성이 필요할 수 있음.

3. 2018~2021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조성 계획

- ◎ 성남문화재단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동체 공간 조성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을 세워둔 상태임. 지역별 문화격차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문화소외 지역 중심으로 총 15개소를 조성을 목표로 하며 2019년에 2개소를 시범운영하고자 함.
- ◎ 생활밀착형 공동체 공간의 조성과 운영을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포함해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작은도서관, 도시농업 등 저성장 기조로 들어선 한국 사회의 전환적 정책 트렌드 수용 방안이 함께 모색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 15개소로 성남 전체의 생활권역을 촘촘히 잇기 어렵기 때문에 거점형, 준거점형, 생활밀착형 등으로 구분 및 연계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확대하려는 방향을 검토 중인데 생활밀착형 공간의 위계를 세우는 일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할 만한 사업 모델을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말미에 공간 운영체제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함.
- ◎ 성남문화재단은 생활밀착형 공동체 공간 조성에서 청년을 위시한 지역 예술가 및 주민 등 시민 주체와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작은 도서관, 도시농업 관련부처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또한, 하드웨어 위주 공간 조성이 아닌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을 명시하고 있음.
이 같은 방향성에서 볼 때 성남문화재단이 생활문화공동체를 통해 축적해 온 휴먼웨어를 확인하는 일은 중요해 보임.
- ◎ 그 외, 자원 확보를 위해 생활문화센터 지원, 유휴공간 재생 사업 등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할 계획임.
- ◎ 구체적인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사업명 : 5분 거리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조성
 - 사업기간 : 2018. 7. ~ 2021. 12.
 - 사업대상 : 성남시 전역(문화소외 지역 중심)
 - 내용
 - 마을(생활권 단위)별 문화예술 시설 전수조사(행정복지센터, 종합복지관, 다목적복지관, 작은도서관, 마을커뮤니티, 유휴교실 등)
 - 공간 재배치 추진계획 및 활용방안 수립
 - 공간 조성 및 운영
 - 공간 활용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

[그림 10] 5분 거리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조성 추진 로드맵

단계별	사 업 내 용	사업예산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전 준비	○ 마을단위 공간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비예산	2018.7~12
1단계	○ 공간 현황 및 분포 전수조사 ○ 공간 활용 방안 연구(사업 방향 설정) ○ 시범 지역 공간 조성(2개소) ○ 청년기획자 공간 운영 프로젝트 ○ 네트워크(협의체) 구성 및 운영	22백만원 22백만원 300백만원 150백만원 6백만원	2019.1~12 (500백만원)
2단계	○ 시범 지역 공간 조성(8개소) ○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 활용 시스템 구축 - 앱과 인터넷을 통해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청년기획자 공간 운영 프로젝트	1,600백만원 200백만원 200백만원	2020.1~12 (2,000백만원)
3단계	○ 문화소외 지역 공간 조성(5개소) ○ 청년 및 마을기획자 확대 프로젝트 ○ '걸어서 5분 거리' 시범마을 지정	1,000백만원 500백만원	2021.1~12 (1,500백만원)

[그림 11] 5분 거리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조성 추진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비 고
마을 단위 공간 현황·분포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문화예술, 체육, 복지, 공동체 등 공익적 공간 · 거점형, 준거점형, 생활밀착형으로 구분 · 지역 기반 활동 예술가 및 주민주체 현황 ·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시범사업지 선정 등)	2018. 7 ~ 12	추진사항 별도 보고
공간 현황 전수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 성남시 문화공간 현황에 대하여 거점공간을 구분하여 방문 실사 추진 · 공간 조성의 필요성 및 활용 방안 제시	2019. 2. ~ 7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 관련 사업 부서 협조 체계 마련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문화재단, 자치행정, 행복마을, 도시재생, 사회적기업지원, 복지정보센터 등)	2019. 1. ~ 지속	
1단계 추진	· 사업 기본계획 수립 (공간조성, 프로그램, 인력운영, 시스템 구축 등) · 시범 지역 공간 조성(2개소)	2019. 1 ~ 12.	
2단계 추진	· 1단계 추진사업 확대, 시범 지역 프로그램 운영 · 시범 지역 공간 조성(8개소)	2020. 1 ~ 12.	
3단계 추진	· 1~2단계 추진사업 지속 진행 · “5분 거리 문화예술 공간” 시범마을 지정 · 성남시 전역 확대 및 공간 조성(5개소)	2021. 1 ~ 12.	

4.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 자원 및 역량

4-1. 운영 주체 및 운영 체계와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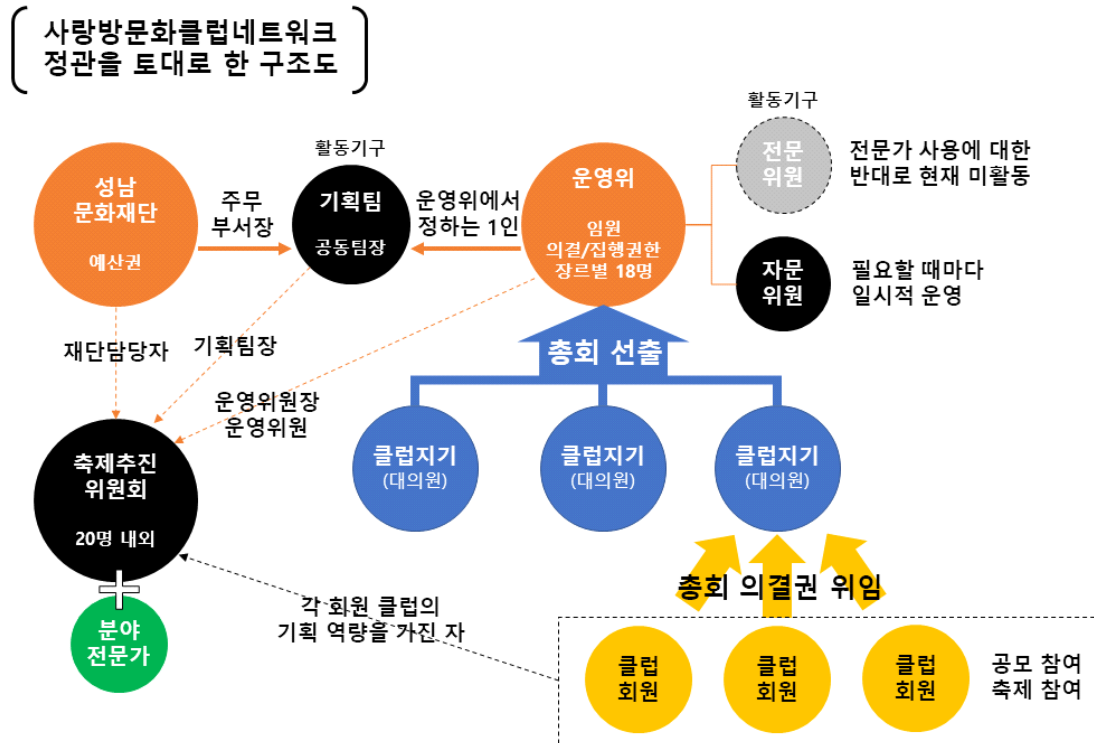
- ◎ 향후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조성의 실현 가능성은 성남문화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생활문화 자원과 역량, 그 외 지역 자원과의 협력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는 문화예술 경험을 예술적 체험으로만 축소해 해석하지 않고 시민이 삶과 문화예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영위하는 주체로서 지역에 공헌하는 이상적 목표로 추구했기 때문에 시민의 의사결정 민주화 경험에 대한 고민을 안고 출발하였음.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는 이러한 공동체의 이상적 목표를 상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랑방 로고와 노래를 만들었고 매년 <사랑방문화클럽 축제>를 개최하여 성남시 공동체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하였음.

[그림 12] 2017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현장
(성남시 공식블로그 '성남 다이어리')



-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은 주로 공모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와 시민 운영 조직⁴⁹⁾이 파트너십을 갖고 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우리동네문화공동체는 각 마을 주민협의체와 협치하는 형태이며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는 사업 초기부터 정관⁵⁰⁾을 토대로 재단과 협치 체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아래 그림⁵¹⁾ 참조).

[그림 13]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구조도



- 성남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공동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문화기획부로 문화진흥국 내 위치하고 있음. 문화기획부는 국장 1인, 부장 1인, 차장 1인, 과장 3인, 대리 및 사원 4인으로 총 10명임. 문화진흥국은 문화기획부 외 문화사업부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부는 크게 아카데미, 미디어센터, 책 테마파크를 운영하며 문화예술교육지원을 하고 있음.⁵²⁾

49) 예를 들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운영위원회, 2013년 사업 참여한 논골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등.

50)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정관 제6장 활동기구

『 제20조(활동기구)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활동기구들을 가질 수 있다.

1. 운영위원회는 성남문화재단 주무부서와 협력하여 기획팀을 둘 수 있다.
2. 기획팀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획팀장 1인과 성남문화재단 주무부서장이 공동 팀장을 맡고, 사업에 따른 기획위원을 위촉한다.
3. 기획팀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각종 사업을 위해 활동한다.

제21조(전문위원) 각 활동기구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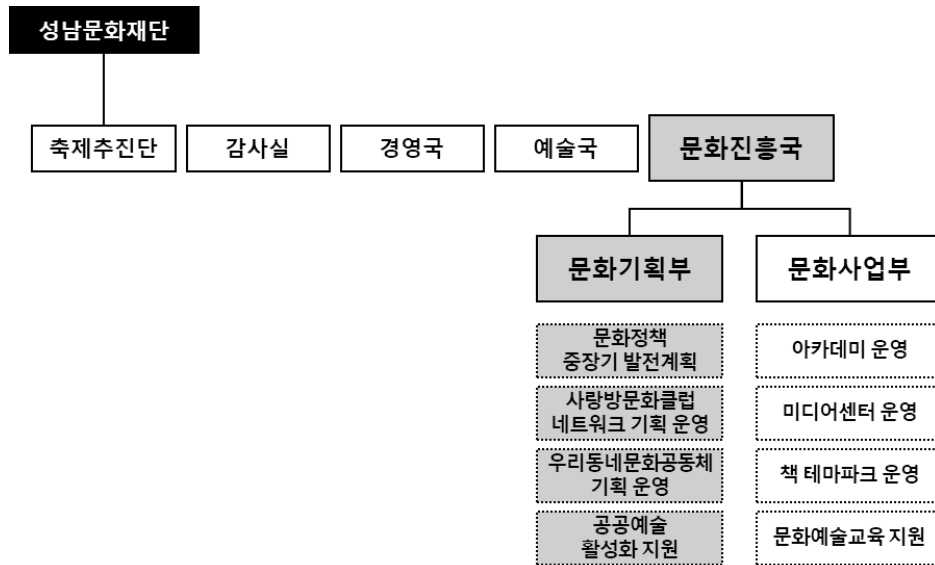
제22조(자문위원) 본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대해 자문해 줄 수 있는 사회 각계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축제추진위원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를 주관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팀장과 운영위원 및 각 회원클럽의 기획역량을 가진자와 재단담당자, 분야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51) 김유진 외, 「2017 생활문화공동체사업 성과평가 연구」, 성남문화재단, 2017. 56p.

52)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성남문화재단 조직과 기구 참조

[그림 14] 성남문화재단 조직도



- 재단 문화기획부와 시민 운영 조직이 촘촘하게 관계를 맺으며 협치 체제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는 단단한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음. 그러나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치밀한 시민 조직화가 새롭게 유입되는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됨.

향후 공동체에 멤버십을 두지 않은 과도기 상태에서도 가볍게 생활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사업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 프로그램과 만남/교류를 위한 공간 제공이 필요함.

- 현재까지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에서 문화예술 참여 프로그램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운영해왔으므로 문화기획부는 시민 활동을 간접 지원하고 플랫폼 및 네트워크를 마련하는데 집중해 왔음. 또한 문화사업부가 별도로 시민 공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기획부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경우 업무 중복 문제도 존재함.

그러나 향후 15개소의 생활밀착형 공간이 생겨나게 된다면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 운영 역량이 주요한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지역에 흩어져 있는 15개소 공간을 시민의 참여로 운영하는 일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변수와 씨름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음. 때문에 향후 15개소 공간을 생활문화로 연결하고 책임질 운영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 및 민간 조직을 키우는 일이 필요할 수 있음. 또한 프로그램 직접 운영이 어렵다면 문화사업부의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지원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문화예술 활동을 다양화하고 풍성하게 고양하는 일이 필요할 수 있음.

- 성남문화재단에서는 과거에도 민관협치형 중간 지원 조직인 ‘사랑마루’를 조직하거나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에 ‘전문위원’을 기용하는 등 생활문화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고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시민 조직 및 인력의 제도적 위치가 애매하여 시의회의 저항에 부딪친 바 있음. 때문에 향후 공모 사업이 아닌 형태로 민간의 역량과 결합하고자 할 때는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방식을 찾고 보완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4-2. 하드웨어

- 성남문화재단은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중에서는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문화정책 기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생활문화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하드웨어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음.

[표 9] 성남아트센터 및 성남문화재단 관리 운영 시설

시설	설명	소재지
성남 아트센터	1854석 규모 오페라하우스, 전문 클래식 공연을 위한 콘서트홀, 소극장 규모의 앙상블시터어 3개, 야외공연장 및 큐브미술관 보유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초기 아트센터 공연에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생활문화공동체 결속에 상징적 도움을 줌.	분당구 야탑동
성남 미디어센터	미디어 리더러시 교육, 미디어 커뮤니티 지원, 시민 제작물 퍼블리싱에 목적을 둔 센터로 소리 스튜디오, 촬영스튜디오, 로비 겸 공연장, 공동주방, 작은 영화관, 미디어도서관, 미디어공방, 장비보물창고 외 강의실과 교육실 3개를 갖추고 있음.	분당구 야탑동
악기랑	악기대여, 악기기부 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 악기 나눔 공간으로 일반시민, 공공기관,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악기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기부 악기 대여함.	분당구 야탑동
시민회관 극장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성남문화재단이 대관업무를 하고 있음. 지역 예술 단체, 기관, 학교 등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함.	분당구 수내동
책 테마파크	책을 테마로 야외 공연장, 조각공원, 벽화산책로, 책 카페 등으로 구성 책 카페는 전자책 읽을 수 있는 멀티미디어 시청각실, 자료실, 전시 공간 등으로 구성됨. 책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공연, 전시 행사 등을 개최함.	분당구 율동
공공예술창작소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과 소통이 가능한 예술가, 기획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생활권형 예술가 레지던시.	수정구 태평동 수정구 신흥동
사랑방문화공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3인 이상 생활예술동아리 및 모임을 위한 자율 활동 공간으로 큐브사랑방 연습실, 큐브사랑방 전시실, 앙상블사랑방 연습실을 운영 중.	분당구 야탑동
신해철 거리	신해철 작업실이 위치한 신해철 추모 거리로 거리행사가 개최되기도 함.	분당구 수내동
야외공연장	480석의 고정 객석과 6600㎡의 잔디 객석으로 최대 11,000명 수용 규모.	분당구 수내동

- 그 외 성남 문화예술 관련 환경 현황은 <성남형 문화공간 개발 및 운영전략 연구(2016)>에서 조사하였음. 문화예술시설 뿐 아니라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기관, 축제, 교육 관련 환경, 복지 관련 환경, 산업 관련 환경 등 성남의 전반적인 문화예술 관련 자원을 일별하였음.
- 2019년에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 현황 및 분포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전수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조성에 실제로 관여할 수 있는 시민 주체가 해당 공간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 대여가 주기능이면서 모임 장소를 따로 만들기 어려운 곳이 있는 반면, 이미 활발한 시민 활동이 온-오프를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곳도 있음. 또한 2012년 제정된 작은도서관 진흥법 등 제도적 지원이 갖추어짐에 따라 성남시에도 많은 작은도서관이 생겨남. 성남시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총 공공도서관 수는 119개, 공립은 26개, 사립은 93개에 이름.⁵³⁾ 이 중엔 설립된 지 1~2년 밖에 안 된 곳도 있어 오래된 역사를 바탕으로 자치 역량이 밀집된 곳을 우선 발굴하는 일이 중요해 보임.

[표 10] 지역공동체 친화적인 생활권 복합문화시설의 예

시설	설명	소재지
성남문화의집	2000년 개관하였음. 문화 동호인은 개인연습실/문화연습실, 문화창작실과 2개의 강의실, 예절실, 향토자료실, 전시실/다목적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도서 수장고, 영상편집실, 유아놀이방 등을 운영함.	수정구 신흥동
서현문화의집	2002년 개관하였고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성남민예총이 위탁 운영함. 마주침 공간, 문화관람실, 문화연습실, 문화창작실, 컴퓨터실, 서양화실, 한국화실 등을 갖추고 있음. 시민 생활예술을 위한 열린 공간을 지향하며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지역주민 소모임을 지지함. 현재 관장이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활동을 하였음.	분당구 서현동
한솔종합사회복지관	한솔주공 7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대표모임을 포함,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함.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을 부설센터로 갖고 있음. 작은도서관에서는 도서바자회, 역사북아트, 동화구연 재능기부활동, 작가와의 만남/교육강연, 책놀이 자격증반, 영어스토리텔링 등의 프로그램 진행.	분당구 정자동
도촌동주민센터	도촌동 주민센터는 시민 행사가 진행되는 대회의실, 다양한 문화강좌가 운영되는 강의실, 여름 한정 여는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3층에는 작은도서관도 있어 주민친화적인 생활권 복합문화 시설로 볼 수 있음. 성남시 공식 블로그 '성남 다이어리'에서 시민 블로그기자단이 취재한 바 있음. ⁵⁴⁾	중원구 도촌동
논골작은도서관	2010년 2,000명의 주민이 건립사업 제안을 추진하여 설립된 작은 도서관으로 성남문화재단 마을커뮤니티 지원 대상이었던 논골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에 연계된 주요 기관 중 하나. 지상 3층 건물로 도서 대여 뿐 아니라 지역 내 복합문화시설 및 주민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음.	수정구 단대동
동네작은도서관	초등 대안학교를 꿈꾸며 우선 어린이를 만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전액 후원을 받아 설립된 작은도서관. 어린이를 위한 여러 놀이형 학습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외 엄마들을 위한 Book&Cook, 비경쟁 토론 수업, '한 책 읽기' 등을 운영함. 동네 만두가게와 연계하여 독거어르신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도 추진함. 성남문화재단 미디어센터 공동체 방송국 '성남인 7회'에서 소개한 바 있음. ⁵⁵⁾	수정구 수진동
하늘달팽이 작은도서관	양지동 노인복지관과 양지어린이집과 같은 건물에 소재하였음. 2006년부터 <양지마을문고>로 운영되다 2009년 작은도서관으로 개관함.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주민모임과 교육·문화 프로그램 ⁵⁶⁾ 을 운영하고 있음. 숲과 연결된 지리적 이점으로 숲놀이터 등 자연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음.	수정구 양지동

53) 성남시 작은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https://www.snlib.go.kr/small/index.do>

4-3.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는 크게 ①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기획부의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내용과 ②각 마을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③공공예술창작소 입주작가 프로그램 세 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음.

○ 문화기획부의 생활문화공동체 중 우리동네문화공동체 지원 내용은 아래 표⁵⁷⁾와 같음.

[표 11]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 내용 (2018년 기준)

	마을커뮤니티 신규사업	마을커뮤니티 지속사업	문화공간조성 지원
사업 대상	- 성남시내 신규 참여를 원하는 마을단위의 주민 주도형 생활문화공동체 - 대표 또는 활동가는 반드시 사업대상지인 마을에 거주 또는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당해연도 성남시 마을공동체 리더 교육 수료 필수	2016년, 2017년 시범 마을 사업을 운영한 단체 (2~3년차)	-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공간을 필요로 하는 단체로서 공간 조성 후 5년간 유지·운영할 수 있는 단체 - 커뮤니티 공간 구성에 따른 기획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개인 또는 그룹과 협업할 수 있는 단체
지원 내용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마을 축제 등 - 단체 최대 7,000천원 지원	- 마을공동체 중심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 - 마을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공공미술, 마을축제 등 - 단체 최대 8,000천원 지원	- 마을공동체가 문화예술을 매개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 20,000천원, 4개 마을

○ 문화기획부 주관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은 동호회 네트워크 지원이라는 특성이 있어 개별 동호회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플랫폼이 주요한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음.

[표 12]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지원 내용

	생활문화동호회한마당	문화공헌프로젝트	생활문화동호회축제
기간/장소	4월~10월 / 성남시 일대	4월~10월 / 성남시 일대	10월 / 성남시청 일대
목적	-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확산을 위한 발표의 장 제공 - 동호회들의 독창성과 네트워크 기회 확산	문화나눔 활동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 대표적인 생활문화 동호회 축제로서 위상 확인 - 생활문화동호회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축제 구현 - 동호회 간 네트워크 확대
내용	-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팀 활동 지원 - 동호회 활동 거점 및 다중 밀집 지역 등 공간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진행 - 한마당 단체별 자체 운영 기획 수립 - 한마당 기획 워크숍 및 사업설명회 개최 - 프로그램 구성 및 추진 일정 협의	- 생활문화동호회의 문화공헌 참여 기회 제공 -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문화나눔 실현 - 체험 및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 봉사 활동 확대 - 상대원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임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행사 확대	- 생활문화동호회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거리공연 -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54) 이지설 (블로그기자단), [찾았다! 작은도서관] 도촌동 작은도서관에 빈자리가 없는 이유, 성남시 공식블로그 '성남다이어리', 2016.8.11. <https://m.blog.naver.com/sntjdska123/220785149220>

55) 임혜림·이영미, 성남인 7회, 성남미디어센터 공동체방송국, 2018.7.

http://snmedia.or.kr/station/video_view.asp?sq=273&category=0&page=1&tag=%EC%84%B1%EB%82%A8%EC%9D%B8

56) 하늘달팽이도서관 네이버 카페 참조 <https://cafe.naver.com/dalpengi>

57) 민경은 외, 「2018 '성남 마을 공동체 사업 심층연구' 보고서」, 성남문화재단 2018. 4p.

- ◎ 마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성남문화재단이 연구한 <2018 ‘성남 마을 공동체 사업 심층연구’ 보고서>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논골 마을의 사례⁵⁸⁾만 살펴보고자 함.

[표 13] 논골문화마을 프로그램

활동년도	활동내용 요약 사례
2010년부터	논골 골목길 생태학교, 하룻밤캠프 진행 (연2회 300명참여)
2011년 4월-12월	나는 배우다(논골 청소년 30명 참여)
2011-2013	생활 속의 에너지 마을-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3가구 시공
2011부터	논골마을학교(기초과정, 심화과정)
2012년 11월 4일	제1회 논골축제 -1,300명 참여
2013년 4월-12월	꿈길벽화만들기, 골목길생태학교, 하룻밤캠프, 마을학교 진행
2013년10월 25일	제2회 논골축제 -3,000명 참여
2013년 4월부터	향기있는 논골 마을만들기(100가정 텃밭상자나누기)
2013년 4월-9월	SKC&C와 함께하는 단대동 논골 꽃길 만들기(6,000그루 영산홍)
2013년 7월부터	공유경제 행복한 논골 쓰레기 거점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진행
10월-12월	경기마을리더 교육
4월-12월	꿈길벽화만들기, 골목길생태학교, 성남마을공동체학교 하룻밤캠프, 등
12월	동네아빠산타 100명의 논골 동네 아이들에게 메리크리스마스
4월-12월	꿈길벽화만들기, 골목길생태학교, 성남마을공동체학교 하룻밤캠프, 등
12월	동네아빠산타 100명의 논골 동네 아이들에게 메리크리스마스
7월 11일	논골문화마을 주민공모사업 실행
7월 18일부터	논골소통달장 -상시 길거리 벼룩시장 개설 (격월 두번째 토요일 시행)
10월 24일	제3회 논골축제
11월 20일부터	논골대안공간 톨 마을갤러리 개관
11월 23일	논골도서관-논골마을 김장 하는 날
12월 23일	동네아빠산타 100명의 논골 동네 가족들에게 메리크리스마스
12월 27일	희망 꿈 이야기-논골마을송년회
2016년 3월1일	단대동어울림주말농장 75가족 분양
3월 30일	논골마을카페 개설(마을주민 12명이 만든 착한카페)
8월 17일	공유공간(문화 공동밥상) 아지트 56.1 개설
9월 24일	무대가 있는 문화공유공간 디딜 톨 개설
10월 22일	제4회 논골축제(7080 추억전)
2017년 6월	논골 글러벌 자원봉사 캠프(외국대학생봉사단) 2차 진행중

- ◎ 각 마을별로 운영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차이가 있겠으나, 논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역 거점의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 간 관계 형성 및 주거 환경 가꾸기, 아이들 교육, 다양하고 작은 문화공간 조성과 문화 체험 프로그램, 마을 축제와 장터, 자원봉사 등이 주요한 콘텐츠임.

58) 이수철·윤수진, 「도시에서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 탐색 : 성남문화재단과 논골문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2017 동계 학술프로그램 - 지역사회의 변화와 사회운동』, 지역사회학회, 2017. 윤수진 발표 파트 논골마을 이야기 중에서.

- ◎ ‘성남시 마을창작소’를 표방하는 공공예술창작소는 예술가의 창작 기반 마련 및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지역재생 공간으로 문화기획부에서 운영하며 창작소별 2~5팀이 입주해 주민참여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문화공간임. 2017년 신흥동과 태평동 총 2곳에 개관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여기서는 프로그램이 먼저 진행된 신흥동 사례를 살펴보겠음.

[표 14] 2018 신흥공공예술창작소 프로그램 성과

창작소	프로그램	상세내용
1기 입주보고 展	박양빈 Documentary, Diary, and Dream	- 작가가 유년시절 (1988년)때 경험하던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경제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88서울올림픽’의 경험과 그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현재 (2013년) 한국사회의 모습을 ‘유년의 나’와 ‘현재와 나’라는 2개의 시점으로 담아내고 있는 작품. - 부대행사 : 지역 거주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롭게 낙서 그리기 프로그램 ‘두들링(Doodling)’
	박혜수 1기 Nowhere Man (feat 이동영)	2013년부터 진행해온 프로젝트 ‘대화’ vol.2 <보통의 정의> 에서 1,000여명에게 실시한 설문 <보통검사>의 주관식 답변을 보아 쓴 희곡 <보통의 정의>에 기반 한 낭독 설치 작품 및 프로그램 그리고 낭독집을 디자인한 디자이너 이동영과 협업으로 제작한 판화를 선보이는 관객 참여형 작품 - 부대행사 : 심리테스트 ‘보통검사’를 성인 대상으로 진행하고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정의’를 예술가와 함께 이야기하는 리딩룸(Reading Room)
	박승예&임지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하늘이 무너질까봐’라는 전시 타이틀은 임지은 작가 글 중 한 문장으로, 실제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존재하지 않지만 불안한 일상의 시선을 기록했음. 박승예 작가는 이러한 일상의 불안으로 타인을 괴물로 간주해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아픈 기억을 그려냄. - 부대행사 : 지역 거주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술가와 함께하는 마블링 체험 + 나만의 괴물 그리기
	박지혜 1기 Affection	- 친밀한 관계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갈등 그리고 소유 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오는 불안이라는 다층적인 심리상태를 영상작업을 통해 보여줌. - 부대행사 :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톱모션 영상 만들기, 예술가의 영화관
	이은주(이생강) 늘어버린 신도시의 영원함	- 구도심에서 태어나 신도시로 이주한 작가가 국가 주도형 1기 신도시인 분당구의 탄생과 30년 성장을 지켜보며 신도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설치 영상. 인문학자, 물리학자, 예술이론가, 사진가, 영화감독, 시각연구 예술가와 함께 2년간 성남시를 돌아다니며 신도시 특징을 시각적으로 연구하고자 했음. - 부대행사 :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나의 마을 그리기
1차 공공예술 프로젝트	동네 서점 + 주차 알람판	- 신흥공공예술창작소 1층 열린공간을 ‘동네 서점’으로 구성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찾아와서 박혜수 작가의 서재도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예술 서적과 그림, 책, 비디오,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 특히 지역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미술 수업과 청소년 또는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 모임 등 진행 - 신흥동 수정남로 주변 주차난이 심각하여 작가의 디자인으로 주차+광고 알람판 제작 및 설치. 주차난에 대한 지역사회 문제점 공유
	광주대단지사건 : 모름의 모름	성남시 생성 최초의 역사 ‘광주 대단지 사건’을 현재 내·외부인의 시각을 통하여 재발견, 재조명하여 기록하고 아카이빙함으로써 묻혀진 역사를 성남시민 혹은 외부인들에게 상기시키고 하나의 도시의 생성과 변화 발전을 성찰함
	세 개의 시선 속의 부재하는 공간	- 환경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후 1997년 준공 후 10여년이 넘도록 한 번도 가동 되지 못하고 비어있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분명히 공간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심리적으로 부재하는 공간이 드러나는 영상작업 진행 - 다규적인 고발자의 시선이 아닌 다양한 시선들이 공존하는 사유적인 영상으로 제작
	청신다방 & 신흥다방	- 청신다방 : 성남시 청(소)년 대상 마을 아카이빙 및 청년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라져가는 마을을 자신이 기록하기 위해 문화 수다 진행 - 신흥다방 : 부녀회, 어머니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마을에서 살아가는 여성들과의 문화 수다 진행

- ◎ 입주보고 전시는 작가 개인전과 주민 참여 부대 행사가 한 묶음으로 진행되었는데 전시 작품 주제와 부대 행사 사이에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음. 개인 작품은 주로 전통적인 예술의 비평적 시각에서 제작된 반면 부대 행사는 몇몇 가지 예술 기법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공예술프로젝트도 작가 자신의 예술적 지향에 따른 개성적 형태가 아닌 일반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민 참여 문화프로그램과 유사하여 아쉬움이 남음.
- ◎ 공공예술창작소는 마을형 예술가 레지던시로서 작가의 비평적 시선에 밀착된 창작 방법론을 시민/주민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 어떨까 함. 1981년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의 사례⁵⁹⁾를 통해 공공미술에 대한 본질적 논의가 촉발된 것처럼, 지역의 맥락 안에서 작가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주민과 관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예술 방법론을 실험하고 연구하는 기회가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실험실이 무브먼트 성격이 강한 현재 생활문화 정책과 제3자적 비평의 시각이 압도적인 순수 예술가 사이의 가교를 마련해주리라 기대할 수 있음.

59) 1981년 뉴욕 연방 건물 앞 광장에 설치되었던 <기울어진 호>가 건물 사용자 1,000여 명의 탄원서 제출로 법원의 철거 명령을 받게 된 사건. 시민들은 광장을 거대하게 가로지르는 작품이 통행을 방해하고 흉물스럽다고 한 반면, 작가는 연방정부 권위 약화의 상징물로서 작품의 장소특정성을 내세웠음. 1985년 세금으로 제작된 17만 5000달러 짜리 예술작품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음. 이 사건으로 인해 공공미술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됨.

4-4. 휴먼웨어

(1)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참여 마을

-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의 주요한 휴먼웨어는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통해 육성해 온 마을활동가들과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에 가입한 동호회 활동 시민임.
-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13년 동안 총 13개의 마을 공동체가 사업에 참여했음. 중장기문화정책 1~2단계 5년 동안 참여주체는 총 8개로 다년에 걸쳐 연속적 활동을 하였으며, 2단계에 들어서서는 개별 마을의 사업보다 네트워크를 엮어 가는데 집중함. 2012년 의회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2013년 3단계부터 5개 마을 공동체가 사업에 참여함. 이 중 4개는 새롭게 진입한 마을임.

[표 15]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참여 지역 및 주체

성남문화재단 중장기문화정책	지원연도	선정 대상(지역)		추진주체
1단계 (2006~2008) 참여 지역	2006년	태평4동 → 한울사랑방으로 명명	원도심	성남문화재단 + 전문예술인(단체) + 성남활동가 (마을별 유형화 정책)
	2007년	은행동 은행주공아파트	원도심	
		상대원 공단	원도심	
	2008년	도촌동 주공아파트 부녀회 → 섬마을공동체로 명명	신도심권	
		수진 2동 마을공동체 → 숲골사랑방으로 명명	원도심	
2단계 (2009~2013) 참여지역	2009	은행주공아파트, 상대원 시장, 수진동 숲골사랑방, 태평동 한울사랑방	원도심	문화통합네트워크 사랑마루 (성남 활동가 및 단체 위탁)
		도촌동 섬마을공동체	신도심권	
	2010	태평동 한울사랑방, 은행주공아파트, 상대원 시장, 수진동 숲골사랑방	원도심	
		삼평동 봇들사랑방, 도촌동 섬마을공동체	신도심 및 신도심권	
	2011	은행주공아파트, 상대원 시장, 수진동 숲골사랑방, 태평동 한울사랑방	원도심	
		정자동 정든사랑방, 도촌동 섬마을공동체, 삼평동 봇들사랑방	신도심 및 신도심권	
	2012	의회예산 삭감		
3단계 (2014~2018)	2013~14	단대동 마을센터	원도심	단대동 논골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판교원마을 11단지	신도심	현대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회의
	2016~2018	태평3동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	원도심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
	2017, 2018	위례 세계동화 작은 도서관	신도심권	세계동화 작은 도서관
	2017, 2018	양지동 해찬 양짓말	원도심	해찬 양짓말
	2017, 2018	도촌동 섬마을공동체	신도심권	마을학교 섬마을 공동체

- ◎ 13개 마을 공동체 중 총 8개가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음. 도촌동, 위례의 경우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생활권은 신도심에 속한 신축 아파트 등으로 사실상 신도심권으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 3개는 판교, 정자에 위치한 신도심 공동체임.
- ◎ 도촌동 섬마을 공동체는 2006년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참여한 곳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공동체 리더 그룹이 교체되는 등 변화가 생겨났으며 이 외에도 마을 사업에 참여해 성장한 활동가들이 여러 이유로 이합집산하며 마을 활동의 지형이 변화해옴. 이와 같은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고 성장하는 경로에 대한 기록과 해석이 마을 활동의 역사로 남는다면 구성원들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임.

(2)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가입 클럽

-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가입 클럽 현황은 2018년 기준으로 228개이며 음악 클럽의 비중이 가장 큼.
- ◎ 이제까지 성남 생활문화 동호회를 장르 기반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구체적인 클럽 목록을 살펴보니 장르에 대한 관심보다는 생활권에서 해당 활동이 얼마나 접근이 쉬운가 하는 점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음. 즉, 작업 도구를 구하기 쉬운지, 작업 도구 마련에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충분한 강사 인프라가 있는지 등에 따라 활동이 좌우되는 것으로 보임.
- ◎ 동호회 이름에서 주로 다루는 예술 도구나 장르, 활동 방식을 대부분 추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클럽들을 분류하여 활동 지형을 알아보기로 함.
- ◎ 우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악 분야에서 동호회 이름에 악기가 기재된 경우를 살펴보면 기타, 만돌린, 우쿨렐레, 플루트 등 휴대가 용이하고 가격 부담이 덜한 악기가 많음. 반면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처럼 기법이 어렵거나 악기가 무거운 경우는 각각 1개의 클럽만 존재함. 국악의 경우 생활풍물의 영역에 속하는 난타가 대다수였고 서양음악에 비해 악기가 다양하지 않음.

[표 16] 사랑방문화클럽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요 악기

악기분류	클럽수	설명
기타	23	포크기타가 대다수이고 클래식 기타가 소수 있음
생활풍물	18	북이 대다수고 그 외 장구 등 타악기 위주
관악기 - 색소폰	13	-
관악기 - 일반	16	플룻, 오카리나가 많고 그 외 팬플룻 등. 해금, 타악과 병행하는 경우도 있음
우쿨렐레	6	-
만돌린	5	-
아코디언	3	-
가야금	3	-
그 외	4	밤벨(1), 피아노(1), 첼로(1), 바이올린(1)
총계	72	

- ◎ 악기를 다루는 활동 양상을 살펴보면 밴드, 앙상블과 같은 형태가 많고 규모가 꽤 큰 오케스트라도 상당수 존재함.

[표 17] 음악 분야 활동 및 장르 양상

활동분류	클럽수	설명
밴드	13	-
오케스트라	8	청소년 오케스트라(4), 시니어 오케스트라(1)
앙상블	4	앙상블은 훨씬 많지만 이름에서 주요 악기를 추측할 수 없는 경우
실내악	4	서양 실내악(3), 국악 실내악(1)
국악 관현악단	3	모두 청소년 관현악단
블루글래스	2	-
퓨전국악	2	-
정악	1	-
연희	1	각설이 타령
그 외	2	동호회 이름에서 활동 양상이나 장르를 추측할 수 없는 경우
총계	40	

- ◎ 노래 활동은 악기를 다루는 분야와 다르게 장르가 주요하게 노출되지 않음. 주로 함께 모여 노래하는 합창 활동, 한국적 민중 정서를 다루는 민요가 대다수를 차지함.

[표 18] 노래 활동 양상

활동분류	클럽수	설명
합창	13	청소년합창단(2), 시니어합창단(1), 장애인합창단(1), 남성합창(1), 여성합창(1)
국악 성악	11	민요가 대다수임
중창단	3	-
그 외	2	요들송(1), 아카펠라(1)
총계	29	

- ◎ 미술은 주로 회화와 공예에 집중되어 있고 사진, 캘리그래피는 대중적 장르임에도 소수임. 이러한 세부적 차이보다 눈길을 끄는 지점은 미술 활동이 음악에 비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임. 개개인이 작품 제작에 몰입하는 방식으로는 생활문화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은 것이 아닐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19] 미술 활동 양상

활동분류	클럽수	설명
공예	17	도예, 한지공예가 많고 그 외 섬유, 금속, 종이접기, 냅킨공예 등 다양
회화	16	수채화가 많고 그 외 민화 아크릴 등
캘리그래프	2	-
사진	2	-
그 외	3	크로키(1), 디자인(1), 플라워아트(1)
총계	40	

- 무용은 장르 측면에선 한국무용이 많고 그 외 다양한 대중 무용 동호회가 있음. 다문화 단체의 경우 교육 및 복지 측면에서 무용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임.

무용은 존재의 근간인 신체를 사용해 협력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생활문화 분야에서 합창, 연극 등 협력을 전제하는 장르만큼의 가능성과 확장성이 있음. 특히, 커뮤니티 댄스는 신체-공간의 관계, 내 몸-타인의 몸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 판단됨. 중장년, 노년층에서 생활문화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도 건강 이슈 측면에서 신체 활동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음.

[표 20] 무용 활동 양상

활동분류	클럽수	설명
서양 장르 춤	6	벨리 댄스(2), 댄스스포츠(1), 치어리딩(1), 홀라춤(1), 스페인무용(1)
한국무용	5	민속무용단, 예술단 등
그 외	4	다문화 관련 단체(2), 워십(1)
총계	15	

- 그 외 문학동호회가 5개가 있으며 예술치료, 놀이, 독서미술, 역사기행 등 다양한 분야 동호회가 소수 존재함. 전통적인 장르 구분을 뛰어넘는 문화/놀이+학습공동체는 생활문화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활동 난이도가 높아 접근이 어려운 지점이 있음. 문화예술교육 담당 부서와 협업 하에 전략적으로 육성할 경우 생활문화 활동의 질을 제고하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1] 기타 장르

활동분류	클럽수	설명
문학	5	-
그 외	9	예술치료(1), 교육공동체(1), 전래놀이(1), 독서미술(1), 목소리공연(1), 역사기행(1)
총계		

- 사랑방문화크럽네트워크 동호회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지역 내 해당 장르의 활동 인원이 많고 정보가 풍부하며 강사도 상대적으로 찾기 쉬운 활동이 지배적임. 또한, 이러한 지배적 활동들은 다양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소수 활동에 비해 더 빠른 속도와 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편향성은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한 동아리 활동에 예술적 개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임. 때문에 예술적 소양 제고, 활동 방식의 다양성 확보, 공동체의 건강한 지향점 설정과 구성원 간 민주적 관계 형성을 위해 문화재단이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 기획자·활동가·예술가를 양성하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료됨.

(3)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분야 및 참여단체수

- 성남문화재단은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외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인이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거나 커뮤니티 아트와의 접점을 마련해 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한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아래⁶⁰⁾와 같음.

[그림 15] 성남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표 3] 2014~2106년 성남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내용과 실적

구 분			내 용	지원건수 (신청건수)		
				'14	'15	'16
문화 예술 지원 사업	우리동네 예술프로 젝트지원 사업	일반 지원사업	문화예술단체가 동네와 마을에서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여 실행하는 예술프로젝트	10 (27)	9 (14)	9 (23)
		상생협력 지원사업	단체 간 상호 보완,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 이슈를 해결하고 지역과 단체가 상생 발전하는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3(5)	2(5)	1(6)
	문화기획인력 양성지원사업		문화예술단체 기획력 전문화 및 사업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에 의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원	1(2)	1(1)	1(1)
			커뮤니티로 도시문화를 만드는 청년 캠프사업	-	1(2)	1(1)
청년문화 프로젝트			청년 예술가 및 기획자, 지역의 청년문화 인력을 발굴, 양성을 통해 도시문화를 만드는 프로젝트 지원	-	4(9)	5(9)
공공예술프로젝트지원			일상공간을 예술적 상상으로 바꾸는 공공예술프로젝트	-	-	1(3)

[표 4] 2017년 성남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실적

구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문화역량성장프로젝트		청년문화 프로젝트	합계
		문화기획인력성장	청년캠프		
지원단체	33	2	2	9	46
선정단체	8	1	0	6	16

[표 5] 2017년 성남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내용과 실적

구분	사업용	지원 단체	선정 단체
창작활동지원	극예술, 무용, 클래식,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신규창작활동 지원	4	2
청년프로젝트	청년 예술단체의 극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활동 지원	5	4
문화예술단체 사업비지원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단체 사업비 지원	10	3

- ◎ 성남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은 타 재단에 비해 생활문화와 연계된 사업 지원의 규모가 크고 전통적인 장르 지원이 취약한데, 이는 재단 설립 초기부터 문화권에 기초한 시민친화 정책들을 재단의 비전으로 삼고 사업을 구조화했기 때문으로 보임.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전통적 협회나 명망 있는 예술단체보다는 청년 지역인력의 양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2017년 연구된 문화예술지원정책 추진방안에서 성남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의 강점은 활발한 시민주체 문화예술이라 보았으며 약점은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실태 파악 부재와 콘텐츠 부재를 꼽았음.⁶¹⁾ 이는 본 연구를 통해 지역자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었음.

60) 엄광현 외,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정책 추진방안 연구」, 성남문화재단, 2017. 5~6p.

61) 위의 보고서, 25p.

- ◎ 생활문화 분야의 양적 보급이 일정치 이상 달성되고 시민이 참여를 지속하는 이유가 활동의 질에 달린 만큼,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정책 프레임워크를 성남문화재단의 현황 및 비전에 근거해 체계화해야 할 시점이라 보임.

재단의 생활문화 자원을 다각적으로 파악해본 바 향후 생활문화의 질적 도약은 시민을 위한 예술 경험 디자인과 프로그램 고급화에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문화예술인이 이 공백 지대에서 정책과 시민 사이를 어떻게 완충하고 조율할 것인가가 중요한 지점이라 판단됨. 이는 성남문화재단이 순수예술-대중예술의 분과적 접근을 뛰어넘는 지역문화예술인을 발굴하거나 양성해낼 수 있는가, 발굴/양성된 예술인들이 체계적인 조직 활동력을 기를 수 있는가와 같은 정책적 질문으로 치환할 수 있음.

3부.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현장 인터뷰

1. 거점 모델 : 단대동 논골만들기 추진위 성장 과정

1-1. 개요

(1) 사례 선정 배경

- ◎ 생활예술 정책으로서 지난 ‘생활문화공동체사업’지원에 대해서 진단하고, 보다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정책으로서 생활공간 접근 관점의 생활공동체사업 사례를 분석하기로 함.
- ◎ 차기 성남 시민의 생활반경 내 생활문화예술공동체 지원 사업을 염두하고 사업모델화 기초 사례가 될 수 있는 마을 공동체를 선정하기로 함.
- ◎ 공동체의 생애주기를 파악하고 선행 사례의 시행착오를 통해 거점 공유공간 사업 모델의 안전성을 높이려고 함.
- ◎ 성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남 주민의 거점 공간으로 확산할 수 있는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남시 내의 자체 사례를 우선으로 발굴하여 모델링 하고자 함.

■ 분석 사례: 단대동 논골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논골추진위)

- 2009년 단대우리지역아동센터 개소와 함께 논골추진위 구성(40명)을 시작으로 마을 커뮤니티가 탄생함.
- 만 10년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어 시행착오와 기관 간 협력 관계 등 운영 체계를 분석하기에 좋은 사례가 됨.
- 더불어 지역아동센터라는 거점 공간을 매개로 커뮤니티가 결성된 특징으로 “생활밀착”, “생활 공간 접근”관점에서 적합한 생활공동체 선행 사례로 추천됨.
- 또한 논골추진위는 주민주도의 내생적 커뮤니티로, 이 사례의 발전양식을 분석함으로써 성남 지역 내 확산 모델을 제안하기에 적절함.

(2) 사례 분석 자료

- ◎ 문헌 자료: 단대동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발간 자료, 단대동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분석한 2차 자료, 초점 집단 심층 인터뷰 참여 기관 자료.
- ◎ 초점 집단 심층 인터뷰 자료: 마을 활동이 성숙기로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마을 안의 자원이 어떻게 엮이고 순환되는지 추적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됨. 그 방법론으로 하나의 마을이 성장하는 과정을 인터뷰하기 위해 연계 기관들의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함.

[표 22] 인터뷰 참여자 개요

인터뷰 참여 기관	인터뷰 참여자	협력 활동	협력기간	비고
단대동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활동가	윤수진	논골작은도서관 관장	2009~	- 어린이집 교사, (사)환경살리기실천연합 사무국장의 활동 경험이 있음. - 단대동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2009년 「단대우리지역아동센터」 설립과 단대동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킴.
	김경옥	논골작은도서관 팀장	2009~	2009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설립과 단대동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활동에 동참한 마을활동가임.
한울타리 공동체	김미경	논골마을카페 위탁 운영	2017~	- 성남혜은학교 학부모회장과운영위원장으로 이웃 성보경영고등학교 학부모를 통해 논골추진위를 접하게 됨. - 달장 활동에 참여하다가, 11명 주민주주에 의해 2016년 개업한 마을카페를 민간 위탁 받게 됨. - 마을 카페에서는 장애인 바리스타가 활동 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운영하는 바리스타 자격증과정이 있음.
	엄윤숙		2017~	
문원중학교	서정화	청소년프로그램 협력운영- 청소년마을활동가, 청소년바리스타, 청소년 공방, 마을 TV, 기타동아리 등 마을-학교 연계 활동	2016~	2016년 문원중학교 사회복지상담교사로 오게됨. - 전근 당시 교장의 권유로 논골 마을 활동을 접하게 됨. - 논골추진위의 단대우리지역아동센터를 핵심 파트너로 마을-학교 연계 활동 담당 교사로 활동 하고 있음.
단대동 주민자치위원회	오영실	마을축제 참여, 단대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단대동 마을만들기 추진위원 활동	2016~윤수진 논골작은도서관 장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시작.	2013년 9월까지 인천에 살았으며, 성남 이주 전까지 주거지 주민자치위원회 실무자로 근무했음. 2014년 1월부터 단대동 주민자치위원회 실무자로 근무 시작. - 윤수진 관장이 2019년부터 단대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협력관계의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1-2. 사례 분석

(1) 커뮤니티의 발생

◎ 논골은 1970년 초 정부의 서울특별시의 무허가 빈민촌 정리 계획에 따라 10만이 강제로 이주되어 천막촌으로 형성되었음. 지금까지도 이 지역의 경제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생계로 인한 맞벌이가 많음. 논골추진위 형성은 방과 후 돌봄자원이 부족해 마을을 배회하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활동을 고민하며, 이 마을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지역 시민단체활동 경험을 가진 윤수진 현 논골작은도서관 관장의 지역아동센터 설치가 계기가 되었음. 단대동을 대표로 하는 논골은 10평 내외의 작은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공통의 지역사안을 논의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마을 주민들이 아이들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규모를 갖추게 됨. 곧 두목회라는 핵심인적자원 그룹이 조직됨.

- 현재 도서관 관장님으로 계시는 윤수진 관장님께서 마을 바깥의 외부에서 (시민단체활동을) 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마을을 돌아보시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은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마을로 들어오셨는데, 외부에서 생각하고 있던 마을이랑 기억하고 있던 마을이 들어왔을 때 너무 달랐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외부에서 보면 빈촌,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마을을 위해서 '뭔갈 해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하더라구요. 첫 번째로 한 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하니 방치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2009년도에 단대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개설이 되었어요 (중략) 여러 명이 모여서 서로 만나서 많은 인원이 모여 이야기할 공간이 없었거든요. 지역 아동센터가 개설되고 나서 방과 후에 오는 친구들이잖아요. 오전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있다가 아침에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수다방처럼 떨기 시작하고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 애들도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엄마도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렇만한 일들이 없을까하면서 수다 떨면서 나온 말들이 어느 날부터 하나씩 실천하게 된 그런 구조인거 같아요. 어느 날부터는 엄마들이 계속 지역 아동센터에 앉아서 그런 회의를 계속하고 축제도 한번 해보자, 뭐도 한번 해보자 그러다보니 아빠도 소외된 거죠. 퇴근해서 오면 애들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혼자 있다가 이 아줌마들이 나가서 뭐하는거야 궁금해서 나오셨나봐요, (생략)마을 국장님으로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도 지역아동센터에 오셨다가 비슷한 분 만나서 술 한 잔 하자고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아빠들 모임이 지금은 더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논골 아빠들 모임이 결성되어 있고, 엄마들도 저렇게 하는데 아빠들도 이런거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생겨난 거 같구요. <논골작은도서관 김경옥>

- (지역아동센터를)2년 정도를 지원 없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겠다. 그렇게 2년 동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과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후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걸 꾸리게 됐던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지역화를 할려고 우릴 공고히 하고 한 2-3년 지나서 지역화 하는 데 좀 목적을 뒀었는데, 굉장히 지역 주민자치의원회나 새마을부녀회나 관련단체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질의와 '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욕도 하고, 그게 굉장히 힘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활동 하나하나 해나가다보니까 이런 게 바로 마을활동 이겠구나, 짐작은 하시는데 선뜻 함께 하시기엔 부담스러운 존재들 인거죠. 저희가. 그래서 제 1회 축제를 하게 됐었는데, 축제가 저희는 발화점이였다고 생각을 해요. 마을 활동 하다가 축제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200만원 축제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축제를 하고, 1000명 이상이 오셨어요. 그 처음 축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재밌구나' 이게 정말 재미있는 거구나' 하면서 생각이 바뀐 계기가 된거 같아요. <논골작은도서관 윤수진>

- 논골추진위의 주민참여 계기를 보면 2009년 당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음. 보조금 신청기관 중 최소의 진입기준을 통과한 곳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후로 24개월 동안 자부담 및 지역 내 후원 등을 통해 자체운영 능력을 평가를 거쳐야 했음. 이런 정보를 접한 지역아동센터에 모인 주민들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마련 이슈를 중심으로 아젠다를 지역화 하는 활동을 펼치게 됨. 이런 배경 아래 단대우리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멤버십을 형성하며 논골추진위의 기초를 마련하게 됨.

(2) 의사결정 구조 개요와 성장과정

- 현재 논골추진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의 체계는 두목회와 논골마을공동체마을회의가 있음. 회의 체계의 운영은 아래와 같음.

[그림 16] 논골 마을회의 조직도 (윤수진, 논골마을 내부자료)



- 두목회는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에 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명칭이 정해졌으며, 2009년 지역아동센터 개설부터 지속되고 있음. 두목회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없으며, 누구나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도록 열린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지역사회의 현안을 공유하고, 마을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두목회를 조성할 때는 아무나 괜찮다 들어오고 싶으면 다 들어와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게 재개발하거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하는걸 보고 그게 아니잖아요.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때부터 하셨던 분들이 20명 정도 되세요. 그때 아빠들 모임도 결성되면서 아빠들도 들어오시고 현재도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들어오고 나가고는 저희가 강제성을 두지 않았어요. (회원가입

절차가 따로 있나요?) 그런 거를 두지 않았어요. 10년 지나고 나니까 제일 함께 하기 힘든 분들이 유관단체 분들이시더라구요. 주민자치위원회분들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이시더라고 요. 그런데 행사를 하다보면 그분들 도움이 꼭 필요한 때가 있어요. 저희가 형식적으로 두목 회한다고 할 때는 그분들 자리를 꼭 비워놔요. 한 3년 비어 있더니 어느 날부터는 와서 앉 으시더라고요. 같이 회의를 하기도 하고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분들하고 사이도 좋아요. 이 번에 관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되셨어요.<논골작은도서관 김경옥>

- ◎ 마을회의는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 마다 18개 논골 마을 이해관계 기관 100여명이 모여 마을 청소와 독거노인 공동식사활동을 월례행사로 모이고 있음. 마을회의는 두목회보다 외연이 확장된 형태로 보다 폭넓은 마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안별고 결합되어 있는 협력기관과의 유대를 만드는 장치가 되고 있음.
- ◎ 두목회와 마을회의에서 대두된 마을 현안은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해결에 대한 방향 설정과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구임. 두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 사안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이 해결되기 위한 절차와 자원을 마련하고 정기 모임을 통해서 공동결정 된 목표를 달성하게 됨.

[그림 17] 논골 마을 현안 처리 과정 (윤수진, 논골마을 내부자료)

준비추진단계 활동 내용	실행단계 활동 내용	사후관리단계 활동 내용
-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결성 - 회의 안건 선정	- 회의주제 공유 - 회의안건 상정 - 회의 준비 - 정기모임 결정	- 토론 - 회의결과 도출 - 회의결과 공유
추진위원회결성	▶ 공론장 형성	▶ 집단 리더십 공유

- ◎ 논골추진위의 의사결정기구 성장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2009년 단대동지역아동센터 개소와 함께 현 논골작은도서관장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결성된 자발적 주민모임을 모태로 두목회라는 정례회의가 만들어짐. 방과 후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의 문제를 지역화 하며 지역아동센터 설립의 문제를 마을 전체의 현안으로 수용하도록 활동하고 지역사회 공론장 형성으로 이어짐. 이로써 2010년 논골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가 결성됨. 2012년부터는 18개 논골 마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골마을공동체마을회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림 18] 논골추진위 의사결정기구 성장과정

(윤수진, 논골마을 내부자료)



(3) 주민 의견개진 과정 및 자치 역량

◎ 다양한 주민의견 개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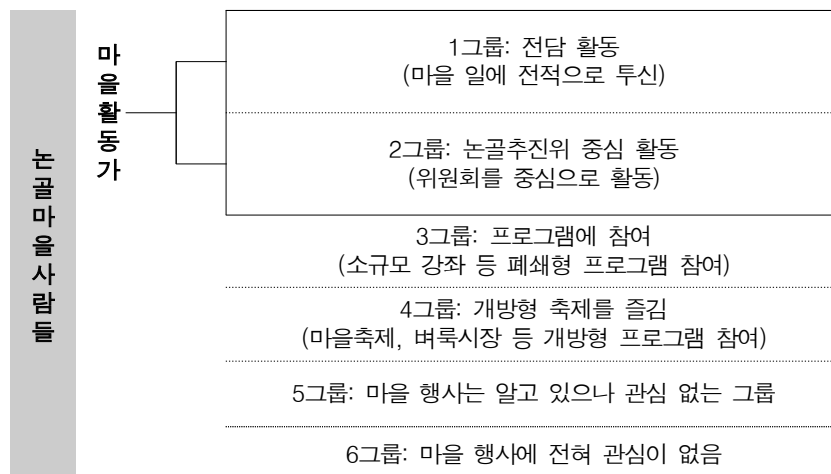
- 논골추진위는 지역 내생적 자치 조직으로 지역민의 욕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설계와 사업추진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두목회나 마을회의 외에도 희망도서관 활동프로그램 제안과 같은 일상적인 제안은 온라인의 SNS나 논골도서관 데스크에서 받기도하고, “찾아가는 마을학교”의 경우는 주민 욕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음. 또한 커뮤니티 외부에 있는 주민들과 소통해야 할 때는 마을 활동가가 직접 찾아서 1:1 대면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음.

- 밴드에도 제안하구요, SNS, 저희 (논골작은도서관)데스크에 와서 이야기하고, 가고 수많은 방법으로 제안하세요. 저희 책 구입 하는 것도 다 써놓고 가세요. 뭘 책 구입해달라고. 문이 잠겨 있으면 책 반납함 거기다 써놓고 가세요. 책도 그렇게 구입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싶은 거 본인들이 다 제안하세요. 그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강사 섭외가 안 되는 건 못하는 거니까, 난타도 2년 걸려 하는 거잖아요. <논골작은도서관 윤수진>
- 주민들하고 뭔가를 해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설명회를 가져요. 설명회라고 해서 거창하게 ‘주민들 다 이리로 오세요’ 이런 설명회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저희가 찾아가요. (중략)한 30년 다되어가는 집들이라 너무 어두운 색깔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벽화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 벽화를 그릴 때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쉽게 동의를 하지 않으셨어요. ‘다르네 벽화 보니까 몇 년 지나면 지저분해 져가지고 그런데 그걸 왜 그릴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들도 많으셨거든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꼭 동의를 해주셔야 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으셨어요. 원주민들로 살고 계시던 분들이 많으셔서 경로당에 찾아가고 수박 들고 찾아가고 ‘어머니 우리 이래이래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동의 좀 해주세요. 지저분해질 때 되면 또 그럴게요.’이렇게 동의를 다 받았어요. 제가 한 건물에 10집에 산다고 했잖아요. 집주인이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새로 살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한 건물에 쪼끔 그리는데 최대 20명까지 동의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릴수가 없었거든요. 다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림을 그려요. <논골작은도서관 김경옥>

◎ 정보공유 및 멤버십 관리

-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는 동안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이 구성원들의 정보격차와 주민 참여의 양극화 문제를 들 수 있음. 커뮤니티는 활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을 중심으로 기획자 및 적극적 활동 참여 그룹과 소극적 활동 및 관망 그룹으로 층위가 자연스럽게 나뉘게 됨.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커뮤니티가 활동 빈도 및 결합 밀도에 따라 층위가 나뉘지게 되면 정보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새롭게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참여자에게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임. 커뮤니티가 생동감을 가지고 유지되려면 참여자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활동성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활동참여와 이탈이 자유로워야 함. 동시에 정보 공개와 접근성이 높을 수 있도록 구조를 구성해야 함. 이에 대해 논골추진위의 경우는 주민참여의 층위를 6단계로 구분하여 주민참여의 이해를 돕고 있음.

[표 23] 사업 참여도에 따른 마을사람별 그룹
(김성균, 「더불어 피는 마을꽃 논골」, 이야기너머, 2018.)



- 1-6그룹까지 나뉘었는데, 저희가 마을 활동을 한다 안한다를 따질 때 대부분 1-2그룹을 두고 한다 안한다를 따져요. 근데 저는 마을 활동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마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 주민을 마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을에 관심이 있든 없든 마을 사람 전체를 보고, 1그룹이 저희 같이 전담으로 마을 활동을 하는 사람 2그룹이 주민추진 위원회나 저희 두목회 같이 활동하고 있는 적극적 활동가, 3그룹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마을 사람이에요. 폐쇄성으로 할 수 있는 강좌들, 마을 대학 같이 진중한 강좌들 이런 강좌들에 3그룹이 참여를 하는 사람이고, 4그룹이 축제나 벼룩시장, 하룻밤 캠프 이런 개방형 프로그램에 축제 같은 경우 7-8천 명씩 참여하니까 참여하는 사람들, 5그룹이 마을 활동을 뭘 하는 줄하는데, 그냥 알고만 있는 그룹이에요, 이 5그룹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룹이에요. (시샘, 소문)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고, 알고는 있는 거예요. ‘축제해. 개네 달장 하드라. 개네 뭘해’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우리 마을 너무 좋아’ 이럴 수도 있고, ‘진짜 재수 없어’ 이럴 수도 있고. 사랑과 전쟁이 5그룹인 거예요. 6그룹은 마을 활동에 참관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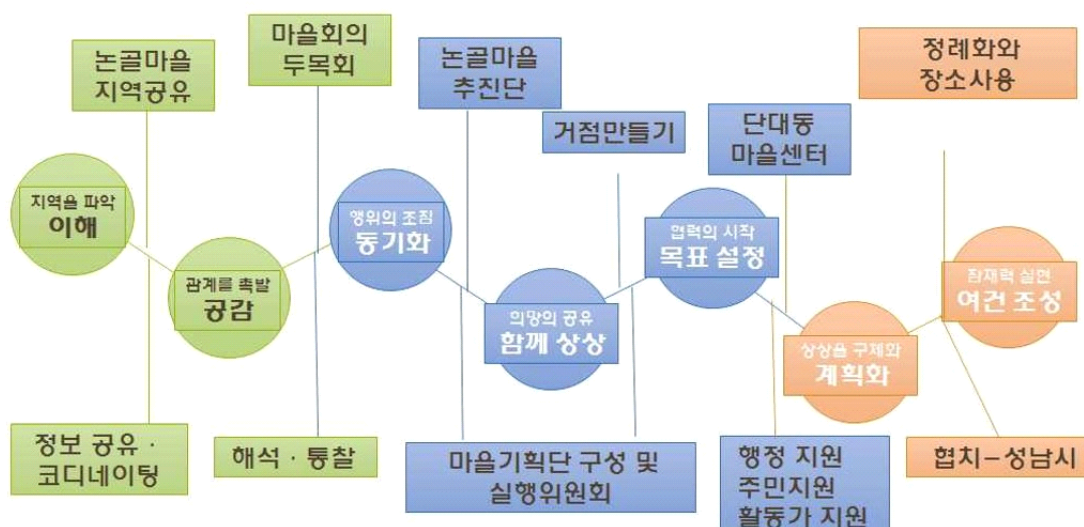
지 않고, 아예 관심이 없는 거야. 잠만 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6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마을 활동이 순서는 나열되어 있지만 단계별로 되지 않아요. 6그룹 이었던 사람이 2그룹이 될 수도 있어요, 6그룹이 바로 1그룹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5그룹 같이 비토의 세력이 갑자기 1그룹이 되가지고 ‘나 활동할게’ 이런 사람도 있고,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원만 요렇게 피라미드구요, 언제든지 변형 가능한 거예요. 1그룹이 6그룹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난 재수 없어서 못하겠어.’ 6그룹으로 관심 없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구분을 좀 두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논골작은도서관 윤수진>

- (그룹별로) 어떻게 마을활동에 접근하게 하는 거 이런 방식이 다 달라요. (중략) 6그룹에게 까지 저희 마을 소식이 전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그룹이 되게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단계의 마을학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견고한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단계별 실험과 시스템도 있구요. <논골작은도서관 윤수진>

- 도서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신청도 하시고 하자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신청 받아서 강사 섭외도 직접하고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먼저 첫 번째로 논골 마을 사람들 중에서 찾고 아니면 저희에게 교육된 사람들이 있다가 저희 마을 중심으로 찾다가 안 되면 외부에서 찾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분들 통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뿌리내리게 하고 뿌리내린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저희 마을 사람들에게 같이 가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저희 방식이에요. 또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마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토대 안에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는 거고 지역화하는 방법이죠. 저희가 켈 처음 마을 사람들과 같이 했던 부분(이하 생략) <논골작은도서관 윤수진>

- 논골추진위의 의사결정과정 체계를 종합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마을의 의제가 주민의 공동문제로 공감될 수 있도록 하면서 해결의 노력이 마을의 자산으로 쌓일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고, 해결의 주체가 주민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음. 논골추진위는 커뮤니티 내적으로 자원이 집적되어 단단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마을의 역량을 “지역화”라는 공동목표를 세우고 선순환적으로 배가시키며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해석 됨.

[그림 19] 논골마을공동체마을회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윤수진, 논골마을 내부자료)



◎ 주민자치 역량 강화

- 주민자치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주민의 평균화된 마을 이해와 고도의 자율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의 주도성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환경이 갖춰져야 함. 논골추진위의 경우 골목길 마을학교, 찾아가는 마을학교, 주민역량강화 마을학교, 성남 마을공동체 마을학교가 운영을 통해 마을에 대한 이해와 활동 역량을 마을 구성원의 보편적 역량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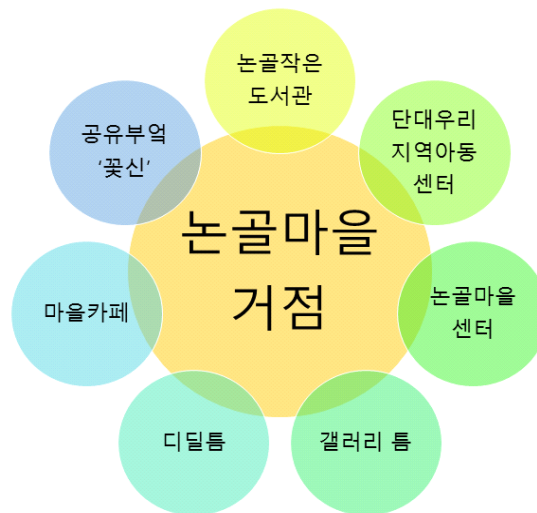
[표 24] 논골 주민자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주요 내용																																
골목길 마을학교	‘마을’에 대한 이해를 내용으로 2011년부터 매월 두 번째 토요일에 진행.																																
	<table><tr><th>차수</th><th>주제</th><th>장소</th><th>내용</th></tr><tr><td>1차</td><td>골목길 가족학교 오리엔테이션</td><td>논골작은도서관</td><td>단대동 역사, 가족 소개, 단대동 마을만들기 방향</td></tr><tr><td>2차</td><td>우리 동네 하룻밤 캠프, 씨네 영화제와 함께</td><td>남한산성 성문밖 학교</td><td>주민소통 계기 마련</td></tr><tr><td>3차</td><td>우리 동네 한바퀴-바람아 불어라</td><td>논골 골목길</td><td>단대동 골목길 특성 알기 미션 및 콘테스트 진행 마을, 이웃, 가족 알아가기</td></tr><tr><td>4차</td><td>지역 주민과의 소통-마을을 알아본다</td><td>단대동 주민센터</td><td>마을 심층이해</td></tr><tr><td>5차</td><td>우리 마을 생생 꿈길 벽화그리기 야생화 지도 만들기 및 꿈색 만들기</td><td>단대 우리지역아동센터, 논골작은도서관, 논골무인도서관</td><td>지역아동센터, 논골작은 도서관 벽화 그리기</td></tr><tr><td>6차</td><td>옆 마을 탐방</td><td>타 마을</td><td>우리마을 진단 진행 과정 벤치마킹</td></tr><tr><td>7차</td><td>가족이 함께하는 마을 학교 수료식</td><td>단대동 주민센터</td><td>프로그램 평가 및 수료</td></tr></table>	차수	주제	장소	내용	1차	골목길 가족학교 오리엔테이션	논골작은도서관	단대동 역사, 가족 소개, 단대동 마을만들기 방향	2차	우리 동네 하룻밤 캠프, 씨네 영화제와 함께	남한산성 성문밖 학교	주민소통 계기 마련	3차	우리 동네 한바퀴-바람아 불어라	논골 골목길	단대동 골목길 특성 알기 미션 및 콘테스트 진행 마을, 이웃, 가족 알아가기	4차	지역 주민과의 소통-마을을 알아본다	단대동 주민센터	마을 심층이해	5차	우리 마을 생생 꿈길 벽화그리기 야생화 지도 만들기 및 꿈색 만들기	단대 우리지역아동센터, 논골작은도서관, 논골무인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논골작은 도서관 벽화 그리기	6차	옆 마을 탐방	타 마을	우리마을 진단 진행 과정 벤치마킹	7차	가족이 함께하는 마을 학교 수료식	단대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평가 및 수료
	차수	주제	장소	내용																													
	1차	골목길 가족학교 오리엔테이션	논골작은도서관	단대동 역사, 가족 소개, 단대동 마을만들기 방향																													
	2차	우리 동네 하룻밤 캠프, 씨네 영화제와 함께	남한산성 성문밖 학교	주민소통 계기 마련																													
	3차	우리 동네 한바퀴-바람아 불어라	논골 골목길	단대동 골목길 특성 알기 미션 및 콘테스트 진행 마을, 이웃, 가족 알아가기																													
	4차	지역 주민과의 소통-마을을 알아본다	단대동 주민센터	마을 심층이해																													
	5차	우리 마을 생생 꿈길 벽화그리기 야생화 지도 만들기 및 꿈색 만들기	단대 우리지역아동센터, 논골작은도서관, 논골무인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논골작은 도서관 벽화 그리기																													
	6차	옆 마을 탐방	타 마을	우리마을 진단 진행 과정 벤치마킹																													
7차	가족이 함께하는 마을 학교 수료식	단대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평가 및 수료																														
찾아가는 마을학교	주민이 원하는 교육 내용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조사하여 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수료자는 마을 동아리 강사 및 마을 강사로 활동. 현재 약 20여 명 강사 배출.																																
	<table><tr><th>마을학교 프로그램 명</th><th>프로그램 이수 후 강사활동 내용</th></tr><tr><td>역사 강사 양성 과정</td><td>어린이 역사기행단, 문화교실 강사, 학교 방과후 강사</td></tr><tr><td>친환경비누 강사 양성 과정</td><td>주민센터 비누 강사</td></tr><tr><td>커피 바리스타 양성 과정</td><td>논골 마을카페 커피 바리스타 및 강사</td></tr><tr><td>생태 안내자 양성 과정</td><td>생태 가족 기행 및 마을 강사</td></tr><tr><td>독서심리 상담사 1급 과정</td><td>독서 프로그램 강사, 학교 방과후 강사</td></tr><tr><td>동네 큐레이터 양성 과정</td><td>마을갤러리 토크 큐레이터</td></tr><tr><td>논골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강사 활동</td><td>학교 방과후 강사</td></tr><tr><td>마을학교 마을활동가 양성과정</td><td>마을학교 강사</td></tr></table>	마을학교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이수 후 강사활동 내용	역사 강사 양성 과정	어린이 역사기행단, 문화교실 강사, 학교 방과후 강사	친환경비누 강사 양성 과정	주민센터 비누 강사	커피 바리스타 양성 과정	논골 마을카페 커피 바리스타 및 강사	생태 안내자 양성 과정	생태 가족 기행 및 마을 강사	독서심리 상담사 1급 과정	독서 프로그램 강사, 학교 방과후 강사	동네 큐레이터 양성 과정	마을갤러리 토크 큐레이터	논골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강사 활동	학교 방과후 강사	마을학교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마을학교 강사														
	마을학교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이수 후 강사활동 내용																															
	역사 강사 양성 과정	어린이 역사기행단, 문화교실 강사, 학교 방과후 강사																															
	친환경비누 강사 양성 과정	주민센터 비누 강사																															
	커피 바리스타 양성 과정	논골 마을카페 커피 바리스타 및 강사																															
	생태 안내자 양성 과정	생태 가족 기행 및 마을 강사																															
	독서심리 상담사 1급 과정	독서 프로그램 강사, 학교 방과후 강사																															
	동네 큐레이터 양성 과정	마을갤러리 토크 큐레이터																															
	논골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강사 활동	학교 방과후 강사																															
마을학교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마을학교 강사																																
주민역량강화 마을학교	집중 교육 형태로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토의가 주요 활동이다. 참여주민은 지역사회의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한다. 2014년부터 매년 7-8월에 8강이 진행.																																
성남 마을공동체 마을학교	마을대학을 2차 이상 수료했거나 성남마을단체 리더로 활동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리더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월부터 10월까지 8강에 걸쳐 진행.																																

(4) 커뮤니티 거점 공간

- 논골추진위는 2018년 현재 7개의 거점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있음. 각 장소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그림 20] 논골추진위 거점공간



단대우리지역아동센터	2009년 개소. 방과후 아동 보호 및 학습, 센터 활동 학부모 수다 모임으로 시작된 마을 공론장 기능을 함.
논골작은도서관	마을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천명의 주민 서명 활동을 통해 2014년 3월 18일 개관. 전체 연령의 각종 교육들과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활용.
논골마을센터	새로운 마을주민 공론장. 주민 공동식사, 논골 마을대학, 포럼 등 다른 마을공유공간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논골마을카페	2016년 마을자산 적립을 위해 12명의 주민 주주가 출현하여 카페를 개업함. 청소년들의 바리스타 동아리 활동 및 자격증 과정 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 성인중증장애인 자립 활동을 하는 한울타리 공동체에 민간위탁을 함. 수익이 300만원을 넘을 때마다 5만원씩 기부를 받기로 함.
마을갤러리 룸	성남문화재단의 문화마을 사업비로 논골 주민 공모사업으로 시도 됨. 다섯 개의 제안 중 하나로 주민의 지하 창고를 개조하여 마을 갤러리로 활용하여 마을 활동 전시를 시작 함.
디딜 룸	마을에서 책 디자인과 인쇄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업체에서 실무공간 5평을 제외한 40평 잔여 공간을 마을 극장으로 제공함. 연극과 같이 무대가 필요한 활동에 대해 논골작은도서관 공간이 협소하여 경기도 따복 공모사업에서 2천만을 지원 받아 극장으로 리모델링함. 사업체에서 4천만 원 본인 자부담해서 녹음실을 만들어 주민과 공유함.
공유부엌 꽃신	논골 마을 활동 청년그룹과 성남시 내 ‘일하는 학교’라는 청년그룹이 공동으로 마을 독거노인 밥상을 제공하는 공동마을 부엌으로 5호점까지 만들어진 상황임.

- 논골추진위의 거점 공간들은 주민들의 만남의 장으로, 활동 공유의 공간으로 예술활동의 공간으로 순환 중이며, 주민과 기업과 관의 가용자원을 조화롭게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5) 재정 운영

- ◎ 논골추진위의 재정운영은 관의 보조금과 참가비 그리고 유무형의 재화를 출자하여 활용 중임. 현재 논골추진위의 거점 공간 중 단대우리지역아동센터, 논골작은도서관과 같이 상근실무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의 사업 사무 위탁 형태로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인적자원과 구매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의 경우는 일부 정부보조금과 참가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리고 갤러리 토크와 작은공연장 디딤 토크와 같이 공간자원만 있으면 되는 경우에는 공간 소유주의 무상공간기부와 활동가들의 자원봉사로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는 문화 마을은 2017년도로 끝이 났거든요. 저희가 올해 1년 2018년부터 시작하면서 문화 마을에서 받았던 강사비로 지급했던 것들이 다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의문을 저희도 많이 가졌었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어차피 예산이 사업으로 받은 예산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을 생각하면서, 보통 다른 도서관에는 무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 프로그램은 없어요. 적게 받아도 한달에 만원은 받았어요.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돈으로 책정을 해서 한달에 만원을 받았고요, 강사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 봉사를 조금 하시고 한 시간에 3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었어요. 수강생을 12명까지만 모으면 강사비가 나오는 구조가 될 수 있게. 프로그램 참가비 받아서 강사비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 그렇게 되면 올해부터는 비용이 조금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이걸 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 프로그램들은 몇 개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하긴 했더니 처음에는 관장님께 “사업 따가지고 와서 우리를 계속 받게 해줘야지, 니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 1분기 프로그램 공고를 냈을 때 얼마나 모일까? 폐강 되는 게 몇 개나 있을까 그런 걱정했는데 폐강된 게 없어요. 그대로 다 내시고 진행을 하시고(생략) <논골작은도서관 김경옥>

- 공간들이 만들어지는데 외부 자원이 들어간 게 2라면 8은 저희 자원으로 만들잖아요. 마을 카페 같은 경우엔 주주들이 있으니까 주주들이 돈을 내고 진행을 하고 있구요. 민간이 민간에 위탁했잖아요. (생략) 300만원 넘을 때마다 저희 마을에 기부해주고, 저희 주주들은 그걸로 족하다 저희가 장애인에게 내준 걸로 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구요. 관장님 지하 거기 토크를 주셨는데 갤러리는 본인 집이세요. 그래서 전시회 해도 다 공짜예요. 다 공짜예요. 저희가 가서 다 치우고 하니까 전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같이 논의 하고 현수막 정도는 본인들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전시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의 전시로 만들어지는 공간이고요. 마을 센터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하거나 또는 강의를 있는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강사비 1/n해서 쓰거나 그거는 저희가 1/n을 해서 활동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논골작은도서관 윤수진>

- ◎ 관의 운영비 보조는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지원 규모가 달라지거나 없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 그러한 변동성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논골추진위는 참가자의 자기 부담을 요구하며 사용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면서 재정자립에 대한 대비를 한 것으로 보여짐. 실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 마을 사업 지원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프로그램들이 2018년 지원이 끊긴 이후에도 자생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함.

(6) 논골작은도서관 활용 동아리 활동 시간 특성

- ◎ 생활문화예술 활동이 거점 중심으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연구 주제 중 하나였음. 이 중에서도 공간의 시간활용도 한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음. 논골추진위의 경우 논골작은도서관에서 주민 참여 동아리 활동이 일부 진행되고 있음. 시간활용 특징을 보면 화요일부터 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8시 까지는 고유 업무인 도서대출과 독서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강의 강좌 프로그램이 운영됨. 8시 이후로는 운동성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진행함.

- 아까 슬리퍼를 신고 집에서 5분 거리로 갈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돈을 내고 멀리 가느니 그냥 여기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저희 도서관이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책 업무, 유아수업 이런 것들이 진행 되고요, 저녁 8시는 도서관 폐관 시간이에요. 그때부터는 악기를 다루는 성인 수업이 진행이 돼요. 저녁 10시까지. 우쿨렐레, 기타 아까 계셨던 1층 같은 경우는 옆에 있던 책장에 바퀴가 달려 있었는데, 그걸 뒤로 다 밀어요 통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건강댄스를 해요. 그리고 난타를 해요. 어제 월요일부터 난타를 시작했거든요. 공간을 재미있게 꾸며가고 공간을 주민에게 내어줄 수 있는 만큼 다 내어주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휴관일 날 해요. 여기 소리 나는 것들은.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프로그램 있어요. 8시에 끝나잖아요. 8시부터 10시까지 123층이 다 문화교실이에요. (소리 나는 거) 그리고 10-12시까지 동아리들이 와서 연습해요. 저녁 10-12시까지. <논골작은도서관 김경옥>

- ◎ 특이한 점은 공유공간으로서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바퀴가 달린 책상과 책장 등 과 같이 이동이 가능한 가구를 사용하여 공간 사용 목적에 따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7) 지역협력 관계망

- ◎ 논골추진위의 협력 관계망은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진행되는 마을회의에 참석하는 18개 기관을 기본으로 성남시 관할 구역 내 7개의 각 마을공동체 간 협력까지 마을축제, 달장 등 축제에 60개 단체가 주축로 참석할 정도로 사업의 활동 범주에 넓고 유동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올해는 버스킹 축제를 했어요. 각 단체가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기타 동아리는 기타동아리데로, 우쿨렐레 동아리, 수어, 영어반 각 단체마다 30개 단체가 전부 버스킹을 하고, 무대에서도 공연 밑에서도 축제에서 공연, 체험이 되는 데는 체험 아니면 공연, 그걸 다하신 거예요. 축제가 전체가 잔치죠.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잔치인 거예요. 먹거리 부스도 마찬가지로.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같이 준비하고 같이 아이디어 내고 프로젝트로 만들어가는게 1년에 가장 큰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요. 네트워크를 통해 회의를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을 하고 누구 하나가 준비 하는게 아니라. (책을 보여주며) 네트워크 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써있는 단체가 있고 아닌 단체도 있는데, 거의 60개 단체가 같이 하니까. 동아리들도 준비하고, 학교 다섯 개 학교가 다 나와요.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다 나와서 자기 부스를 마련해서 동아리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거니까. 그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요. 지역화 하는 데에는 굳

이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들을 준비위원회라든가, 축제의위원회, 달장위원회 같이 꾸려가면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세모로 모이기도 하고 네모로 모이기도 하고 동그라미로 모이기도 하고 하면서 겹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모이기도 하면서 지역화가 진행이 되가는 거 같아요. <논골작은도서관 윤수진>

[그림 21] 논골추진위 협력관계망 (윤수진, 논골마을 내부자료)



- ㉠ 논골추진위의 협력망 구축의 과정을 보면 마을이 자리한 지역의 학교,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와 같은 기성 주민조직들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함. 핵심활동가인 논골작은도서관장이 논골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냈음에도 논골추진위 활동 이전에 시민활동의 근거지가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정치”를 하러 온 것은 아니라는 경계심에 대해서 마을활동의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시키는 노력이 요청되었음.

- 굉장히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부녀회나 관련단체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질의와 ‘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라고’ 욕도 하고, 그게 굉장히 힘들긴 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활동 하나하나 해나가다보니까 ‘이런게 바로 마을활동 이겠구나’ 짐작은 하시는 데 선뜻 함께 하시기엔 부담스러운 존재들인거죠. 저희가. (중략)언제나 저희가 먼저 내밀죠. 언제나. 제가 이제 주민위원회를 3수 했어요. <논골작은도서관 윤수진>
- 밖에 나가 살다 오다보니까, 나가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른신들은 옛날에 봐서 알지만, (중략)저는 일반 주민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우가 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누굴 만날 수도 없었어요. 이 지역 사람이니까 아 누구, 저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 딸, 누구 집 딸. 거기서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아 개!. 개 원래 그랬어” 해가지고 그렇게 한사람 한사람 만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도 만나고 추천도 받고 학부모회, 운영회 가서 만나서 설명하기도 하고 한사람 한사람씩 만났던거 같아요. 한사람 한사람씩 만나가지고 ‘같이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같이 진행이 된 부분이에요. <논골작은도서관 윤수진>

- ◎ 마을 활동의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는 핵심 활동가가 인간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활동의 기간이 쌓이면서 문원중학교나 마을카페를 위탁 받고 있는 경우와 같이 마을의 활동이 소문이 나서 마을공동체를 찾아온 경우도 있음.

- 2016년에 왔을 때 처음 올해 교장선생님이 바뀌셨는데 그 당시 교장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저를 데리고 제가 오자마자 한 일주일도 안됐을 거예요. 오자마자 우리 마을에 되게 재미있는 활동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공간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뭔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복지사님이 가서 뭘 하는지 보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라운딩을 하신 거예요. 저도 온 지 얼마 안돼서 마침 그게 필요했던 참에 그냥 되게 편안하게 기관과 인사를 하게 된 거죠. 학교 교장선생님이 인사를 가면 되게 더 친절하게 응대해주시니까. 그렇게 인사하고 그러면서 마을 분들과 이야기하다보니깐 그 욕구가 있으셨어요. <문원중학교 서정화>

- 저희가 벼룩시장 정보를 받은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들어온 거였죠. 여기 정보경영고등학교에 학부모님이 계셨는데 저희 혜은학교에서도 학부모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주셔서 여기 논골의 팜플렛, 작은 도서관 팜플렛을 갖다 주셨어요. (중략) 이제 뭐라 그럴까 혜은 학교가 단대동 지역에 같이 있어요. 이 지역을 쏘는 건 아니고 단대동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프로그램을 한 해 동안 해왔잖아요. 해오면서 이제 저희가 우리들이 한번 아이들과 함께 커피숍 이런 걸해보고 싶다고 그냥 말 아닌 말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되서 갑자기 일이 벌어진 건데(이하 생략) <한울타리공동체 김미경>

- ◎ 주민자치조직이 “지역화”를 원활하게 하고 미참여 주민의 경계심을 낮추며 마을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기성 주민 조직을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지점임. 이점은 새롭게 5분 거리 생활권 내 공유공간이 정주민의 문화복지 차원으로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의 주인으로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면 기성 주민조직과의 연계 내용을 공간 운영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8) 협업 내용

- ◎ 논골추진위와 외부 협력기관의 협업 내용들은 공간위탁, 프로그램 공유 및 공동 기획, 활동 무대 제공 그리고 마을 아빠들이 직접 중학교에 들어가 당구교실을 하는 등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 논골 축제 때 저희가 이제 참여해서 발표회를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 나가실 수 있는 팀들은 거기 나가서 발표회도 했었구요. 위원회에서는 논골에서 달장을 했잖아요. 분과별, 세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참여를 해서 위원회 사업을 부스를 얻어서 펼쳐서 한 적도 있구요. 그렇게 이제 소소하게 참여를 해서.. 주가 논골이었기 때문에 도서관 주관이니깐 저희는 뭐 주는 아니었고, 참여로. 부녀회 같은 경우나 적십자에서는 참여해서 음식같은 걸 판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었고 위원회에서도 바자회나 이런 걸 했었고 그런 식으로 소소하게 참여했었던 거 같아요. <단대동 주민자치센터 오영실>

- 이제 바리스타가 시작됐구요. 그리고 이제 첨엔 ‘뭔가를 고쳐주고 싶다’, ‘집에 있는 어르신들의 집에 있는 어떤 어려운 것들을 조금 아이들이 보살펴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집수리, 뭐 흥반장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집수리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해보니 아이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기술 이런 게 없다보니 얼른 목공교실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막 절차적인 상황에 맞진 않지만 어쨌든 그 필요성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변화하고 발전되면서 어쨌든 아이들도 그 상황에서 조금 조금씩 수용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같이 해주시는 마을 분들이 아이들과 관계를 되게 잘 맺어 주시더라구요. 이게 우리 동네 아이 옆집 아이라고 생각해서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계속 유대감 있게 그냥 수업 외적으로도 정말로 동네 아이 옆집 아이 보살피듯이 그렇게 관계를 맺어주셔서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계속 만들면서 고민을 하고 있죠. 처음엔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도 어, 마을 카페 공간을 빌려서 아이들이 그냥 여러 가지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는 거였다면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마을 축제나 아니면 행사에 자원봉사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엔 그 아이들이 직접 저희 학교에 이벤트 같은 것들을 열거나 작은 카페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직접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형태로 조금 보완되고 확장되는 방식이 계속 변화되고 있거든요. 배운 것들을 써먹는 과정을 어떻게 마을과 계속 나누느냐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과정을 밟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그냥 기술을 배우고 그냥 단편적인 것들이 아니고 점점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문원중학교 서정화>
- 협력은 많이 하고 있죠. 저희가 인제 뭐라 그럴까 논골작은도서관에서 뭐 행사하거나 하면 저희 수익금을 후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할 수도 있고 탐방이나 왔을 때 저희들한테 탐방객들 모셔서 매출을 팔아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하고 있어요. 수시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리고 카톡방에 보면 그날 그날 행사에 대한 걸 다 하면서 같이 공유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고 같이 공유하면서 ‘아 오늘은 탐방이 있구나 오늘은 뭐가 있구나 그런데 탐방이 있는 날은 미리 전화 와서 뭐 드시고 가신다 그럼 반죽을 더 하고 그러고 있죠. <한울타리 공동체 김미경>

(9) 논골추진위 커뮤니티의 특징

◎ 커뮤니티는 공간 유무가 아니라 “관계”가 핵심

- 생활문화예술 활동은 생활체육과 같은 여타의 활동보다 창작물을 타자에게 설명하고 교감한다는 측면에서 훨씬 사회적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특징으로 공동체 지원 정책에서 거론되는 방법으로 선순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음. 왜냐하면 공동체가 조성되려면 커뮤니케이션 활동 즉, 의사소통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그러나 막상 정책이 실행되는 현장에서는 몇 개의 장소에서 몇 개의 팀이 활동하고 몇 명이 참석했는지에 대한 양적 결과에 치중한 효율성을 평가함으로써 실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을 디자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점에 대해서도 우수사례 기관의 핵심활동가인 논골작은도서관장의 구술에서 공간 운영 매니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공간 운영 매니저 부분은 향후 5분 거리 생활문화예술공간 사업을 위한 모델링 작업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며, 매니저가 갖춰야할 역량 요소와 적합한

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공간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구요, 주민센터에 왜 사람이 안모여요. 복지관에 왜 사람이 안모여요. 북카페 맨날 만들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안모여요. 주민센터도 도서관이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 거기 왜 사람 없어요. 공간 인데, 아무나 들어 갈 수 있는 공간 인데, 왜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없어서. 마을 사람이 없어서. 리더 그룹이나 마을 활동가 그룹이라던가 그룹에 사람들 있잖아.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 있으면 거기 사람 모여요. 사람을 만들어내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논골작은도서관 윤수진>

◎ 기획실무자와 주민의 경계 없음

- 논골추진위의 특징 중 하나는 기획실무자와 주민의 경계가 흐린 점임. 이는 이슈별 활동중심 마을모임이 아니라, 일과 생활과 여가가 주거 공간에서 해결되면서 주민의 삶이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마을 활동의 내용이 제안되고 마을 아젠다를 협력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마을공동체의 특징으로 해석됨.

- 사실은 마을을 생각하고 마을 커뮤니티를 생각하고 모여서 만든 그룹들이 성장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소수적으로 마을활동들을 성공한 사례라고 말을 해요. 저희 논골 마을은 좀 다르죠. 지역화된 마을이잖아요. 마을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모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삶터인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예요. 슬리퍼 신고 어슬렁 다니면서 차도 한잔 마시고 맥주도 한잔 마시고 ‘그래 그럼 장구도 한번 쳐봐’ 이렇게 해서 만든 마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활동가들도 견고하고 시스템 적으로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건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만들어나가고 저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남았다. <논골작은도서관 윤수진>

- 저는 사실 와서 이 사람들은 조금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왜 다 준다고 하지? 그래서 뭘 기대하는 거지? 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알겠더라구요. 즐거워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애당초 우리 꺼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내게 아닌 그 어떠한 이득을 내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이익을 키우면 우리가 다 같이 즐겁잖아’ 하는 의식이 있으신 거 같아서 한편으로는 바보 같고 한편으로 존경스럽고.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된 거고(생략) <문원중학교 서정화>

- 논골추진위는 외부에서 정책실현을 위해 견인되는 공동체보다 보상과 의무가 결부된 기획실무자와 서비스 참여자로 수혜를 받는 주민의 경계가 약화되어 있어 결과 책임에 대한 부담이 낮아 보였음.

◎ 그림자 시간 - 느린 의사결정

- 논골추진위는 느린 의사결정 특징을 보임. 논골추진위는 소수 조직원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주민 간 삶을 공유하는 공통의 감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 저희가 12월에 계약을 하고 1월쯤에 문 열고, 9월에 아이들 다 들어왔어요. 30명이 다 들어왔잖아요. 1월부터 9월까지 그 곳은 비어있는 공간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놀고 이야기하고 이런 상태의 것 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데는 그런 노력과 대화와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를 의견을 나누는 그런 구조가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제 생각이었어요. <논골작은도서관 윤수진>
- 어느 정도의 커뮤니티가 살아있고 주민이 필요하고, 그 공간적으로 만들어야 할 공간들이 주민이 정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문화적으로 세련되고 센스있고 세련되고 하고 싶은 게 문화재단의 뜻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가보니까 ‘갤러리도 좋고 뭐도 있어서 정말 문화적으로 아주 풍족해’라고 말하면서 정말 멋들어지게 만들고 싶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 주민들에게 필요치 않다면 갤러리가 필요치 않은 마을이 있잖아요. 필요치 않다면 아무 소용 없는 문화 공간인거 같아요. 아무리 미술작품 해봐야 소용 없잖아요. 주민들이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마을에 주민이 필요한 공간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회의하고 만들어 가는데 만드는 과정에 집중을 하면 그것들이 만들어 지는데 어렵지 않을 거 같아요. 만드는 건 금방 만듦. 3-4 개월 안에도 똑딱 리모델링 해서 만들어 내니까 어쨌든 과정도 중요하고 1년 안에 만들어야겠다고 하면 거의 6-8개월은 주민과 논의하고 토론하는데 집중해서 뭘 어떻게 5분 거리 안에 만들 수 있겠냐?라는 것에 주안 점을 둔다면 이사업은 성공이죠. <논골작은도서관 윤수진>
- 또 저희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건 단학기성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지 않고 한학기나 일년 단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것들이 충분히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였다가 한 학기가 넘어서고 이년차 삼년차 계속 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기획을 한다던지 제안을 한다던지 이런 방식으로든 프로그램에 자기가 약간 주도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고(생략) <문원중학교 서정화>

- 또한 공간 조성에 주요 참여자 그룹을 의사결정 과정 전체에서 참여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구술에서 확인할 수 있음. 정책 사업에 빠른 달성을 위해 행정에 의해 동원된 방식 또는 형식적인 공청회나 일방적 의견수렴 방식은 커뮤니케이션은 없는 그저 낱알의 개인으로 공간을 채우는 것 외 공동체로서의 공통감을 만드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 협력기관 모델: 나란히 가는 관계

- 이해관계 기관 간에는 개방적이고 충분한 정보제공과 가벼운 멤버십 부여가 건강한 협력 관계를 만드는 요소가 됨. 인터뷰에 참여한 학교, 민간위탁 참여기관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은 상호간에 협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대 사항과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개방 그리고 달성 가능한 공동의 성과를 충분히 논의하여 설정함. 인사이드를 강요하지 않고 아웃사이드가 되지 않도록 회의체 멤버로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멤버십 관리를 한다는 것.
- 협력을 받은 내용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년 반 밖에 안됐기 때문에 주력은 커피하고

핫도그 매출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이제 같이 이렇게 뭐랄까 공유는 하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다른 데는 만약에 이렇게 위탁의 위탁을 받게 되면 솔직히 너는 너 나는 나예요. 그래서 공유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뭐가 행사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행사가 있으면 와서 팜플렛 다 붙여 드리게끔 해드리고 무슨 뭐가 있으면 다 연락되고 하니까 저희가 소외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저희는 다른 단체예요 논골에 들어와 있지만 객관적으로 말하면 다른 단체예요. 근데 그걸 건너 뛰고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는 것만해도 저희는 감사한거죠. <한울타리 공동체 김미경>

- 한가지 조금 다른 부분은 분명 있었어요 마을에서 하는 활동과 학교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은 사실은 여러가지 접근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이 12월 달인데 11월 달에 이미 학교는 다음해에 어떤 것을 할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마을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다가 고민 되면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렇게 되게 순발력 있게 활동들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보충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마을 분들은 막 뭔가를 생각났을 때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어떤 절차라던지 안전망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조금 그 맡기지 요런 책임이 조금 더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걱정을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 인제 저희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열려 있으셨죠. (생략)어쨌든 다 괜찮다고 수용해주신 편이었어요. 뭐 당장은 안돼도 시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허용된 거죠. <문원중학교 서정화>

- 이는 가볍지만 충분한 멤버십을 형성해 줌으로써 기꺼이 ‘우리의 일’로 같이 하고 있다는 공유 감정을 만들어 줌으로써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여 짐. 따라서 새로운 성남의 거점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협력 기관과 의사소통 및 협력사업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시사점으로 참고할 수 있음.

1-3. 논골 모델의 시사점

◎ 3장의 1부에서는 마을공동체 운영 우수사례로 인지도가 높은 단대동 “논골추진위”를 분석하여 향후 공간 기반 생활문화예술 커뮤니티 모델체계 구상에 참고 지점을 정리하고자 하였음. 분석 사례로 논골추진위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2013년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사업에 참여한바 있으며, 지리적으로 성남시 내부에 자리하고 있음으로써 지역의 문화 정책과의 연결 관계에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또한 성남시가 2006년 이래로 ‘시민 주체의 일상권역에서 펼쳐는 시민의 문화 활동’이라는 중요한 문화정책 접근관점에서 적합한 사례로 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더불어 10년의 논골추진위 활동 역사를 더듬어 마을공동체의 생애주기를 파악하고 그동안 형성된 협력체계를 파악함으로써 새롭게 시도 될 5분 거리 내 생활 문화예술활동 공유공간 운영과 확산에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논골추진위 운영사례 통해서 분석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주민 안에 있는 핵심 마을활동가를 찾아야 함. 잦은 이사로 주거지역 내 주민이웃 커뮤니티를 결성하기 어려운 도시 생활에서 공간 거점을 홍보하고, 주민을 초대하고,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호스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점으로 지적됨. 또한 낯선 사람에 대한 주민의 경계심을 빠르게 무너트리고 사업의 취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도 있음. 신규 생활문화예술 공간 운영을 위한 모델 설계에서 핵심 활동가의 역할, 필요한 역량, 발굴 방식, 참여 범위 등 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충분한 그림자 시간이 필요함. 논골추진위 사례에서 마을의 의제를 “지역화”한다는 전략아래 주민들이 공동행동-지역아동센터 운영유지 조건 만들기, 작은도서관 설립 서명활동 등-을 할 때까지 9개월의 그림자 시간이 있었다는 정보를 알 수 있음. 그림자 시간동안 논골추진위는 일종의 집단 의식을 형성하면서 소속감을 공유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주민은 소속감과 동질감을 통해서 하나의 운명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이런 효과로 마을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수용됨. 운명공동체 내에서는 제시되는 마을 사안에 대한 의무감이 주도성으로 발휘 됨.
- 셋째, 정례화 된 신규 주민 참여 경로가 마련되어 있음. 논골추진위는 다양한 마을 활동에 참여의사가 생기거나 새로 전입한 주민이나 언제든 유입될 수 있도록 진입 통로를 열어 놓고 있음.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논골작은도서관 중심으로 분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마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격인 골목길 마을학교를 매년 운영하고 있음. 신규 유입이 중요한 이유는 커뮤니티의 생동감과 연결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임.
- 넷째, 공간 활용의 다양성 확보를 고려한 시간 배치와 가구 활용. 논골추진위에서는 7개의 공유공간을 운영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복합공간으로 논골작은도서관은 참여주민의 연령과 활동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배치하고,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퀴가 달린 가구를 사용하고 있음. 향후 걸어서 5분 거리 시민문화공간 사업에서 참고할 공간 운영방식임.

- 다섯째, 커뮤니티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재정자립 훈련과 관을 활용한 마중물 프로젝트 활용. 도시 기반 생활 여건에서 개별적으로 고립된 주민들을 시민 주체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발생 시점에 관의 지원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논골추진위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와 아이들 중심에서 골목을 공유한 이웃끼리 인사하며 지내는 문화 만들기로 확장될 때 마을 축제와 갤러리 틈과 같이 사적 영역의 지하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에서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서 보조금이 마을 활동에 마중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자생력 확보에 대한 고려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보조금 규모 축소나 지급 중단 상황에 대처하고, 정치적 환경 변화에 마을 공동체가 독립성이 위협 받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대안일 수 있음. 이러한 부분에 논골추진위는 사업 방향의 독립성 확보와 유지를 위한 재정자립 훈련을 커뮤니티 설계 때부터 고려하여 실천함. 실제 2018년 문체부 보조금 사업이 중단되었지만 큰 문제없이 주민의 욕구에 기반한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2. 성남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활용 경험 분석

2-1. 개요

(1) 경험분석 배경 및 목적

- ⊙ 성남시 내에서 생활문화예술 공유공간을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그룹과 활용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룹을 인터뷰 함. 인터뷰 참여자들의 활용 경험에서 불편한 점들을 파악하고, 사용자의 경험에서 개선점을 제안 받아 운영 영역과 사용 영역의 거리를 좁히고자 함.

(2) 인터뷰 참여그룹 개요

[표 25]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활용 인터뷰 참여그룹

인터뷰 참여그룹	인터뷰 참여자	활동 영역
청년그룹(A)	A-1	무용
	A-2	음악
	A-3	음악
	A-4	음악
	A-5	음악
마을동아리(B)	B-1	미술
	B-2	미술
	B-3	미술
	B-4	음악
	B-5	무용
사랑방클럽네트워크(C)	C-1	음악
	C-2	무용
	C-3	미술
	C-4	미술

- ⊙ 시민 그룹 인터뷰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이에 연구윤리에 기반하여 참여한 인터뷰 참여자의 이름을 기호처리하고 활동영역 역시 무용, 음악, 미술의 큰 범주로 기재함. 기타 전문가 인터뷰 내용 중 차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기재된 전문가의 실명을 그대로 표기하였음.

2-2. 인터뷰 참여자 평가 및 기대사항

(1) 생활예술 확산에 대한 욕구 및 사회적 필요성 증가

- ◎ 생활 전반에서 ‘시간’과 ‘여가’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도 함께 증가함. 은퇴 이후 세대 등 시간의 공백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경우 노후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의 장 및 공동체, 소통의 경험으로서 생활예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거나 준비하고 있는 청년 세대와 같이 여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세대의 경우 효율적으로 남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생활예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워라밸과 52시간, 이렇게 돼 버리고 나서부터 더 악기를 배우는 수요가 늘었어요. 갑자기 야근을 하고 주 7회 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이 갑자기 5일로 줄고 일찍 퇴근할 수 있으니까 다시 배우고 싶다고,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A-2>

- 우리 나이 대는 이제 그, 중년 이후 고령화되어서는 정말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걸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걸 배운다는 게 저는 제 2의 학교를 다니는 것 같아요. <B-4>

- 사실 직장인들이 이런 걸 배울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잖아요. 근데 성남문화원이 성남문화재단 소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토, 일에 문을 열었다고 했었어요. 아침 9시부터 토요일은 수업 없는 타임에 저녁 6시까지 공간을 2시간씩 빌려주거든요. 근데 작년부턴가 일요일을 폐기시켰어요. 이게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다 돈으로. 예산은 적게 받고 하니까 토요일만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토요일 하루 2시간 쓰는 것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 2시간 가지고 막 배우는 것도. 사랑방 문화클럽을 통해서 내 끼를 자랑하고 실력이 늘고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C-2>

- ◎ 이미 모바일 등 기술 지원을 통해서 문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간주되는 청년 세대 또한 오히려 지역에 기반한 ‘공간’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공간을 찾아 떠돈다고 언급함으로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생활예술 공간의 확장은 후속 세대에게도 필요한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회사에서 그냥 전혀 취미생활도 같지 않은 사람들과 공허함만 느끼다가 정말 나와 주제가 같은 사람이랑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서 너무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문화예술을 떠나서. 내가 같이 뭔가 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황홀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정말 더 고독감을 느끼지 않나. 그래서 뭐 온라인에는 커뮤니티가 너무 많거든요 소모임도 너무 엄청 많은데 거기 카테고리는 다 나뉘져 있어요. 뭐 뭐가 있어 여기는 영화만 보는, 여긴 책만 보는 커뮤니티 그 수많은 청년들이 다 가입해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은 책을 보고 한달 내내 너도 봤어? 서로 막 서로 너무 친밀감을 느끼니까. <A-2>

-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데 꼭 카페를 빌리고 집을 빌리고 이래야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예요. 번두리라도 정말 보이지 않고 전혀 수익성 없는 아지트 같은 공간만 주면 전혀 실적 안내도 되는 그런 곳에서 아주 천천히 피어나지 않을까 그게 한번 발현이 되면 뭔가가 새로운 게 탄생되고 (중략) 우리가 잘 살고 싶고 이어가고 싶으면 젊은이들이 찾는 공간, 어 진짜 번두리, 이런 게 있어야지만 회사 끝나고 나서 나랑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만들려 갈 거야 그게 생겨야지 이 도시가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A-2>

- 사실 디지털 노마드 이걸 좀 별개인데 사실 그걸 좀 되게 무책임한 거라 생각을 하는데. 왜 청년들이 자유로워서 디지털 노마드라고? 아니 이걸 기술이 발전했을 뿐인 거고 기술이 발전해서 어떤 하나의 도구일 뿐인거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로 표출이 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A-1>

◎ 실제로 기존에 생활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 생활예술 활동으로 인해서 일상 생활의 만족감이 높아지고, 작품을 지역 주민에게 발표하고 드러내는 경험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지는 등 장기적인 심리적 변형에서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 OO문화의 집이 생겨서 행복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배우기만 했던 그걸 OO문화의 집 공간에서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하면서 동아리 반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상상을 못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실제 우리가 주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여하게 해보고. 또 저희가 이 소공원에서, 이 동네 소공원에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또 주민들, 남녀노소, 애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이렇게 구경 나오신 분들, 그분들과 이렇게 수시로 몇 달에 한 번씩 서로 소통하는 거, 그런 것에 굉장히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OO문화의 집 이 공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OO동을 못 떠날 것 같아요. <B-4>
- 동네에서 하는 거해서. 좋죠. 우리 게 걸려가지고 남이 와서 보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하하. 우리 일반인이 전시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남들 안하는 거. 좀 성취감이 있죠. <B-3>

◎ 생활예술 참여에 대한 만족감은 곧 지역 사회에 대한 만족감으로 연결됨. 생활예술을 바탕으로 생긴 커뮤니티로 인해 계획하고 있던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포기하거나, 현재 있는 공간이 ‘생활예술공간’으로 발전할 경우 이주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아서 거주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 생활예술의 발전과 확산이 지역사회 발전 및 인구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시사함.

- 정말 다른 동네로, 그 새 아파트로 이사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굉장히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문화 조건이 없어요. 문화적인. 그래서 그게 만족도가 우리, 저만이 아니라 여기 토박이 엄마들이 많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B-4>
- 청년, 생활예술과 별개로 생각해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청년이 생활예술을 하고 살게끔 정책을 펼치려고 하잖아요. 사실 거주하는 공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거구요 근데 마인드나 시야 같은 건 디지털로 넓어져서 이동을 할 수 있으나 신체적으로 여기서 살고 있으면 사실 여기서 보내고 있는 시간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게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사는 청년이 이번에는, 저는 지금 여기 사는 청년이지만 내년에는 아닐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살기 좋더라 하면 여기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맞는 게 아닐까 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서 (중략)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공간, 또는 공간에 참여할 수 있게 커뮤니티 만드는 거, 동아리들이 있으면 동아리들이 모이게 하는 거? 예를 들어 성남의 어디, 뭐 분당이든 동네에서 각각 동네에 센터들이 있어서 각각 센터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1년에 한번은 모여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고, 그걸 유튜브에도 올리고 뭐 sns 활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해야 뭔가 쌓여서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는 것들이 쌓여서 그게 삶의 질을 만들어 가는 것 같거든요. 공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A-2>

- ◎ 즉, 생활예술 확산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다층화 되고 있어 지역 사회에 기반한 생활예술 공간의 확장과 함께 세대 간, 성별 간, 생애주기별 차이들에 주목하며 다층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2) 기존 시스템 및 공간 이용의 한계와 문제점

◎ 생활예술 정책의 출구 전략 부재

- 성남시는 이미 10여년에 걸친 ‘사랑방문화클럽’을 운영하고 있음. 이 ‘사랑방문화클럽’은 실제로 성남시의 생활예술 활동이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음. 그러나 이것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활동 이력이 쌓이면서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넘어가는 시기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기 일부 공간 지원에 대한 욕구에서 더 나아가 다른 형태의 ‘인정’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직접적인 예술가 지원에 대한 요구 및 아마추어 동아리와 프로로서의 차등 대우와 같은 다층적인 요구들이 등장하는 반면 행정적 지원은 여전히 기존의 성남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간 대관과 축제 행사의 지원에 머물러 있고, 이들이 단체로 성장하여 독립하거나 개별 활동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출구 전략을 바탕으로 한 지원은 부재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 출구 전략의 부재는 장기적으로는 생활예술 활동인들을 한 공간에 축적되게 하고 이것이 곧 커뮤니티의 노화 및 새로운 사용자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사랑방 축제에 민화는 로비에서 전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전문가’들인데 학예회 발표 같이. 응? 전시장 로비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사실은 그래요. 할 수 없이 축제에 참가해야 하니까 최소한 활동해줘야 하니까 하는 거지. 다들 그래도 작품 전시하고 작품 활동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응, 그런 거는. 그런 것들이 섭섭한 거죠. 미흡한 거죠. 제대로 작가 초청같이 모양새를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한번 해주고 아마추어 같은 건 또 따로 하고 그러면 되는데 거기 뭉뚱그려서. <C-3>

- 제가 볼 때는 공연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생활 예술인한테 들어오는 게 50%밖에 안 돼요 조금 예총이라던가 위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한테 오는 건 사실 공연 정도 하는 거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랑방 문화 클럽 말고도 공연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들어오는 조그만 경비 조금만 투자를 하셔도 무대 설치 그거 말고 우리한테 주는 그런 거 조금만 투자를 하셔도 동아리가 지속적으로 더 많이 활동을 할 거 같애. <C-2>

◎ 공유 공간 활용자 누적으로 새로운 사용자 유입 및 프로그램 순환 불가

■ 복지회관, 주민 센터와 같은 기존의 공유 공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동아리’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생활예술 사업들에서도 이미 이 사업을 활용하고 있는 기존 구성원의 누적으로 새로운 사용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발견됨. 새롭게 동아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정보가 미비하다고 느끼고 있고, 기존에 구성된 동아리에 들어가기에 있어서도 기존 구성원의 발언권이 센 가운데 의견 개진이 잘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음.

- 해본 사람들은 어, 그거 하면 돼. 이런 게 되니까 쉬운데. 아님 사람들은 저게 저 사람들끼리의 리그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가도 괜찮은지 모르니까 우선 신청을 못하는 거 같고. 그렸을 때 뭔가, 어, 비용이 드나?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 이런 거 모르니까 신청을 못하잖아요. <B-5>

- 저는 클럽활동 거의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사실 되게 늦게 들어간 케이스라 이미 5, 6, 70대 밖에 없어가지고 아예 발언권이 없고. (중략)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은데 그냥 통기타치고 그냥 공연하고 끝이니까 그게 되게 주도적인 상태에서 제가 뭔가 발언을 하기가 힘든 것도 많았구요. 이미 다 모든 프로젝트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위원장이 모든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는구나,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문화 연관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A-2>

- 만약에 동아리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마음에 맞는 사람, 친한 사람이랑 만들게 되면은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거기 들어가서 만나다보면 저희 같은 경우엔 예술을 하다보니까 일반화할 순 없지만 그래도 좀 개성적인 부분도 있고 윗세대랑 달리 저희는 또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아리를 가서 만나다보면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A-3>

- 저도 3년~5년 사이에 적극적으로 듣고 보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계속 사람들의 변화, 유동 인구도 있지만 어느 정도 틀이랄까, 조금 주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약간 ‘그들만의 세상’인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A-5>

■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복지회관, 학습관 등 오래된 공용공간을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층이 이미 고정적으로 있는 공간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며 사용자층의 노화와 함께 공동체 자체가 노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OO문화의 집에 회원들, 배우러 오시는 분들 평균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B-4>
- 제가 보기에 하모니카 반도 처음에는 5~60대가 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1~2년 지나면 평균 나이가 70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70~90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고령대가 갈 곳이 없고, 하고파 하고 그럴 때 그런 거 오픈해주는 뭔가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이게 어린 학생들만 배우는 학교 장소 간 게 아니라, 60부터 시작하는 배움의 단계 그런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B-4>

■ 기존 공간의 또 다른 특징으로 지적된 것은 세대 별로 점유하는 공간이 나누어지는 부분임.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각 공유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세대가 다르다고 이용자들이 느끼고 있고 실제 이용을 하고자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다고 내, 외부적으로 경계가 만들어져 있어 이용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구획 역시 장년 층 이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청년들의 독점공간으로 언급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주민 센터는) 시니어 층이 거의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공간도 이미 주민 센터도 제가 갔는데 거의 다 장악이 되어 있어요. 시니어 층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들으시기 때문에 거의 뭐 시니어 층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요 프로그램이. 이미 뭐 젊은 사람들이 이미 거기 들어가기 어렵고. <A-2>
- 동사무소 이런 데 가거든요. 근데 가면 다 내가 거기서는 젊어. 내가 젊어. 다 70대들. 다 6~70대야. 사군자(프로그램) 가도 다 연세 드신 분들이야. 내가 OO씨하고 내가 꽃이야. (중략) 그러니까 내가 제일 젊은 거야. 내가 제일 젊어. 여기서 나이 먹었지만. 그래서 내가 진짜 다른 걸 배우려하니까 나이, 젊은 사람이라고 안 된다고 다음에 들으라고. 스포츠 댄스인가 지루박 댄스인가. 나는 나이 먹으니 노래 못하니까 그런 거라도 배워볼까 싶어서 갔더니 동사무소에서 그러는 거야. 너무 연세 드신 분들만 있어서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럼 스포츠 댄스 그냥 그런 걸로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거 배우고 싶은데. 아니, 언제 배워 그걸 누가. 춤추는 거 지루박, 사교. 근데 그걸 못하게 하더라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나이 너무 젊다고 안 된다고. 연령대가 차이가 난다고. <B-2>
- 가보니까 첨에는 나도 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가서 못 갔잖아. 여기도 언니 때문에 온 거니까.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아이씨 쪽팔리고 하는 게 뭐 소용 있냐. 아이씨 다, 그럼 또 우리 친구들은, 야, 너 벌써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동사무소 가고 그러냐고, 나보고. 나보고 막 그래. <B-2>
- 남자들 많아, 연세 드신 분들. 복지관 가져야 되는데 그리로 오셔. 복지관 가라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여기 오면 젊은 여자들 손잡고 춤추는데, 거기 가면 나이 많은 할머니들 손잡고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냐고. 진짜 씨, 그래. 환장하는 거지. <B-3>

■ 문제는 이처럼 특정 세대의 독점 공간으로 인식되는 공간들의 경우 이미 해당 세대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 청년 세대 등 새 사용자가 들어올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 복지회관 및 주민 센터 프로그램을 이미 경험한 경험자들은 기존에 행정 편의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실제 이용에 있어서 이미 구성된 프로그램이 포화 상태라 새로운 동아리가 생성되기 어렵거나, 공간 활용이 쉽지 않으며 새 프로그램이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음.

- (주민자치센터는) 제한이 많잖아요. 시간적으로 또 공간을 사용하는 게 딱 정해진 시간만 사용해야 하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와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혀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 내고 들어가서 듣는다 그럼 괜찮지만 오픈도 쉽지 않고 강의 열기도 쉽지 않고 어떤 공간에서 저희가 생산적 토의를 하겠습니까고 해서 열어줄 공간도 아니고. <A-5>

-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사실 동아리가 많고 정말 빼곡하게 그 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수업시간을 옮기고 싶어도 그 공간 한계 때문에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것도 신청을 매번해가지고 하는 건데. <A-3>

- 지금 현재 동네 흐름은 예를 들어 신도시 아파트 입주와 함께 새로운 그런 장소라면 모를까 기존에 10년, 20년 오래된 동네에서는 이미 다 자기가 다니던 스케줄이 기존에 있어요. (중략) 좋은 프로그램이 생겨도. 왜냐면 오전마다 어학 배우러 간 사람, 운동하러 간 사람 주민 센터에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다 스케줄이 다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새로운 무슨 반이 생긴다하면 오후에 생겨야 어디를 갈수 있지. 이렇게 돼, 이 동네 흐름이요. (중략) 이미 지금 현재 오전들은 다 차있어요. (동아리 활동하는 그 어른들도 다 오전에 뭘 하고 있어서) 다 오후에 해요. 모든 동아리, 지금. 왜냐면 여기서 이미 10년, 20년 동안 스케줄이 다 차있어요. <B-4>

■ 재개발 등으로 이주민이 대거 발생한 지역의 경우 새로운 기존 사용자층의 욕구를 상쇄하는 새로운 욕구가 수면 위로 올라옴으로써 공간의 프로그램이 새롭게 조율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나 이는 특별한 경우로 이와 같은 대규모 이주와 같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사용자의 연령이 늘어남과 동시에 커뮤니티의 노화도 함께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시간대도 그렇지만 제가 맨 처음 14년도에 왔을 때는 아무래도 푸르지오가 요기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제가 그 전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푸르지오의 이동률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사를 되게 많이 다니고 이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60대가 반 정도가 차지했나? 그 정도로 60대 이상이 그 정도로 차지하고 2-30대는 불과 한……. 젊은 분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1-2년 후에는 이사의 변동으로 인해서 그 어린 엄마들이 많이 오시고 아이들 많이 생기고. <단대동주민자치위원회, 오영실>

■ 결국 기존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중심의 생활예술 동아리가 더 생성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유공간에 비어 있는 자리, 여백의 시간과 공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하는데 그럴 여유 공간이 확보되기 어려움. 따라서 새로운 사용자의 투입을 통해 전체 커뮤니티의 연령을 낮추고 지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새로운 진입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유추됨.

◎ ‘시간의 파편화’ 문제

- 설사 위에서 언급한 커뮤니티의 노화나 프로그램의 비순환의 문제들을 넘어서는다고 해도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이 ‘시간의 파편화’ 문제임. 새롭게 사용자로서 들어와야 할 청년 세대 및 30대 이상의 직장인들이 참여 가능한 시간은 주로 야간 및 주말 시간대이지만 현재의 공유공간들은 관리의 문제로 인해 야간과 주말 시간을 개방하고 있지 않고 있어 참여 자체가 쉽지 않음.

-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엔 문을 다 닫는단 말이에요. 토요일에 문을 여는 곳이 한군데도, 별로 없어요. <C-2>

- 용인시에서도 봤는데 작은 도서관이 많더라구요 마을마다. 어, 꽤 좋다 했는데 근데 5시면 닫고 토요일에는 사람이 제일 많은 시간인데 뭐하니까 못하니까 닫고 뭐하러 하면 뭐 다 내려어쨌어쨌해서 이걸 시끄러울 거 같다 이래서 안 된다 자꾸 걸리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럼 누가 그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어디 갑자기 얻어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A-5>

- 인터뷰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경험적으로 이용 시간을 세대별, 생애주기별로 범주화 시킬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 주말 및 야간 시간이 모두 쓸 수 없는 시간으로 버려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주중 낮과 오후 시간을 편하게 사용가능한 청년, 노년층을 중심으로 공유공간의 활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오후 시간대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쓰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오전에는 주민 센터에서 활동하고 오후에 여기 와서 활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오후시간(에 주로 오시고 전체적으로) 오전시간대가 조금 여유가 있어요. 토요일은 거의 다 차는 것 같고 일요일도 오전시간대는 다들 가족이랑 보내고 종교 활동 하고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걸 보면 일요일 오전시간은 비고 일요일 오후 시간은 조금 있고. <C-1>

- 공예 쪽은 학습관이나 문화 복지관 쪽에 (수업이) 되게 많아요. 그 시간이 월, 수, 금 오전 10시~12시가 완전 피크예요. 나이 어리신, 저희 또래 친구들은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12시 전에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12시 전에, 아이들 초등학교 픽업을 가야해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자식들 식사 챙겨야 한다고 3시에 무조건 땡하고 가세요. 그래서 피크타임이 정말 10시부터 2시 고 사이에요. 근데 주말에는 아무도 안 오세요. <C-4>

- 주말이나 저녁 6시 이후에는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직장인들, 젊은 층들이 뭔가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문화센터도 4시~5시에 끝나요. 저희가 공방을 (저녁에) 하고 있으니까 그때 와요. (중략) 직장인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건 저녁타임. 딱 퇴근하고 6시부터 9시 사이 1~2시간 사이에 뭔가 배우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시간대 별, 연령대 별로 많이 나눠져 있죠. <C-4>

- 2시에서 5시까지 저희(민화반)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부들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연령대도 젊은 사람들은 안 돼요. 아이들 때문에 어떤 젊은 사람들

은 아이도 막 데려와, 데리러 와야 돼요, 가야 돼요 하면서 이게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연령 대도 주로 정해져있어요. 주로 제 나이 또래에. <C-3>

-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시간’에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려가 기획단계에서부터 고려된다면 현재 빈틈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어지고 있는 기존 공간에도 새 프로그램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이는 야간-주말 등 관리의 문제와 연결되는 특정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이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생활예술 활동의 확산을 위한 고려사항

◎ 새 공간의 지리적 특징 및 공간적 특징

- 참여자들은 새로운 생활예술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가장 확고한 부분은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상시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지점임.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동하는 시간을 상쇄할 수 있고 보다 유동적으로 공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 주변에 가까운 곳에 공유 공간이 생기기를 희망함.

- 이상하게 이게 조금 뭐라 그러나 그쪽에서 여기 오시기도 힘드시데요. 지리적인 위치로 그 쪽 분들은 이쪽을 잘 안 오시고 이쪽 분들은 그쪽으로 잘 안가시고 지리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단대동주민자치위원회, 오영실>

- 가까운 데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데로 다니지, 시간을 쪼개 쓸 수 있으니까. <B-3>

- 나도 우리 동사무소를 가고 싶은데 우리 동사무소가 지금 짓고 있어서 못 쓰대서 남의 동사무소 가니까, 아, 그것도 있더라. 남의 동사무소 가니까는 이거 신청 받는데도 자기네 동사, 자기네 동네 먼저 받고 남의 동네를 받더라고.(중략) 아, 치사하다 내가 막 그래. 치사하다고. 우리 동사무소 짓기만 해봐라, 여기 오나보다. 그러고 그랬어요. 뭐. 기겁을 해. 어, 그래도 거기 가실 거예요? 그래, 그럼 바로 집 앞인데 거기서 다녀야지 여기 오겠어. <B-2>

- 또한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주말, 야간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열려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요즘에는 오히려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더 대중적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어디 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엔 야간반 괜찮은 거 같고, 토요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존의) 센터에서 안하는 시간 대에 공약을 해야. <C-3>

- 참여자들은 기존에 이용했던 공유공간이 가시성이 떨어지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실제 공유공간이 있다하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고 이용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고, 이에 대한 보완으로 새로운 공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시성이 높고 접근성이 높은 1층 공간, 평지의 공간, 밀폐되지 않은 오픈된 공간이어야 한다고 설명함.

- 여기는 특성상 이 000 도서관 특성은 제가 다른 데에 다니다가 보면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예, 지나가다 쓱쓱 들어와요.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애들도 많고. 그렇고 그나마 접근성이 좋은 이런 데도 잘 모르는데, 근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들도 많거든요. 3층에 있고 그런 데는 거기 도서관이 있는지도 모르는데다가 거기 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요. <B-1>

- 밀폐된 공간보다 이렇게 딱 보이는 공간. 이렇게 보여 가지고 지나가면서, 아, 여기 뭐하는 데다. 하고 눈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데. 일층에 이렇게 눈으로 딱 보이는 데. <B-3>

- 장애인 및 미취학 자녀를 둔 사용자 등 돌봄이 필요한 영역의 주민들도 언제든지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유희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생활예술’이고 그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감수성은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는 지적임.

- 애기가 더 어린 사람들은 애를 맡기고 할 수 있는 데여야 할 수 있으니까. 성남에 여성복지회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애기가 어린 경우에는 얼마를 내고 맡기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 애기 엄마들은 거기 가서 배우는 거예요. 뭐 오천 원, 삼천 원 뭐 이런 식으로 내고 배우니까. 그런 정말 막 육아에 찌든 엄마들한테 그런 공간이 좀 더 있어야. <B-5>

- 공간 활용을 했을 때 휠체어 타시는 분 목발 짚으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턱이 너무 힘들어요. 턱없는 그다음에 그런 걸 하면 좋은데 공간 활용을 해도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도 이 경사로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해서 하고는 싶어요. 근데 그게 지금 공간 면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이 환경조성에서 건물 지었을 때 거기까지 생각을 절대 안하세요. 다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만 짓는 거야 그러니 우리 성남시에 무장애건물? 무장애건물이라고 발표는 해놨지만 한군데도 없거든요 <한울타리공동체, 엄윤숙>

- 이러한 공간적 특징 외에 다른 특징으로 이 공간이 생활예술을 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예술에서 탈피되어 있는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구성되기를 지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하나의 고정된 형태, 장르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장르가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매우 높은 자유도를 가진 하나의 복합적인 플랫폼 형태로서의 새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음. 어떤 장르의 예술 활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와서 이곳에 머무르고 네트워크 하느냐가 공간의 활성화에 더욱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음.

- 공간 정말 중요한 거 같구요. 그게 그 공간이 딱히 뭐 어떤 한 그룹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섞일 수 있게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복합적인 공간이면 베스트 일거 같구요 강남이거나 홍대거나 이태원이거나 가는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이 거기 있겠지 해서 가는 거잖아요. 비슷한 사람을 찾고 동경하는 사람을 찾고 만나고 놀려고. 정신 놓고 놀려고 가는 건데 그게 순화돼서 좋은 방향으로 예술과 섞여서 거기 가면 나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 내가 예술을 즐겨야지 그림을 그려야지 이런 목적이 아니라 나랑 닮은 사람을 찾고 연계하고 대화하고 그게 삶이 지속이 되면서 성장하는 거니까요. 사람이, 그런 공간이 있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A-4>

- 생활문화나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 기업형 이런 것도 그렇고 보편은 어쩔 수 없어요. 공공기관은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포맷을 좀 장기적으로 가고 보호할 수 있게. 공간도 도시 한가운데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뭘 하든 되게끔 몰라서 되게끔. 알아서 작당을 하게. 굳이 거기서 하는 거 굳이 오픈할 필요 없게. 왜냐면 본인이 생활을 누리고 있고 뭔가 문화적으로 문화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소셜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사람이 오고 흠어지고 모이고 또 그게 문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A-1>

- 결국 거기를 놀이공간처럼 만들어야 할 거 같아요. 예술을 한다고 하지 말고 어떤 종합 놀이공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C-3>

■ 그러나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세대 간 차이가 있음. 중장년층은 공간을 ‘장르’를 중심으로 상상하는 반면 청년층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상하는 특징을 보임.

- 공예는 어느 주민 센터 민화는 어느 주민 센터 이렇게 <C-2>

- (일례로 서울의 문래예술공장은) 왜 공장 막 1층에 문래예술공장은 기증기 하나 있고 뽕 뿜려있는 공간이거든요. 어떨 땐 전시하고 어떨 땐 연극하고 어떨 땐 전시하고. 공간에 서티가 있어요. 공간에 그래서 차라리 나눌 필요가 없이 큰 덩어리들이 여러 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음악을 만약에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끝났어요. 다른 팀 들어오면 어 뭘지, 하고 관심 가지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장르를 나눠놓으면 그 장르 사람만 만나고 활성화가 안 될 거 같아요. <A-1>

■ 이는 공간을 이용해본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간에 공존하고 소통하길 바라는 유사점은 있으나 이는 주로 이미 기존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장년층, 노년층에서 주로 개진된 의견으로 청년층에서 등장하는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기존 공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견과는 일부 부딪히는 부분이 있음. 따라서 이 세대 간 공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간 운영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임. 이를 위해서는 청년층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전용 공간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르 기반 공간 등으로 따로 구성하는 등의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음.

◎ 참여자의 ‘참여’ 촉진 문제 : 멤버십과 책임

- 앞에서 커뮤니티의 노화 등의 문제 등을 살펴보았고, 따라서 이를 타개할 새로운 공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공간이 어떠한 특징에 기반하여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였음.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일부 사례에서 생활예술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거리’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을 넘어서는 우선순위로 작용하는 사례가 발견됨. 일부 생활예술 프로그램은 공간의 관리자의 주도 하에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단기간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단기간 지원 구조의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 기간이 끝나 강사 사례비, 활동비 등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참여자가 이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들은 거리가 다소 멀더라도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이동함. 이는 기존에 생활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고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환상에 위배됨. 오히려 한번 생활예술을 경험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경우 생활예술 프로그램을 서비스 중심으로 상정하고 있고 본인을 ‘소비자’로서 규명하는 경우가 많음.

- 요즘에 문화센터 이런 데서 무료강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무료를 찾아서 하고 꼭 이게 아니어도 비슷한 거를 무료를 찾아서 하고. 굳이 여기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는) 일정 정도 회비를 그냥 받는 거예요. 동아리 유지비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강사비도 강사비 뭐 수업료다 해가지고 받는 의미보다 소정의 그런 걸 이렇게 받고 하는데 그런 거(비용을 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여기로 올 이유가 없는 거죠. <B-1>

- (정부 지원 무료 프로그램이) 횟수로 10회라던가 8회라던가 요런 식으로 했던 거 같아요. 고 기간이 지나면 짝 빠지세요. 계속 하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짝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게 동네다보니까 얘기를 들으면 어, 뭐, 지역이 좀 먼 타 지역 문화센터 이런 데는 찾아간대요. 예, 예. 무료 강좌를 찾으러 다니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지가 되는데 이제부터는 다만 2-3만원이라도 내셔야 되고 하면 그 이제 그만 두시고 그러는 거죠. <B-1>

- 이처럼 본인을 서비스 수혜자인 ‘소비자’로 규정할 것인가, 생활예술문화 커뮤니티의 활동가로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후 새롭게 생겨날 공간 이용에 대한 의견에서도 드러남. 이에 대해 인터뷰 참여자들은 새롭게 생겨날 공간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소비자’로서 가볍게 선 체험하고 탐색할 수 있는 형태를 우선시함.

- 거기가면 언제든지 뭐 체험을 할 수 있어. 우리 같으면 민화 체험 같은 거. 거기가면 항상 뭐가 움직인데. 공예도 하고, 뭐하고 뭐 하면서. 거기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유기체처럼 장소는 작아도 기업적으로 큰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은 원데이 클래스 같이 많잖아요. <C-3>

- 한 건물에 카페테라스도 있고 1, 2층. 위층, 위층에 아예 한 층에 저희(동아리 활동 하는 사람들이)가 다 들어가 있다면 일반인도 와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체험하고 나올 수도 있고. <C-4>

- 문화건 예술이건 간에 일단 일반 시민들이 어떤 향유를 하거나 하는 것이 ‘지속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가 본인이 즐기고 싶을 때 즐길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맞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정책이 좀 지속적으로 와 내가 즐기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있거나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공간은 부재한 것 같고. <A-1>

- 실제로 커뮤니티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와 소비자로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발견될 수 있는 욕망으로 이를 다시 살펴보면 기존의 공간들에서 커뮤니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만한 ‘탐색’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연결해볼 수 있음. 실제로 충분한 탐색의 시간이 주어진 이후 커뮤니티로 진입을 시도할 수 있는 일부의 자율성과 일부의 서비스로의 복합 형태로서의 새로운 공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 공간이 ‘소비자’ 이용 공간으로 전락하는 경우 기존의 영리 목적의 복합 문화 공간과 다를 바가 없음. 따라서 ‘소비자’ 위치성으로 가볍게 진입한 새 이용자층이 충분한 탐색의 시간을 거친 후 놀이와 자치를 할 수 있는 참여자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영역으로서의 전략을 잘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서 주요한 개념으로 ‘멤버십’을 고려해볼 수 있음. 기존 사례를 살펴보면 작은 숫자로 이루어진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예술 활동을 기본으로 장기적으로 교류하면서 사회적 자본으로서 ‘멤버십’을 확립하게 되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 소비자에서 참여자가 되고 누군가의 책임에서 ‘나’의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사람도 좋구요. 오래하다 보니까 친근감도 있고. 또 이렇게 단출하게. 문화센터는 많잖아요, 사람이. 단출해서 가족 같은 느낌. 서로 유대관계가 생겨요. 좀 오래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좋아, 서로 챙겨주고 그러는 거 있죠. 그런 게 있어서 좋더라구요. (중략) 고만둔다. 그러면 왜 고만둬. 그러면서 서운해하고 진짜 이게 뭐 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 같은 느낌, 고만둔다고 그러면. 아쉽고 그런 게 있더라구요. <B-3>

- 근 좀 첨에는 그래도 오다보니까 진짜 동생들 같고 선생님도 동생 같고 그러니까 친근하고 가족 같아서 좋은 거 같아요. <B-2>

- 다음의 사례는 의견 개진을 통해 동아리가 형성이 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멤버십이 형성되며, 이 형성된 멤버십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고 커뮤니티에 더 강하게 관여하는 일련의 과정이 잘 드러나 있음.

- 근데 저는 취미생활로 처음부터서 우리 동네 하모니카, 악기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처에서 항상 통장 돼서 볼 때 1, 2년에 한 번씩 다 성남의 어느 지역에서 다 나와서 동참하는 기회가 있어요. 악기 연주 같은.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저희 동네는 그런 악기반이 없더라구

요. 그래서 5년 전에 동장님께 이제 의견을 올려서 악기 반을 만들어서 이제 기초 도래미부터 배워서 여기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동아리를 이제 만들어서 하다보니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음악에 전문적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평범한 주민 속에 한 사람인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기분, 저도 이제 이런 거를 리더를 하면서 더 한 가지 한 가지 공부하게 되고 악보도 음악도 CD를 구워서 여기 맞춰보고 이런 단계까지 하게 됐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 단계는 선생님들께나 의지하지, 뭐 주민센터 선생님들도 음악 준비까지는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그냥 악보와 하모니카만 부르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저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동아리 식구들이 공연에 참여하다보니까 CD를 구워서 한단계 더 준비하게 되는 것까지. 그 래가지고 제, 나 스스로 우와 놀,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고. <B-4>

- 그러나 이처럼 참여와 멤버십, 책임의 과정이 뚜렷이 드러나는 기존의 이용자 사례는 충분한 탐색의 시간을 거쳤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을 공동체 안에서 동아리라는 작은 클러스터를 통해 활동함과 생활예술의 효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새로 진입할 이용자의 경우 단시간에 바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멤버십을 통해서 책임으로까지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새로운 공유공간이 형성될 때에 충분한 ‘탐색의 시간’이 주어짐과 동시에 이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는 주체로 성장하기 이전까지 이 공유 공간의 무거운 ‘책임’을 지어줄 어떠한 ‘주체’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이 주체가 가지는 ‘규칙’에 대한 내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참여자들은 개인적으로 참여할 때에 가지는 ‘참여의 책임’과 동시에 동아리 등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누가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지, 공간을 관리하는지 등 ‘관리의 책임’에 대해 동시에 무거움을 느끼고 있음.

- 인터넷 이런 게 워낙에 발달해있고 요새는 사실 개인적인 취미로 배우고 싶다 이러면 유튜브에 쳐보고 그럼 악기 이런 게 뜨잖아요. 집에서 사실 혼자서 하고 하다가 재밌다 이럼 선생님을 찾아가지 보통 뭐 무턱대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동호회 같은 거 시간을 내서 가기가 저 같은 경우엔 꺼려지더라구요. <A-3>

- 어, 저만해도, 기타를 한 번 배워보고 싶구나. 이걸 하니까 정말 플라밍고 기타 한 번 배워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내가 과연 이게 맞을지 해볼 수 있을지. 한다고 했다가 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 때문에 막상 해보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있으면,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 주는 거하고, 악기를 대여해볼 수 있게 하는. 접근하기 쉽게, 접근해보고 내가.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B-5>

- 사실 제가 이번에도 클럽 행사, 할 때 축제를 할 때도 제가 드럼 치는 거 이런 거 했었는데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학교에서 이런 거 하는 게 있어서 학교, 대학교 친구들 몇 명 데려올까 했는데 어떻게 제가 처음에 제가 이야기하면 이 친구들이 올수는 있을 거 같은데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따지게 되잖아요. 왜 내가 가야되지 하게 됐을 때 이 친구들한테 이게 메리트가 있을까 이 친구들이 과연 오고 싶어 할까 오면 저 때문에 오는 거겠지만 한번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왜 내가 이 어른들과 어울려야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설득을 하면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랬어요. <A-5>

-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예비 사용자의 위치에서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로 진입하여 장기간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개인의 이용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홍보할 때에도 동일함. 즉, 생활예술 동호회 활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실제 어떤 이득이 나에게 주어지는가가 바로 판단이 서지 않는 가운데 개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에 있어서 직접적인 부담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또한 이미 생활예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간관리' 및 '네트워크'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개인에게 이것이 돌아오는 방식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 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원이 제공되기를 희망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이 참여자인 '개인'에게 일정 부분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느끼며 실제 이 책임의 모호함은 의사소통 구조에서 '정보의 단절'로 연결됨. 발화할 수 있는 자는 발화하는 순간 책임이 자신에게 오기 때문에 발화하지 않게 되고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다른 구성원의 경우 발언권이 자신에게 없다고 느껴 의견 개진을 멈춤.

- (운영위원) 그걸 맡아서 하면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솔직히 발을 빼는 거예요. (중략) 저희는 각 전공분야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들 카페지기들이 다 강사들이예요 그래서 너무 상전들이 많아. 어떤 사람이 일할 때 운영위원장이냐 일할 때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 어차피 봉사인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말 많고 시끄러워서 봉사하겠나. 그런 정말 어휴 이거 시켜주기 전에 나타나지도 말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C-3>

- 뭔가 이렇게 겹도는 거죠. 굳이 뭐 이렇게 (활동을 해야 하나). 나는 일단은 들여놨는데 굳이 혜택 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뭘 잘 모르고, 주변에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는 발만 들여놓고 활동 안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소속이다. 이것만 아시고. <C-1>

- 솔직히 누구 먼저 선뜻 하시는 분도 없어서 그건 보통 안하고 그건 보통 안하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저 이번에도 전시했을 때 아쉬웠던 거 뭐냐 하면 공예로서는 체험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걸 제가 지금 아직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왜냐하면 그것도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예는 공예 팀을 해서 단합해서 말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위치가 아니라, 운영위원이 아니라서(생략) <C-4>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성남아트센터 공간 외의 기존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책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됨. 학교, 교회, 주민 센터 등 다양한 기존의 공유공간이 활용 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실제 이 공간을 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공간 활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공유공간으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임.

- 학교에서 일하지만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책임의 부분인거 같아요. 학교를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선생님들 특히 관리자 분들이나 그 담당하는 책임, 행정실장님이나 관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그것들에 대해서 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략) 특히 관리자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리자가 다 괜찮다 수용하겠다. 근데 관리자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는 또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전

의 약속 그전의 규칙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중략) 학교에는 굉장히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 준비되어 있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학사력에 따라 쭉 나오잖아요. 그 거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감당하고 싶지 않아해요. (중략)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활동(학사력 외의 지역 사회 예술 활동)들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학교에는 어떠한 식의 이익이 돌아가거나 적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마련해놓지 않으면 학교의 문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문원중학교, 서정화>

- 따라서 새로운 공유공간이 제공될 때에도 개인들이 멤버십을 갖추고 자발성을 획득할 때까지의 충분한 탐색의 시간과 동시에 이 시간 동안 이 공간을 운영하고 참여의 책임과 관리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줄 대체적인 ‘주체’가 공존해야 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공간만 주어지며 이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어 이 ‘책임’ 문제를 회피할 경우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새로운 참여자를 모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공간의 핵심인자로서의 ‘주체’

- 그렇다면 이 공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참여자들은 스스로 ‘관리’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관리’ 받는 자로서 책임을 덜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때 관리하는 자는 생활예술전반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넓은 경험자로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음. 이 밑바탕에는 ‘책임’의 문제와 ‘관리’의 문제에는 자기 책임을 덜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동시에 자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협업’의 과정을 거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과 귀찮음이 동시에 발견됨.

- (동아리 개설을 안내 해주는 곳이 따로 있어도) 아마 귀찮아서 안할걸요. 모임을 만드는 건. 그렇지. 나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자기가 특별하게 아, 나 이거 하고 싶다. 이러면 아무래도 부담 가죠. 그거 내가 주축이 돼서 내가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용기는 없죠. 있는 데에 가서 내가 딱 몸 하나 얹어가지고 하는 게 아무래도 더 편하고.

<B-3>

- 나도 거기까지 신경 쓰기 싫어. 여기 만들어 놓을 테니 와서 해주세요. 이래야지 하지. 내가 만들어가지고, 아니, 내가 뭐 돈이 목적이고 막 이러면 내가 그런 거 많이 만들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니까 거기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B-1>

- 정리해보면 기존의 생활예술활동을 경험해 본 예술적 소양이 있는 특정 전문가 혹은 집단이 공간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공간의 특징으로 언급된 ‘자율성’은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관리의 영역이 특정 예술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규칙’이 있어 모두에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책임은 ‘나’에게 지워지지 않는 형태의 주체를 상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돌아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공간이 하난데 원하는 사람이 10명이면 그걸 서로 어떻게 협의할 것이며 그런 게 하기가 그걸

관리할 중간 관리자 그걸 어레인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생겨야 되긴 하겠죠. 왜냐하면 공연장이 있는데 우리 여기 하고 싶어 우리 여기 설레요 했는데 한 시간 뒤에 갈 거야 하고 그냥 갔는데 누가 하고 있음 못하는 거고 그런 기본적인 룰? 언제, 일주일 전까지는 신청한다거나 기본적인 룰 같은 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책임자도 있어야 하는 거 같아요. 그게 자원에 맡겼을 때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다고 저는 좀 보는데 그리고 관리자가 있었을 때 원래 있었던 그런 문화센터라던지 이런 상황 같이 될 수 있지 않게 뭔가 그런 균형을 그 룰에서 만들 수 있을 거 같고.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같고. 공간만 덩그러니 있는데 예술을 즐기세요. 이렇게 하면 뭔가 힘들 거 같고 거기 뭔가 관리자들이 예술과 관련된 사람들, 경험자들이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유연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구요. 전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A-4>

- (관리자가 예술인이면) 한쪽 분야로만 몰릴 수도 있죠. 만약에 제가 하면 공예 쪽으로 몰수도 있을 거고 다른 팀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른 쪽으로 몰수도 있으니 그건 퍼센테이지를 나눠주든가 그건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운영회와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뭔가 운영위원회 같은. 총무의 총무가 있는 것처럼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1년 임기를 둔다고 해도) 1년마다 바꾸면 적응하자마자 바뀌어요. 1년이 지나자나요 그럼 새사람이 와서 적응하다가 끝나요. <C-4>

■ 주체의 역량에 예술적 소양이 있음이 포함됨으로서 새로운 생활예술공간의 등장은 앞서 문제로 언급했던 ‘출구 전략의 부재’의 한 해결책으로도 상상됨. 실제로 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들 중 일부는 이러한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본인이 맡을 수 있다고 응답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그러나 이 운영자의 고용 형태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의견 차이가 있음. 이미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취미의 형태로 생활예술에 머물러 있는 장년, 노년층의 경우 약간의 보조금이 지원되면 자원봉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개인의 예술가로서의 활동에 대한 인정과 성취의 욕구를 드러내는 반면 청년층의 경우 ‘완전 고용’ 형태의 노동의 문제로 이를 접근하는 차이를 보임.

- (기존 생활예술인 중) 자원봉사 이것도 완전 무료가 아니라 일부 조금 보조해주면 (공간 관리도) 할 수 있는 분 있을 것 같아요. <C-1>
- 만약에 생활문화라면 일반 그리고 신인들이 예술가 포함해서 신인들이 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도 취업도 시키고 관리할 사람도 뽑고 이러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정직원으로. <A-1>

■ 종합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공간이 24시간, 야간 및 주말에도 돌아가기 위해서는 실제로도 관리의 영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새로운 공간을 대신 관리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도 보고 있음. 또한 참여자들이 바라는 공간의 관리자는 예술적 소양이 있는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공간을 실제로 운영하고 기획하고 경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함. 그렇다면 실제 이 역량은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이 후에 이들을 어떻게 고용할 것인가, 그리고 고용의 형태는 어떻게 하는가, 혹은 고용이 아

나라면 어떻게 이 관리의 책임을 유지하게 할 것인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인가 등에 대한 기준들이 현 단계에서 함께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 공간이 만들어지더라도 적절한 홍보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주요한 포인트로 확인됨. 현재의 생활예술에 관한 홍보는 이미 기 참석자를 중심으로 한 홍보 위주로 진행되어 있어 새로운 참석자를 유인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음. 따라서 SNS 등 보다 빠르고 직관적인 형태의 온라인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거주 지역과 직장 등 활동 지역이 다른 청년층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정보를 얻는 장년, 노년층에 비해 거주지 주변의 생활예술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

- (사랑방 축제는) 가까운데서 보니까 축제가 되게 크고 좋은데 그 시청 반경에 오지 않는 사람은 홍보 이런 것만 보고 정확히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니까 그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A-5>

- 제가 이런 걸 관심이, 이런 걸 좀 알아보고 해야 하는데 누가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찾아보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중략) 그러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스스로 알아봐야 한다는 거 누군가가 입소문이나 이런 게 나있는 상태가 아니라. 또 저희 엄마만 해도 문화센터 이런데 가고 그리고 또 운동 같은 거 다니고 이러면 또래 아줌마도 많이 만나고 하면 그 속에서 입소문 나고 어디서 뭐 배운다더라 이런 게 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각자, 청년들은 각자 생활하고 거주는 여기서 하지만 실제 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타 지역에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화 주제가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잘 교류가 잘 안되는 거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A-3>

-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홍보 방식이 기존의 홈페이지 중심의 홍보 방식을 답습해서는 홍보 효과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미 온라인을 통한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보다 직관적이고 예술적이며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잘 만들어진 홍보가 아닌 이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디자인만 봐도 어떤 유형인지 어떤 색깔을 가지고 활동하는지가 느껴지니까 딱 보고 아 이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뭔가 마음에 안는다 그러면 보지 않고 아 이렇게 오픈되었을 때 뭔가 이들이 하는 뭔가가 느껴진다 하면 들어가서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A-1>

- 디자인이나 이게 딱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정보의 홍수 시대니까 그냥 싹 넘겨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카테고리 나눠서 하더라도 좀 그런 뭐랄까 홍보도 그 특정 계층에 맞춰서 오는게 오잖아요. 어 무슨 30대 초반 무슨 딱 무슨 초반. 몇월생 여성 이렇게 하면서 광고가 뜨잖아요. 어 내 개인정보인데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관심 있게 볼만한. 뭉뚱그려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않고 디자인적인 느낌도 고려해서 그냥 무심코 들어갔다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끌어들이 수 있는 감각적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A-5>

- 또한 청년 층 뿐만 아니라 후속 세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홍보의 영역을 구축하여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고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언급도 있음.

-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길게 보자면 청소년들 봉사시간 많이 따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일을 하든 안하든 오게 해서 보게 해서 일을 조금 조금씩 시켜서 어 이친구들이 어 이런 게 있네 그 사람들도 곧 있으면 청년이 되니까 아 내가 청년이 됐을 때 저런 동아리, 이런 것 해보고 싶다 그런걸. 저도 어릴때 잘 몰랐거든요. 저도 여기 OO 고등학교 나왔었는데. 그런 걸 지금부터도 계속 좀 인식개선 비슷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A-5>

- 종합하면, 현재의 홍보 전략은 이미 기존의 참석자를 위주로 공유되는 경향이 있으며 온라인 홍보 방식이 전략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간 및 장르 중심으로 이동하는 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홍보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 그리고 후속 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가 홍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됨.

2-3.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활용 경험 시사점

- ◎ 실제 생활예술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늘어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주민의 경우 만족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생활예술 참여에 대한 만족감은 지역 사회에 대한 만족감으로 연결되어 생활예술의 활성화 및 확대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보임.
- ◎ 그러나 기존의 공유공간은 이미 꽉 찬 형태로 새롭게 진입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 및 공간의 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생활예술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주말 및 야간의 시간과 공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기존의 공유공간은 ‘책임’의 문제와 ‘운영’의 문제로 인해서 확보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음.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공유공간을 이용하는 층은 한정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커뮤니티의 노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동아리 활동 역시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임. 동아리 활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 유입된 사용자의 활동은 증가하지만 새로운 사용자의 유입은 어려운 패턴을 보임. 새 동아리를 형성하기에도 정보의 이용이 어렵고 이미 공간 이용이 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인터뷰 참여자들은 기존 공유공간이 이미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새로운 생활예술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이 새 생활예술공간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24시간 열려 있으며, 1층 공간, 평지의 공간, 밀폐되지 않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공간은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되 체험 프로그램 및 동아리 프로그램 등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탐색의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순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 그러나 생활예술과 공유공간을 이해하는 세대 간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특히 청년층의 장년-노년층의 공유공간 점유에 대한 불만이 뚜렷하여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이 주어졌을 때 특정 집단이 공간을 점유하지 않고 유입과 퇴출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하거나 혹은 청년층과 같이 기존의 공유공간을 이용하기 힘든 세대에게 특정 점유 공간을 제공하는 방법 등 다양성을 고려한 공간 사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 또한 새로운 생활예술공간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예술적 소양 및 기획과 경영 역량을 모두 갖춘 특정 전문가 층을 길러내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공유공간을 위탁 운영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부의 작은 클러스터는 자율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기본적인 운영과 책임은 운영 주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차용하거나, 협의체를 통한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새 공간을 거치함에 있어서의 시간 및 예산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 이와 더불어 생활예술 이용에 있어서의 성별, 세대별, 생애주기별 시간 사용에 대한 기초 조사를 통해 기존 공유공간의 프로그램의 시간 비효율을 개선하고 새로운 공간의 프로그램 기획에도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더해질 필요가 있음. 새로운 공간의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 공간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마지막으로 장기간 자원을 활용해온 연차가 쌓인 생활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방향과 함께 후속세대가 들어올 입구에 대한 고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새롭게 제시되는 공유공간에 기존 생활예술인의 역량을 더한다거나 기존의 공유공간의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의 정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과 순환을 함께 만드는 전략이 있어야만 현재 커뮤니티의 노화를 막을 수 있고 새롭게 구성될 공간의 노화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음. 또한 적극적인 SNS 플랫폼 홍보를 통한 청년 세대의 구축과 함께 후속 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홍보도 고려하여 지속적인 순환 구조에 대한 설계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4부.
국내외 참고 사례 연구

1. 생활문화공간 사례 연구 - 해외

1-1. Art Scape (캐나다 사례)

◎ 기관 개요

- 창조적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creative placemaking)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leveraging arts and culture as a catalyst for community and urban development)이 기관의 미션임.
- 이를 위해 부동산 개발, 자산 관리, 공연 및 행사 기획, 지식 서비스, 예술 창업 지원 등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 주요 활동

- 연구 (Creative Placemaking Lab)
 - 예술 활동, 도시계획, 지역 협력, 재무 개선 등의 다면적 차원의 조사/연구 및 실험을 통해 창조적 공간에 대한 조성 및 활용을 위한 지식 서비스 개발을 담당함.
- 예술가(단체) 변호 및 대변
 - 지역 정부,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그룹, 건축 및 개발업 관계자 등과 함께 도시 계획 및 개발에서 예술과 문화의 역할을 대변하는 활동을 수행함.
 - 이를 통해 예술가(단체)가 토론토 내에서 안정적 거주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구축.

◎ 조직 구성

- Toronto Artscape Inc.
 - 아트 스케이프의 중앙 운영 조직으로 지주 회사에 비유할 수 있음.
 - 비영리 조직
- Toronto Artscape Foundation.
 - 자선 활동 조직으로,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교육 활동, 연구 활동을 진행함.
 - 비영리 조직
- Artscape Non-Profit Homes Inc.
 - [Artscape West Queen West]와 [Artscape Wychwood Barns]의 48개의 거주 시설에 대한 관리 조직.
 - 토론토 시정부와 체결한 사회주택 합의를 기반으로 설립 및 활동의 근거 마련.
 - 비영리 조직
- Regent Park Arts Development Inc.

- Daniels Spectrum building에 대한 법적, 재무적 운영 책임을 위해 아트 스케이프와 토론토 지역주택공사가 함께 설립한 조인트벤처.
- 비영리 조직
- Condo Corporations
 - 거주형 콘도인 [TSCC 2118]와 상업용 콘도인 [TSCC 2397]의 관리 운영을 책임지는 조직.

◎ 시설 예시

- [시설1] park dale centre
 - 지역의 폐 경찰서 건물을 공간 재생 프로젝트로 사용한 사례
 - 수익성 공간 임대 사업과 거주형 임대 사업을 병행
 - 작업실과 갤러리 보유
 - 건물의 소유권은 토론토 시정부에 있으며, 아트 스케이프에 임대

[그림 22] park dale centre 사진



[그림 23] park dale centre 운영 정보 요약 (Art scape 홈페이지 공개 내용 참조)

Fast Facts

Development Facts

Opened: 1998

Pre-occupancy (development) cost: \$300,000

Former site: Police station built in 1931

Affordability model: Below-market rental (commercial and residential)

Building Ownership Detail: Owned by the City of Toronto, leased to Artscape

Building Details

Area (square feet): 13,000

Spaces included: Nine live/work studios, three offices, one gallery

Tenants: Gallery 1313, Kababayan Community Centre, Parkdale Business Improvement Area, Parkdale Arts & Cultural Centre Community Board, private studio residences

Building accessibility: Not wheelchair accessible

Partners

Developer: n/a

Design: Joe Lobko (now DTAH)

Did You Know?

In the basement of this building is an old vault that cannot be opened (Artscape has no clue what's inside).

■ [시설2] Wychwood barn

- 트램 열차의 차고지 건물을 재건축하여 사용
- 거주형 스튜디오와 작업실, 식물원, 갤러리, 공연장, 임대용 사무공간으로 구성
- 사회보조주택 및 시장가격 이하의 임대 사업을 진행
- 토론토에서 최초로 친환경 건물을 인증(LEED)를 받음
- 건물의 소유권은 토론토 시정부에 있으며, 아트 스케이프에 **50년간** 임대

[그림 24] Wychwood barn 사진



[그림 25] Wychwood barn 운영 정보 요약 (Art scape 홈페이지 공개 내용 참조)

Fast Facts

Development Facts

Opened: November 20, 2008

Pre-occupancy (development) cost: \$23 million

Former site: TTC streetcar repair facility constructed in 1913

Affordability model: Rent geared to income residential, below-market rental (commercial)

Building Ownership Detail: Owned by the City of Toronto and operated by Artscape under a 50-year lease. Artscape Non-Profit Homes Inc. administers the residential component of the Barns as part of its arrangement with the Canada-Ontario Affordable Housing program and the Affordable Housing Office of the City of Toronto. The City of Toronto Parks, Forestry & Recreation operates the park and space surrounding three sides of the Barns.

Building Details

Area (square feet): 60,000

Spaces included: 26 artist live/work studios, 12 commercial /office spaces, 1 greenhouse, 1 art gallery, 1 event venue (in Barn 2)

Tenants: See website directory

Building accessibility: Fully accessible by Ontario standards

Partners

Developer: The Dalton Company

Design: Joe Lobko

Did You Know?

This was the first redevelopment project in Canada to receive LEED Canada certification.

■ [시설3] West Qween west

- 창고 및 통조림 공장 건물을 재생하여 사용
- 아트 스케이프의 초기 창조 공간 조성 프로젝트 중 하나
- 거주형 스튜디오와 작업실, 갤러리로 구성
- 사회보조주택 및 시장가격 이하의 임대 사업을 진행
- 건물의 소유권은 토론토 시정부에 있으며, 시정부와 사회주택 협약을 통해 아트 스케이프가 운영권을 가짐

[그림 26] West Qween west 사진



[그림 27] West Qween west 운영 정보 요약 (Art scape 홈페이지 공개 내용 참조)

Fast Facts

Development Facts

Opened: October 20, 1995

Pre-occupancy (development) cost: Not available

Former site: Warehouse/cannery built in 1906

Affordability model: Rent geared to income (live/work), below-market (commercial)

Building Ownership Detail: Owned and operated by Artscape Non-Profit Homes (ANPHI) under the terms of a social housing agreement with the City of Toronto.

Building Details

Area (square feet): 35,520

Spaces included: 22 live/work studios, five work/commercial studios, one gallery, one tenants' garden

Tenants: Graven Feather Studio, Toronto Blues Society, William Oldacre Fine Art Print Studio, private studio residences

Building accessibility: Not wheelchair accessible

Partners

Design: Joe Lobko (now DTAH)

Did You Know?

Of the 800+ facilities under the umbrella of the [Housing Services Corporation's](#) Utility Management Program, 900 Queen Street West is the oldest, and predates the organization itself.

Look up and you'll see a metal sculpture on the roof of 900 Queen by artist Mitchell Fenton that's part of a two-piece set. The companion piece used to sit atop Artscape Liberty Village, but when that project closed, we moved it to the roof of Artscape Gibraltar Point in 2015. These art objects "speak" to each other and help to unite the Artscape community.

■ [시설4] Gibraltar point

- 토론토 섬 내에 있는 폐교를 작업실로 재생
- 레지던시 아티스트를 위한 공간으로 시장가격 이하의 임대 사업을 진행
- 건물의 소유권은 토론토 시정부에 있으며, 시정부와 사회주택 협약을 통해 아트 스케이프가 운영권을 가짐

[그림 28] Gibraltar point 사진



[그림 29] Gibraltar point 운영 정보 요약 (Art scape 홈페이지 공개 내용 참조)

Fast Facts

Development Facts

Opened: 1999

Pre-occupancy (development) cost: \$75,000

Former site: Public school (the Toronto Island Public and Natural Science School, part of the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Affordability model: Below-market rental (commercial)

Building Ownership Detail: Leased to Artscape by the City of Toronto

Building Details

Area (square feet): 35,000

Spaces included: 15 work studios (long-term), 10 bedrooms and studios (for short-term residencies), and five multi-purpose spaces

Tenants: 17 long-term studio residents, see website for details

Building accessibility: There are ramps into the building, and large restroom stalls with handles on site.

Partners

Developer: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Design: n/a

Did You Know?

The rather quaint name for the artist residency program at Artscape Gibraltar Point was the "Artscape Lodge." This moniker still pops up from time to time.

■ [시설5] Distillery Studio

- 창고 및 통조림 공장 건물을 재생하여 사용
- 임대 스튜디오, 사무공간, 공연 공간 등으로 구성
- 수익형 임대 사업을 진행
- 사유 건물이며, 아트 스케이프가 20년간 운영권을 가짐

[그림 30] Distillery Studio 사진



[그림 31] Distillery Studio 운영 정보 요약 (Art scape 홈페이지 공개 내용 참조)

Fast Facts

Development Facts

Opened: May 8, 2003

Pre-occupancy (development) cost: \$3 million

Former site: The Case Goods Warehouse (built 1928) and the Cannery Building

Affordability model: Below-market rental (commercial)

Building Ownership Detail: Privately owned; operated by Artscape under a 20-year lease

Building Details

Area (square feet): 50,000

Spaces included: 10 retail studios, 20 office spaces, 3 rehearsal/performance spaces and 27 artist work studios (60 overall)

Tenants: See the [Historic Distillery District website](#)

Building accessibility: All floors can be accessed by wheelchair; washrooms and signage not fully accessible

Partners

Developer: Cityscape Development Corporation

Design: Zeidler Grinnell Partnership Architects

Did You Know?

Artscape used to run a bookstore located within the retail studios on the first floor of the Artscape Distillery Studios!

◎ 재정 구조

- 아트 스케이프 그룹 내 연차보고서가 제공되는 3개 조직의 2017년 결산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음.
- 아트 스케이프 Inc. (모법인)

[그림 32] Art Scape Inc. 2017년 손익계산서

Toronto Artscape Inc.

Statement of operations

Year ended December 31, 2017

	Notes	2017 \$	2016 \$
Revenue			
City of Toronto – operating grant		415,000	415,000
Provincial grant		74,608	140,813
Program and other grants		1,837,494	1,535,563
Rental income		3,716,511	3,528,781
Venue income		2,487,133	2,557,424
Creative Placemaking Lab		400,216	547,099
Management fees and project recovery		903,003	928,973
Interest and other		30,464	58,215
Gain on sale of assets		—	267,345
Property tax refund		291,391	—
Amortization of deferred capital contributions		453,802	508,631
		10,609,622	10,487,844
Expenses	14		
Property expenses		2,364,677	2,245,589
Salaries and benefits		2,309,690	1,772,242
Property rent		586,621	556,026
Interest on long-term debt		571,577	589,957
Venue expenses		1,863,826	1,973,437
Creative Placemaking Lab		348,068	390,342
Realty taxes		807,147	634,212
Administration and contract fees		706,077	1,123,144
Contribution to Toronto Artscape Foundation		—	200,000
Amortization		1,046,829	997,778
		10,604,512	10,482,727
Excess of revenue over expenses for the year		5,110	5,117

- 가장 주요한 수입원이 임대 수입으로 총 수입 1천만 달러 중 35%에 해당함
- 다음으로 큰 수입원은 운영 공간에서의 수익행위(물품 판매, 입장 수입 등으로 추정)로 23.5%에 해당함
- 주정부와 시정부의 보조금은 4.6%로 전체 수입 중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함
-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정부 및 시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장기 임대 및 운영권을 협약 형태의 기초 위에서 보장받는 것을 통해 기관의 기틀을 구축하는 운영 전략을 가지고 있음.

■ 아트 스케이프 Inc. (자선 재단)

[그림 33] Art Scape Foundation. 2017년 손익계산서

Toronto Artscape Foundation

Statement of operations and changes in fund balances

Year ended December 31, 2017

		2017						2016
Notes		General fund	Artscape Youngplace	Artscape Launchpad	Daniels Spectrum	The Sidra Project	British Columbia Artscape	Total Note (9)
		\$	\$	\$	\$	\$	\$	\$
Revenue								
	Foundations	—	—	250,000	503,572	—	25,000	778,572
	Private and other donations	131,601	255,000	193,300	300,000	—	—	879,901
	Fundraising and events	476,637	—	—	—	105,957	—	582,594
	Expense recovery	—	—	—	—	—	—	—
		608,238	255,000	443,300	803,572	105,957	25,000	2,241,067
Expenses								
	Programming	173,507	—	—	79,913	48,406	—	301,826
	Administrative salaries and benefits	100,932	—	—	—	33,926	—	134,858
	Professional and consulting fees	53,919	—	—	—	18,124	—	72,043
	Office and fundraising costs	82,881	—	—	—	5,501	—	88,382
	Other shared costs	25,000	—	—	—	—	—	25,000
	Bad debt	12,000	—	—	—	—	—	12,000
		448,239	—	—	79,913	105,957	—	634,109
Disbursements to								
	Regent Park	—	—	—	453,659	—	—	453,659
	Arts Development	—	—	—	—	—	—	—
	Toronto Artscape Inc.	154,369	255,000	443,300	270,000	—	25,000	1,147,669
		154,369	255,000	443,300	723,659	—	25,000	1,601,328
	Excess of revenue over expenses for the year	5,630	—	—	—	—	—	5,630
	Fund balances, beginning of year	329,306	—	—	—	—	—	329,306
	Fund balances, end of year	334,936	—	—	—	—	—	334,936

The accompanying not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 financial statements

- 사업별 결산을 하고 있음.
- 수익금의 구성하는 3대 축이 고른 편성을 보이고 있으며, 재단 전입금, 기부금, 기타 모금 활동 수입으로 구성되어, 공공보조 없는 독립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있음.
- 재단 전입금이 30%를 조금 넘는데, 이는 모법인의 부동산 개발 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통해 재단 재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함.

■ 아트 스케이프 비영리 주택법인 Inc. (주택 사업)

[그림 34] ANPHI Inc. 2017년 손익계산서

Artscape Non-Profit Homes Inc.

Statement of operations

Year ended December 31, 2017

	Notes	2017	2016
		\$	\$
Revenue			
City of Toronto Social Housing subsidy - regular		324,528	389,449
Affordable Housing Program ("AHP") mortgage subsidy		93,178	93,178
Due to City of Toronto	6	(15,542)	(95,582)
Net subsidy	6	402,164	387,045
Less allocated to Capital reserve fund	7	(41,616)	(44,759)
		360,548	342,286
Rental income - Market units		216,424	170,419
Rental income - Rent-g geared-to-income units		168,973	213,519
Interest and other		5,368	3,719
		751,313	729,943
Expenses			
Property expenses		229,981	211,548
Mortgage interest		136,346	144,188
Realty taxes		58,070	57,631
Administration and contract fees		70,761	69,122
Amortization		255,170	246,720
Other		—	585
		750,328	729,794
Excess of revenue over expenses for the year		985	149

The accompanying not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 financial statements.

- 전체 수입금 75만 달러 중 시정부 순수 보조금은 40만 달러 정도로 54%에 해당
- 나머지 수입금은 사회보조주택 임대료 수입 및 공간 임대 수입
- 전반적으로 시정부와 사회주택 협약을 통해 운영하는 공간에 대한 임대 수입만을 수취하는 조직이기에, 모법인의 임대 사업 수입에 비해 규모가 작음.
- 공익성 주택사업으로 볼 수 있음.

1-2. 영국 사례

◎ [민간 기관] 메이킹 뮤직 (making music / <https://www.makingmusic.org.uk>)

■ 기관 운영 개요

- 영국 내에서 음악 단체 및 뮤지션을 지원하는 민간 지원 조직으로, 1953년 결성되어, 3,500개의 그룹, 19만 명의 회원을 지원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기관의 전체 수입 621,329GBP 중 11.2%를 기금에서 충당하였으며, 72.4%를 회원 기부금 및 유산 후원 등으로 충당함. 지출 602,784GBP 중 19.6%는 사업비로 지출되었고, 48.7%는 인건비로 지출함.

■ 활동 내용과 특징

- 전체 멤버십 회원 중 14% 정도가 촉진자(promotor)인데, 이들은 음악 전문가가 없는 지역의 음악 동호회에 전문 인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함.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기획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메이킹 뮤직에 소속된 소규모의 민간 음악 동호회들의 재정 구조에서 정부 지원은 미미한 수준. 이것은 독립성 유지를 위한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전문 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영국 정부와 Art council의 지원 정책의 특징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이 미미한 민간 음악 단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자원에 대한 정보, 단체 경영을 위한 노하우 공유 및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등이 필요한데, 메이킹 뮤직은 이 영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지원 조직(umbrella body)임.

■ 정부의 간접 지원 영역

-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단체의 독립성과 주인의식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발적 음악 활동 촉진을 위해 비재정적 지원, 간접 지원의 영역이 중요함.
- 악보 지원 : 음악 활동을 위한 악보 구입은 소규모 민간 음악 단체에게 지속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담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뮤직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악보를 대여하고 있음.
- 공간 임대 : 지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함.

■ 기타 참고 사항

- 기획자, 촉진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정부가 지원하는 매니지먼트 전문 과정이 다양하게 제공됨, 예술경영 교육의 일환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매개하고 촉진하는 인력의 전문적 역량을 키우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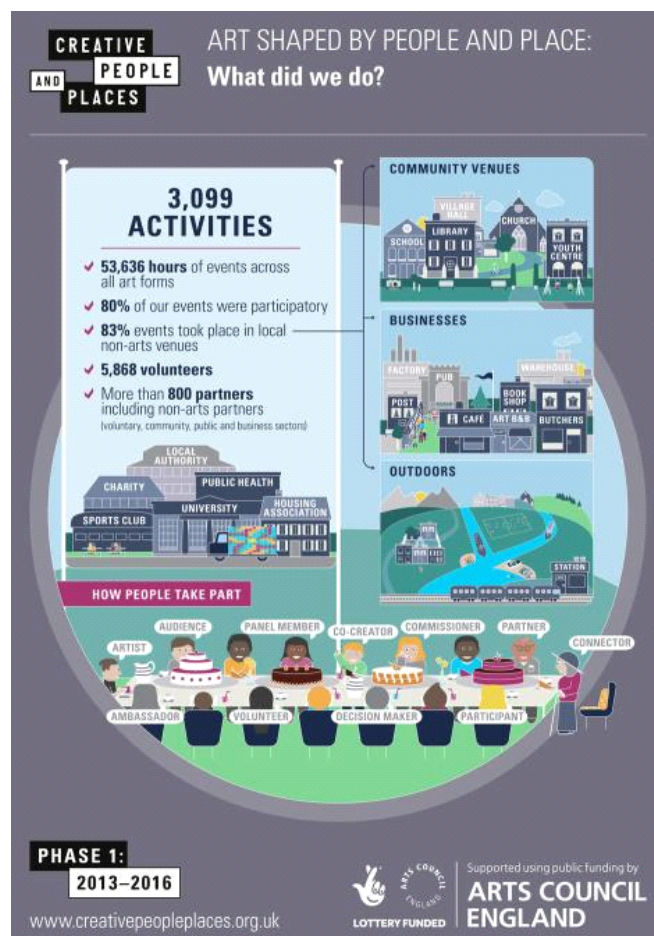
■ 진행 배경 및 개요

- 전문예술 중심의 집중 지원이 아닌 문화예술 소외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참여 촉진 지원을 위한 접근법으로, 지원을 겸한 Action-research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음.
- 현재 21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한화 63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90억 가량이 추가 지출 예정. 4천 회의 예술 활동이 진행되었고, 800개 이상의 지역 협력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 활동에 참여한 누적 집계는 대략 200만 명으로 추산함.

■ 특징 및 시사점

- 주로 문화예술 소외 지역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 이는 예술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주로 지원하던 영국 예술위의 지원 정책에서 ‘지역’이 지원 대상이 된 혁신적인 사례임.
- 지원 대상이 지역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문화예술 활동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문화 예술을 부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임.
- 지역이 스스로의 필요를 발견하고, 기획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됨.

[그림 35] Creative People and Place 프로젝트 개념도



1-3. 기존 해외 사례 연구 발췌 요약

- ◎ <성남형 문화공간 개발 및 운영전략 연구(2016)>에서는 지역 내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전략의 참조 사례가 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음.⁶²⁾ 여기에서는 기 연구된 해외 문화공간 사례를 설립배경, 운영방식, 프로그램 및 공간 운영 내용 측면으로 분류하여 재정리하였음.

[표 26] 해외 지역 문화공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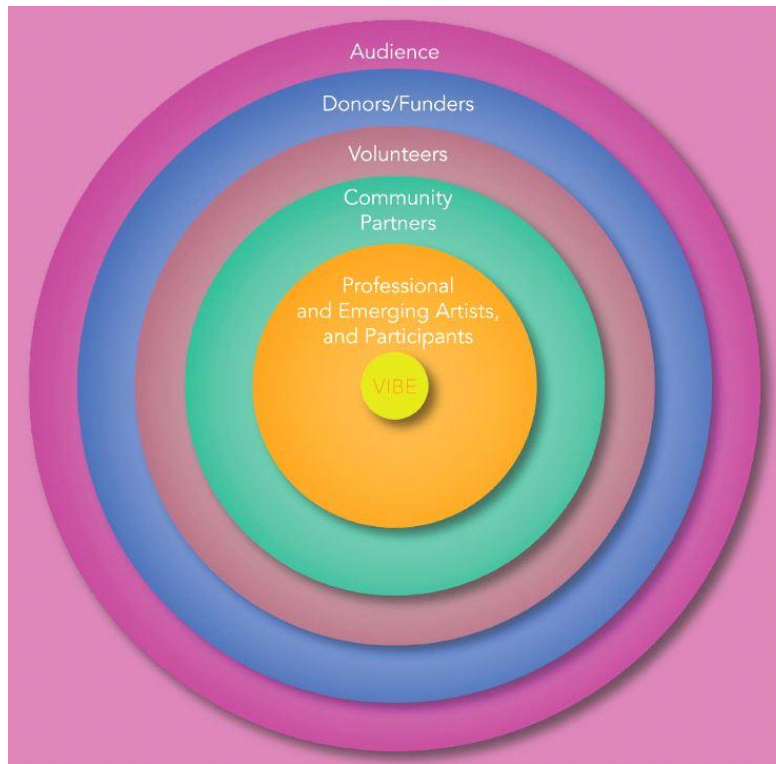
시설(기관)명	운영 방식 및 내용	
CABLE FACTORY (핀란드) https://www.kaapelitehdas.fi/en/info	설립 배경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세계적인 휴대폰 제조회사 노키아(Nokia) 사의 옛 제품 제조공장 부지를 1991년, 헬싱키 시 정부가 인수하여 세운핀란드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 공간임
	운영 방식	• 헬싱키 시 산하 독립 기관이 운영(민관협력) • 입주 단체 및 기관들은 비영리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 및 NPO가 많으며, 이들에게는 무상으로 공간 제공 • 호텔, 레스토랑 등의 상업 시설도 있으며, 이들에게는 유상으로 공간 임대 • 총 입주 시설 및 기관 320여개 • 공적 지원은 거의 없으며, 수입의 대부분은 시설 임대비로 충당함
	내용	3개의 뮤지엄, 10개의 갤러리, 콘서트홀, 댄스 씨어터, 창작 공간, 예술 학교 및 예술단체 사무공간 등이 있으며, 문화예술행사가 연중 진행됨.
시부야 대학 (일본) http://www.shibuya-univ.net/	설립 배경	도쿄의 도심 한복판 시부야 거리 전체를 학습무대를 활용하며 활동하고 있는 시부야대학은 2006년 <NPO시부야대학네트워크>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일반인 대상 평생학습기관
	운영 방식	• NPO의 자율적 운영 구조 • 운영 조직은 있지만, 별도의 시설(캠퍼스)을 보유하지 않고, 시부야 내 각종 명소 및 거점 공간, 야외 공간 등을 교육장으로 사용 • 시민 대상 강좌는 무료 제공 • 수익원은 시부야 소재 기업 대상 교육 사업, 지역 언론 광고 대행 수수료, 시부야서비스 공사의 사회교육 위탁사업비 등
	내용	생활예술, 시사, 인문학, 지역학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관련 전문가 및 유명인 등을 초빙하여 강의 형태로 진행함.
비베 아츠 (캐나다) https://vibearts.ca/	설립 배경	1995년 캐나다의 토론토시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비베 아츠는 지역 공동체의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기관
	운영 방식	• 민간 독립 기구 • 재원 구조는 각종 공공 기금으로부터 보조, 개인 및 기업 후원금이 중심이며, 프로그램 제공은 무료로 진행
	내용	• 3세에서 29세까지의 대상에게 시각예술에서부터, 댄스, 드라마, 음악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 2002년부터 지역 사회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교육을 전문으로 전개하기 시작, 전문 아티스트와 함께 학교를 비롯하여 커뮤니티 센터, 공동주택, 병원, 도서관, 쇼핑 몰, 공원, 소년원 에서 아웃리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음

62) 엄광현 외, 「성남형 문화공간 개발 및 운영전략 연구」, 2016, 성남문화재단. 86-90p 참고.

시노 아트 (홍콩) http://sinoart.com/en/home/index	설립 배경	시노 아트(Sino Art)는 홍콩의 대표적인 부동산 기업, 시노 그룹(Group Sino)이 지역 문화와 예술을 진흥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 설립한 문화예술사업기관.
	운영 방식	공간 운영이 아닌, 공공미술 및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기업 CSR 차원에서 진행하는 형태
	내용	- 공공미술 프로젝트 (벽화 등) -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아티스트 전시 지원 등
우파 파브릭 베를린 (독일) https://www.ufafabrik.de/en	설립 배경	우파 파브릭은 독일 베를린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옛 유니베르쥔영화회사(Universum Film Aktien Gesellschaft, UFA)의 촬영소를 1979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술가 공동체 마을
	운영 방식	- 설립 초기부터 공동체 펀드 조성을 기반으로 시작했으며, 크지 않은 규모의 재정적 자원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우파 파브릭을 만들었음. - 대략 5천6백여 평의 공간에서 도시 내 공동체 마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주 및 이용 시설
	내용	- 우파 파브릭은 젊은 아티스트의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지역문화와 국제교류활동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문화센터와 사회복지, 건강, 가정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상담해주는 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생활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일 생활의 균형 속에서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삶을 실험하고 훈련하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타치카와 창작사 (일본) https://tachikawa-sozsha.jp/	설립 배경	일본 도쿄의 외곽지대에 위치한 위성도시, 타치가와시의 2004년, 폐교가 된 타마카와 초등학교 부지에 2012년, 설립된 문화공간
	운영 방식	- 타치가와시의 위탁을 받은 NPO법인 아트네트워크재팬(NPO Arts Network Japan)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지역 미디어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및 공간 대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함
	내용	- 젊은 아티스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레지던시 공간이 있으며, 입주 작가와 협력하여 주민 대상 연극 교육 등의 생활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이외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자전거 교육 및 전국적 동호회의 허브 역할을 수행함.

- ◎ <성남형 문화공간 개발 및 운영전략 연구(2016)>에서 제시된 해외 사례 중 캐나다의 비베아츠는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특화된 생활문화시설인데, 기관이 누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대해 [그림 36]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 기관 운영의 핵심 서비스 대상자는 전문적이면서 유망한 예술가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그룹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 파트너 그룹,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으로 이해관계자 그룹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논골마을공동체에서 주민 조직을 6단계로 분류하여 그에 적합한 관계 맺기 전략을 펼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설의 운영 전략을 이해관계 대상별로 명세화한 것이라 볼 수 있음.

[그림 36] 캐나다 <Vibe Arts>의 이해관계자 그룹 다이어그램



1-4. 해외 사례의 시사점

◎ 생활문화 공간의 질적 토대로서의 예술가의 역할 및 예술을 매개로 한 주민 다양성의 수용

- 캐나다 Art Scape의 경우 토론토 중심 지역에서 예술가가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주/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기관의 핵심적인 미션이자 사업임. 이는 예술가의 존재와 활동이 지역의 문화적 활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그 자체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예술가의 거주 및 작업 시설에는 갤러리, 공연장 등 개방 공간이 함께 있어, 예술가-시민의 접점이 만들어짐.
- 이것은 단순 강좌형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등이 생활문화의 주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시사하는 점이 큰 부분인데, 심화된 활동을 통한 만족을 추구할 수 없는 프로그램과 공간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떠나서 참여자의 흥미와 활력이 점차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낮기 때문.
- 예술가의 존재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사유와 활동의 경계를 확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성남문화재단 <2017 생활문화공동체 성과평가연구> 생각모임에서 언급한 서울댄스프로젝트의 ‘경계를 넘는 감각’에 대한 서술이 이와 같은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 간의 소통 및 접점의 형성은 지역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상호 경험하고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통과 다양성을 경험하고 수용하게 한 생활문화공간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지역 공동체의 허브가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커뮤니티센터나 공공도서관이 이루지 못한 성과였음.⁶³⁾

◎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매개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

- Art Scape이 조성에 참여한 Parkdale 센터의 경우 폐 경찰서 공간이 생긴 상태에서 지역 정부, 지역 상인, 거주민 등 지역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 있었음.
- 이런 상황에서 Art Scape이 지역 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의 비전을 구성하는 역량을 발휘하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공동의 비전은 공공과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설득력 있는 지역의 구체적이고 선명한 요구로 형태화됨. 이것이 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유휴 공간을 지역 사회를 위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사용하는 실질적인 동력이 됨.
- 이는 도시재생, 지역 주민의 문화권, 상권 및 부동산 개발 이슈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고, 협상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 혹은 전문 매개 그룹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사례임.⁶⁴⁾

63) 토론토 Parkdale 센터 조성 과정에서의 성과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HRku0bCACL8&feature=youtu.be>

64) 위 영상 참조

◎ 법적, 제도적 기반을 통한 장기적 운영 계획 및 전망의 토대 조성

- 생활문화 거점 공간을 지원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는데, 캐나다 Art Scape 사례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 보다는 공간의 운영권을 시정부와의 협약에 의해 상당히 장기간 확보하는 방식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운영 중인 공간 중 최장으로 운영권이 보장된 공간은 50년간 Art Scape가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제도적 토대는 해당 공간에서의 활동들이 축적되어 공간의 정체성이 서서히 확립되고, 이것이 다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공간의 활력의 토대가 되는 방식으로 선순환 할 수 있는 정도의 긴 호흡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줌. 즉, 문화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형성되고 축적되는데 필요한 시간 단위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상품 소비 등의 영역보다 훨씬 오랜 세월이 걸리는 역사적 활동이라는 점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임.
- 또한 자율적인 운영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적 측면에서의 부침을 모두 경험하면서 운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작동과 협력의 계기 만들기, 이를 통한 운영의 노하우 축적 등이 모두 필요한데, 10년 단위 이상의 장기간 운영은 이러한 실질적인 경영의 흥망성쇠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단위라는 점도 주목해야하는 지점임.

2. 생활문화공간 사례 연구 - 국내

2-1. 국내 생활문화시설의 종류와 설치 현황

-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 중 법률, 조례 등의 운영 근거를 가지고 조성/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종류와 구분은 아래와 같음.

[표 27]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양현미 외, 「2017 생활문화센터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지역문화진흥원, 2017. 11p)

구분	상세 분류
「문화예술진흥법」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문화시설	▪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 도서관(도서관, 문고) ▪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 종합시설 ▪ 창작공간
「평생교육법」 제 21 조 및 제 21 조의 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 평생학습관(시군구) ▪ 평생학습센터(읍면동)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 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 지역자치센터(공공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을회관(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생활문화센터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미디어시설 ▪ 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

[표 28] 문화원 및 문화의 집 설치 현황

(양현미 외, 「2017 생활문화센터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지역문화진흥원, 2017. 15p)

지역	문화원	문화의 집	
		2016	2017
서울	25	8	5
부산	14	1	-
대구	8	-	-
인천	8	1	1
광주	5	4	4
대전	5	3	3
울산	5	4	4
세종	1	-	-
경기	31	11	9
강원	18	10	6
충북	11	8	7
충남	16	7	6
전북	14	11	12
전남	22	5	4
경북	23	7	6
경남	20	16	15
제주	2	18	18
총계	228	114	100

[표 29] 생활문화센터 설치 현황

(추미경 외,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 연구보고서」, 지역문화진흥원, 2018. 79p)

지역	생활문화센터	역할*		공간형태		운영주체		
		거점형	생활권형	독립형	공동형	주민	직영	위탁
서울	3	3	0	3	0	0	2	1
부산	15	7	8	5	10	0	14	1
대구	10	4	6	3	7	2	4	4
인천	8	3	5	5	3	0	4	4
광주	8	5	3	1	7	1	2	5
대전	3	2	1	0	3	0	3	0
울산	3	1	2	2	1	0	3	0
세종	2	0	2	1	1	0	2	0
경기	16	9	7	6	10	2	3	12
강원	11	6	5	5	6	1	3	7
충북	3	2	1	3	0	0	1	2
충남	9	4	5	2	7	2	3	5
전북	16	7	9	6	10	0	5	11
전남	10	3	7	3	7	2	5	3
경북	9	6	3	6	3	2	2	5
경남	10	1	9	6	4	6	1	3
제주	6	0	6	2	4	6	0	0
합계	142	63	79	59	83	24	57	63

[표 30] 주요 생활문화시설 비교

(양현미 외, 「2017 생활문화센터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지역문화진흥원, 2017. 17p)

항목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시행연도	1996년	1947년	2014년
현황	100개소(2017년 기준)	228개소(2016년 기준) 2012년부터 신설 문화원 없음	142개소 (2018년 기준)
주요기능	국민문화복지 증진,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 극복,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별 거점문화센터 조성	향토사연구, 실버문화프로그램 공급	개인, 동호회 등을 위한 연습 및 발표 공간 제공
	도시형, 농어촌형 등 지역적 구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문화수요창출 등	주민커뮤니티 공간, 공연장 제공을 통해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
공간규모	100평 내외, 소규모 유희공간 사용, 주민들의 생활공간 가까이에 있음	-	센터 유형별로 공간 규모 상이함
공간구성	문화관람실, 문화시청각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정보자료실	-	마주침 공간, 공연장, 연습실, 동아리실 등을 기본으로 함
특징	개인 위주의 공간이 많음 공동체 공간이 적음	평균 문화원마다 1-2개 이상의 동아리 운영	동아리 위주의 공간이 많음. 마주침 공간과 같이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간 있음. 각종 문화예술프로그램 제공
운영	전문 운영자 및 기획자 부재, 공무원 등이 시설 관리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관리 및 운영	지자체, 재단, 주민자치운영회 등
주요사업	문화강좌	향토사 연구, 전통문화예술프로그램 등	지역 동아리 공간지원 사업,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

2-2. 법정 생활문화시설 운영 현황 및 특징

◎ 생활문화센터

■ 생활문화시설로서의 법적 근거

- 문화부 고시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 시설의 미션 및 비전이 지역 주민의 삶에 밀착되는 생활예술시설로서 자율적 운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고시 및 지방 정부/기초지자체 조례에서도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최소 규정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법적 지원틀을 갖추고 있음.
- 하지만 이와 같은 느슨한 규정이 사실상 시설의 단단한 토대가 되지 못하는 양날의 칼이 되는 측면도 있으며, 지역의 상황에 맞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별 조례의 상이함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 방향 수립의 어려움이 되는 측면이 있음.

■ 운영 형태

- 직영, 위탁형, 주민자율형으로 나뉘며, 시골 지역일수록 주민자율형으로, 도시 지역일수록 위탁 혹은 직영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인건비 지원 기간의 2년 미만이라는 제한이 있음.
- 이러한 제한은 지역이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주민조직을 가지고 있거나, 장기적인 정책 사업 수탁 등을 통한 운영 구조의 안정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 경우, 사실상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이라는 매개자 역할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2년 단위로 유실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운영 내용

- 주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원의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사업>, <생활문화센터 운영지원사업> 등을 통해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문화의 집

■ 조성 근거와 변화

- 명확한 법령이나 조례가 미비한 상태에서 1996년부터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조성되기 시작함. 조성 초기 중앙정부 차원에서 600억의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함.
-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지자체 소관으로 넘어감. 이후 운영비만 중앙정부에서 복권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2007년에 운영비 지원도 중단되면서 예산 부족의 어려움에 봉착함.
- 지방 정부로의 이전 자체가 틀린 방향은 아니나, 당시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고, 특히 지방정부에 따라 인식과 이해의 차이가 커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역 분권화의 방향이었다기보다는 지방의 역량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의

지원을 중단하여 사실상 고사되는 방향이 되었음.

- 이는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한 법적 보호 장치 부재와 지역 역량의 미성숙이라는 상황적 조건에서 지방 이전이 낳은 부정적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조성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100개소인데, 2016년에서 불과 1년이 경과하는 동안 14개소가 줄어든 수치이며, 이는 2007년 최고치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주는 결과임.
- 일부 문화의집은 생활문화센터로 정체성을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에 문화의집과 생활문화센터의 비전 및 미션이 유사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음.
-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생활문화센터는 최소한이나마 법적/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지만, 문화의집은 관련 근거가 없다는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음.

■ 운영 형태

- 주로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형태인 것으로 추정됨.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7)>에 따르면 문화의집 운영 인력은 통상 2~3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확인은 어려움.

■ 운영 내용

- 당초에는 생활권 문화시설로서의 차별적 정체성을 추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단순 강좌형 프로그램을 저비용으로 수강하는 시설 정도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지역 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리/비영리 문화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의 강좌형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문화원

■ 법적 근거

- 1965년 <지방문화사업 조성법>을 통해 국가 지원의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현재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을 근거 법령으로 하고 있음.
- 법령의 의거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라는 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운영 형태

- 근거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형태로 사실상의 공공 직영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정부 지원금 외 운영 수익을 통한 자체 자금을 확보하여 필요한 재정을 일부 충당하고 있음.

■ 운영 내용

-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등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문화원의 내용은 향토사 연구, 향토 문화자원 발굴 및 사업화 등의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향토사대중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실버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 중에 있음. 특히 어르신 문화사업은 문화원의 대표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음.
- 하지만 고유 기능 외에 일반 문화센터 역할로서의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도 상당한 비중이며, 특별히 도시 지역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짐.

2-3. 기타 국내 생활문화시설 사례

◎ [서울] 마을예술창작소

■ 조성 배경

- 마을예술창작소(마술소)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함.
- 마술소 공식홈페이지(<http://artmasulso.net/>)
- 현재 총 지원 기간 5년이 지나 정책지원에서 졸업한 1기 마을예술창작소에서부터 1년차 6기 마술소까지 서울 지역 마을예술창작소 전체 분포에 대한 구글 지도가 만들어져 공유되어 있음.
- https://www.google.com/maps/d/viewer?mid=1jdB_PEKlvAfeDDaGrIrklbwbuRg4dwk9&ll=37.53057283721891%2C127.05398570063494&z=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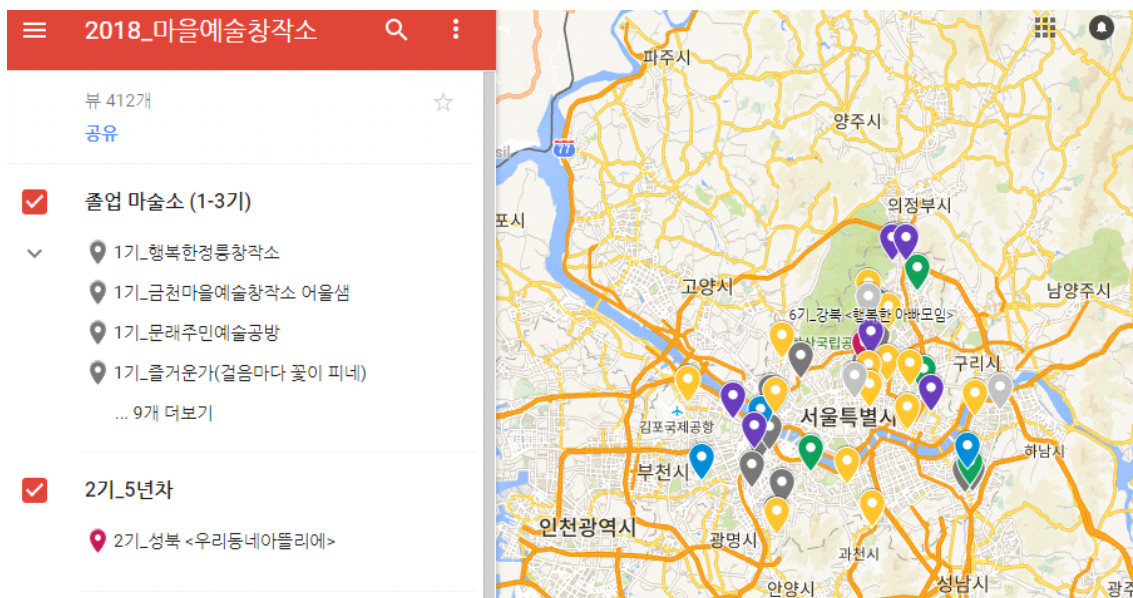
[그림 37] 서대문구 마을예술창작소 <닷라인TV>



[그림 38] 송파구 마을예술창작소 <다락>



[그림 39] 마을예술창작소 구글 맵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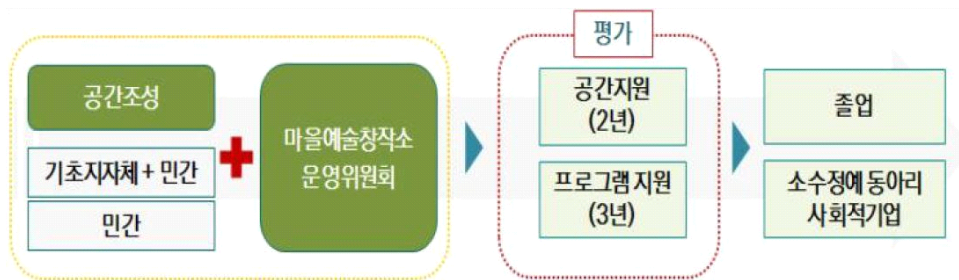


■ 운영 방식

- 마을예술창작소는 유휴 공간 혹은 민간 공간을 생활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민-관이 협의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이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각 공간별 일상적 운영에 대해 공공이 개입하지는 않으며, 주민들 스스로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치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각 공간별 운영 규칙도 공간의 특징 및 조건에 따라 상이함.

[그림 40]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개념도

(추미경 외,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 연구보고서」, 지역문화진흥원, 2018. 95p.)



- 다만 마을예술창작소 선정 후 5년의 지원기간 동안 매해 운영 평가를 통해 연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됨.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평가 진행)
- 생활문화예술 공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문화예술 주민 동아리 혹은 사회적 기업 형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연착륙을 가이드함.
- 특징적인 점은 지원 사업 졸업 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운영 과정에서 일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임.

◎ [경기도] 창생공간

■ 조성 배경

- 시민과 작업자가 함께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방이자 실험실’로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을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수용하면서 2016년부터 시작되었음.
- 특별히 생활예술이라는 키워드가 아닌 ‘생활기술’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면서 ‘제작 공간’이라는 컨셉을 분명하게 표방하면서 시작함.
- 창생공간 홈페이지(<http://mmse.kr/work5>)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개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현재 10개의 창생공간이 수원, 성남, 안양, 남양주, 오산 등의 지역에서 조성되어있음.

[그림 41] 창생공간 <생활적정랩 빼꼼> - 발효키친 제작 특화



[그림 42] 창생공간 <재미> - 목공, 도예, 리사이클링 제작 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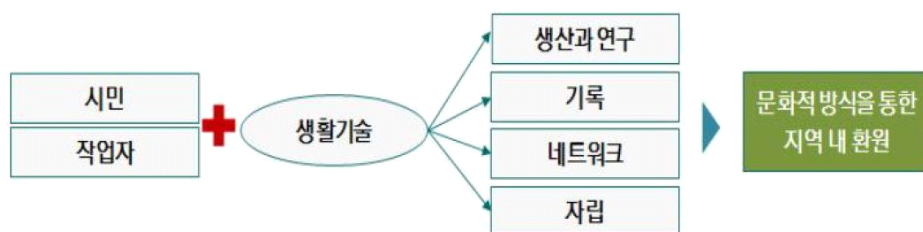


■ 운영 방식

- 민간에서 공간 운영의 계획과 역량을 갖춘 문화기획자 그룹이 유휴 공간 또는 민간 공간을 발굴하여 경기문화재단 창생공간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조성하고 있음.
- 선정된 참여 그룹에게는 3년간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1년차에 최대 6천만 원의 공간 리서치 및 조성 지원금이, 2~3년차에는 공간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가 지원됨.
- 서울의 마을예술창작소와 마찬가지로 지원사업 종료 후 자립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판로 지원,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음. (수익 사업 가능)

[그림 43] 창생공간 조성 및 운영 개념도

(추미경 외,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 연구보고서」, 지역문화진흥원, 2018. 97p.)



◎ 전주시민놀이터

(<http://www.dongmunst.com/korean/SubPage.html?CID=pages/civil01.html>)

■ 시설 개요

- 장 소: 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38(한국전통문화전당 동쪽 출입구)
- 공간현황: 지상 3층(전체면적 : 995㎡)
- 공간운영 : 연중(휴관일: 1월1일, 설, 추석당일) / 24시간
- 공간구성
- 1층 : 운영사무실, 떠들공간(토크카페), 회의공간, 배려공간(장애인 연습장)
- 2층 : 소리 중심의 방음 연습장 7개소
- 3층 : 모듬공간(다목적 연습장-마루바닥), 창작 연습장(미술, 사진 등) 4개소

■ 조성 배경

- 전주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의 거점공간으로 기획/조성되었음.

[그림 44] 전주시민놀이터 -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운영 방식

- 참여형 회원제를 통한 시민 자율 운영 (조성은 전주문화재단 주도로 진행함)
-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회원제 운영을 하며, 개인의 5천원, 단체를 1만원으로 연 회비를 받고 있음.
- 그 외 장소 대관에 따른 사용료를 시중의 공간 대여 비용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받고 있음.
- 시민예술활동을 위한 연습 공간으로서의 용도가 주를 이루며, 전시 및 교류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그림 45] 전주시민놀이터 대관현황판 - 시설 1층에 있음

전주시민놀이터 대관현황												
2 월		회의 공간							모듬 공간			
2 짜주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	세미나실	303호	304호	
월(5)		온세미19							한빛북19			맥 18
화(6)					한빛북10 해금리온18				맥 9-18			BE 18
수(7)		한빛북19 한빛북19	한빛북19	한빛북19			한빛북19		근로기 10 한빛북20	맥 19		
목(8)												
금(9)		한빛북17 한빛북20							한빛북19			
토(10)		디얼터 13			해금리온18				마윈드 12 맥 15	맥 9-15		
일(11)							한빛북19		한빛북17	CFC 10	CFC 10	

○ 대관공간은 행사 시 내부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 대관방법 : 홈페이지(지.사.연.연) 접수(영기(대관, 수시(대관)) ○ 대관시간 : 1월 31일 3시 30분(정기(대관)은 정해짐)

- 야간의 경우 사전에 대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개방하여 운영함.
- 사용자의 자율 관리 방식을 취함으로써, 상시 운영 인력(혹은 야간 운영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더는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운영 방식은 추가 조사가 필요함.

2-4. 국내 사례 시사점

- 국내 사례는 크게 법정 생활문화시설과 민관협력으로 조성 또는 운영하는 시설로 나눌 수 있음. 이 중 조성 방식 및 정책적 지원의 방식 등에서 볼 때 서울시가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한 마을예술창작소(마술소) 사례를 본 연구의 주요 참조 사례로 꼽을 수 있음. 전체 사례 및 마을예술창작소의 세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공간의 실질적인 운영 권한의 부여
 - 법정생활문화시설인 문화원과 문화의집은 공간 운영 권한의 측면에서 볼 때, 실질적인 운영의 주체가 공공 혹은 협회 등의 공공 위탁 조직이었음. 즉, 이 공간에서 주민은 이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지, 공간의 운영을 위한 권한을 가지는 능동적 운영주체는 아니었음.
 - 가장 최근에 조성된 생활문화센터는 지자체 직영, 민간위탁형, 주민자율형 3가지의 운영 형태를 가지는데, 대부분이 지자체 직영과 민간위탁형이며, 일부 주민자율형이 있음. 주로 도심 지역에서는 지자체 직영 및 문화재단에의 민간위탁형이 다수며, 주민자율형은 마을회관 등을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한 농촌형이 주를 이룸⁶⁵⁾. 생활문화센터 사례에서는 공간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여전히 공공 기관 중심이긴 하지만, 주민자율형의 경우처럼 주민이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의 권한을 확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과도기적 시도와 형태라 할 수 있음.
 - 서울시가 민관협력 방식으로 조성한 마을예술창작소의 경우에는 위의 법정 생활문화 시설과 비교할 때, 주민이 실질적인 공간의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전면화 된 사례라 할 수 있음. 마을예술창작소의 경우 공간 조성에서부터 민관 협력 혹은 기존 민간 시설의 용도 전환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며, 공간을 운영은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위원회라고 부르는 주민 조직이 담당하는 방식을 취함. 즉, 공간의 이용자와 운영자가 분리되지 않고, 활동과 권한이 일치되는 것이 특징임.
 - 전주의 시민놀이터의 경우에는 공공이 직접 조성한 시설이지만, 생활예술 동아리의 연습 공간 지원이라는 시설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회원제 기반으로 이용자의 자율 운영/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 사례는 공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조정 등의 운영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간의 조성 후 이용자 중심의 자율 운영 방식으로 사실상의 위임을 하여도 위험 요소가 별로 없다는 측면에서 참조해볼 수 있는 사례임.
 - 이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문화원, 문화의집 등 공공의 직접적인 조성 및 운영이 특징이던 과거의 생활문화 시설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운영의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즉, 공간의 이용과 운영에서의 권한/책임을 이원화하지 않고 통일하는 것이 추세이자 특징임.

65) 추미경 외,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 연구보고서(2018), 지역문화진흥원, 80p.

◎ 장기 지원, 단계별 지원 및 출구 전략

- 살펴본 국내 사례 중 공공기관 직접 운영이 아닌 민간 지원 중 마을예술창작소가 가장 장기간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음. 마을예술창작소는 조성 시점을 기준으로 최장 5년간 지원을 하는데, 이는 공간의 운영 노하우가 쌓이고, 공간을 중심으로 관계망이 형성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음.
- 해외의 사례 중 캐나다 Artscape의 사례 역시 통상 20년에서 최장 50년까지 공간의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해당 공간들이 단순히 문화예술 이용 시설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 공동체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캐나다의 사례처럼 수십 년의 지원 보장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 공간 조성의 경우 문예회관 등의 전문예술시설처럼 이미 전문화된 기능과 생태계를 불러 모아서 시설을 운영하고 미션을 성취하는 것과 달리 전문기능화 되어있지 않은 주민의 삶의 다양성이라는 조건에 공간이 적응하면서 최적화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함.
- 마을예술창작소의 사례는 5년이라는 지원 기간 내에서의 단계별 지원 방식에서도 주목할 영역이 있음. 마을예술창작소는 초기 2년은 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이후 3년은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사업 선정 및 조성 개시 연도 내에 공간을 오픈하고 유형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내야하는 급박한 사이클과 행정 성과에 공간이 끌려 다니지 않고, 충분히 조성하고, 안정적 조성이 끝난 후에 운영을 고민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준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긴 호흡과 단계별 지원 방식은 논골작은도서관 조성 과정에서의 그림자 시간의 사례와 유사한 경우로 성공적인 생활문화공간 조성에서 유사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마을예술창작소의 경우 다년간 지원을 위한 중간 평가에서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는 배제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정예 생활예술 동아리로의 전환 혹은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지원하는데, 이는 각 지역에서의 공간별 모델이 지역 및 이용자의 조건에 맞춰서 성장/진화하는 과정을 존중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이처럼 단일한 이상적 모델 혹은 평가 방식의 제시가 아닌 다양한 출구 전략, 안착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생활문화공간 정책이 반드시 생활문화‘공간’으로 결실을 맺지 않더라도 지역 내 다양한 시민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실패의 틀을 넘어선 유연한 정책적 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5부.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전략

1.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조성 방향

1-1.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의 의미

- ◎ 1부 <연구의 배경>에서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이 변해온 흐름과 그것의 현재적 키워드인 생활문화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2부에서는 그러한 맥락 안에서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의 시도, 성과, 보완점 등을 확인하였음. 3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의 요구와 사례에 대해 확인하고, 4부에서 국내외의 참조 사례를 정리하였음.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인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의 통시적, 공시적 위치와 정당성,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은 내용적으로는 순수예술 중심에서 생활예술로, 실현 방법론에서는 보급 중심에서 향유 중심을 거쳐 문화권이라는 기본권 개념으로, 공간적 측면에서는 대형 문화예술회관 및 미술관/박물관 정책에서 생활SOC 개념으로 전환되어왔음을 볼 수 있었음. 이런 흐름에서 현재 문화정책의 최전선에 위치한 생활문화는 개인의 실질적인 삶의 영위 공간과 시간과 관계의 측면에서의 ‘일상’ 개념, 보장방식에서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핵심 축으로 하고 있음.
- ◎ ‘문화권’을 토대로 한 ‘생활SOC’라는 개념의 정립은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인프라를 조성하려던 파편적이고 산발적인 노력을 명확한 방향으로 종합하는 효과가 있음.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의 구현화 방안은 크게 2000년대 들어서 ①폐교 등 시설 재생을 통해 복합문화공간 거점을 조성하려는 시도, ②작은도서관, 소규모 문화예술 공간 등에서의 지역 공동체 만들기 시도, ③관공서나 민간시설 등의 유휴공간/시간을 활용해 생활권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등으로 나타났었음.
 - ②와 관련해 전위적인 공동체 활동은 작은 도서관이 확산 보급되면서 일반화되는 측면이 생겨나고, 2010년대 마을 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도심 생활권의 우수한 주민센터 등에서도 주민교류 및 생활문화를 복합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감.
 - ③과 관련해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지역 내 유휴공간을 열어 아마추어 동호회를 위한 사랑방 공간 체인을 조성하려던 밑그림이 있었음. 서울시에서도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서비스예약⁶⁶⁾을 선보인 바 있음. 그러나 접근성 높은 생활권 내 작은 문화공간 보급이라는 비전은 거점형 공간에 비해 쉽사리 구현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음. 주인이 이미 있는 시설의 시간과 공간을 잘라 쓰는 방식으로는 문화 활동이 지속되기 어려웠고,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문제로 공간 기부자를 찾기도 어려웠음.
 - 2012년 서울시는 생활권 내 주민 문화예술 전용 공간이 마을예술창작소를 선보

66) <http://yeyak.seoul.go.kr>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임.⁶⁷⁾ 마을예술창작소는 문화의 집, 작은도서관 활동 등에서 이어져온 주민 주체의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생활 초근접권에 소규모 문화 전용 공간을 설치했다는 점에서 앞선 시도들의 장점을 종합하고 발전시킨 성격이 강함. 또한, 지역 곳곳에 분산된 보급형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 위주 센터나 거점형 복합문화공간들과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거점 공간의 설계 및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촉진됨. 꾸준히 지적되어 온 프로그램의 중요성 뿐 아니라, 주민의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의 설계 개념이 언급되기 시작함. 예를 들어,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센터나 전주시민놀이터 등은 처음부터 주민 교류 및 다양하고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

■ 더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의 문화도시 정책 지정심의 기준에 ‘지역주민 문화활동 참여확대 및 촉진 가능성’, ‘문화전문인력이 활동 또는 정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포함⁶⁸⁾되는 등 생활권 문화공간에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펼쳐지는 중임.

◎ 즉,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은 지금까지 연구되어 왔던 다양한 생활문화 공간의 의미를 승계하는 것임. 때문에 공간의 의미보다는 구현의 방법에서 성남은 어떤 전략적 방향을 취해나갈 것인가가 향후 주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음.

67) <http://artmasulso.net/> 서울특별시 마을예술창작소 홈페이지

68) 문화관광부,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2018. 5. 15p.

1-2. 사업 추진체계 혁신 및 체계화의 중요성

- ◎ 구현 방법론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를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음.
 - ①생활문화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틀
 - ②문화권에 기반한 사업 추진 방법론
 - ③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구현 방법론
- ◎ ①제도적 기틀에 관해서는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기초적인 토대가 마련된 상태이며 이러한 상위법에 따라 성남시에서 마련한 제도 현황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함. 본 보고서에서는 ②와 ③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함.
- ◎ 우선 ②사업 추진 방법론에서 문화권에 기반한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이라는 문제가 기존의 관료적이고 관습적인 사업 추진 체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며, ③구체적인 공간의 구현 방법론은 별도로 논하겠음.

(1) 문화권과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추진체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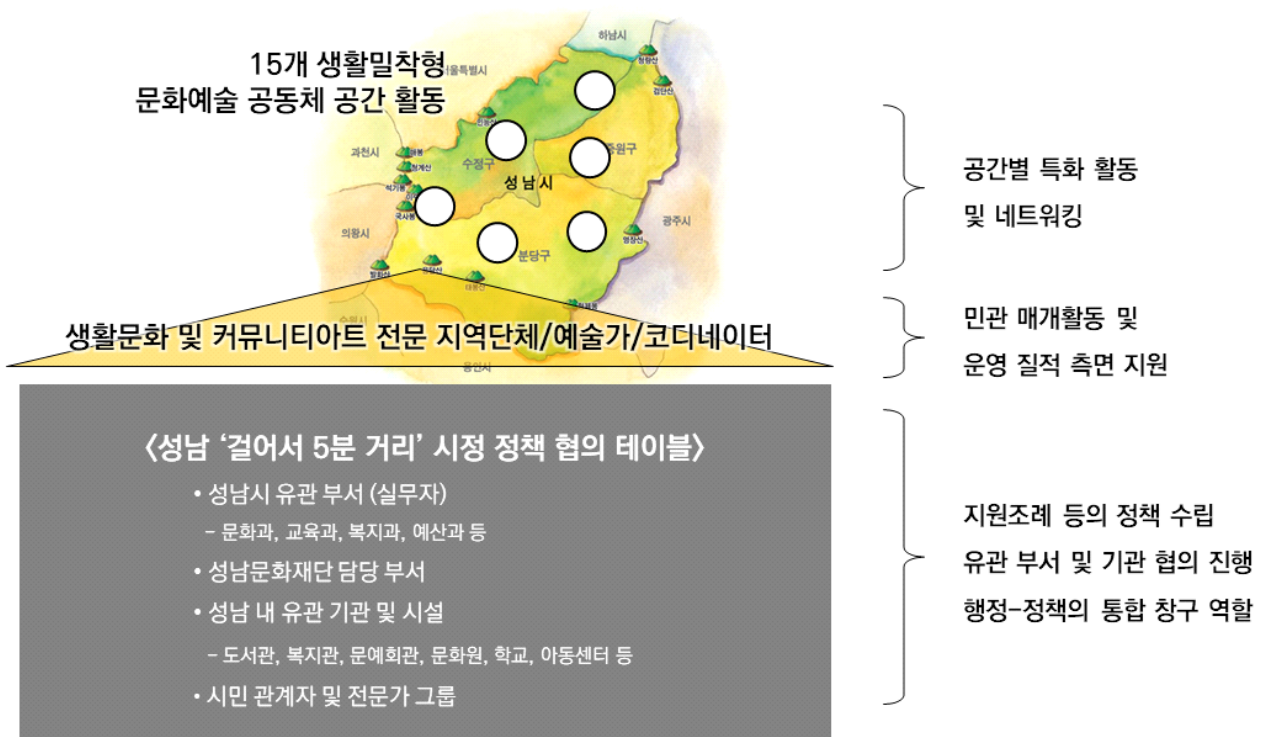
- ◎ 생활권 즉, 일상의 개념이 추진체계와 연관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일상이 기능적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임. 정책과 이를 구현하는 행정체계는 교육, 보건복지, 문화예술, 치안, 건설, 예산 등으로 기능적 전문화를 이루어왔음. 하지만 개인의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문화예술 차원의 성취와 교육적 성장이 하나의 활동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뤄지기도 하고, 공동체를 기반으로 경제적 자원을 공유하는 동시에 지역 내 삶의 안전이라는 비공식적 복지를 경험하기도 함. 즉, 사람의 일상은 대학의 세부전공이나 행정의 세부 기능처럼 따로 떼어 관리할 수 없는 총체적 존재 양식임.
- ◎ 이 부분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시사점은 개개인의 삶에 대한 정책적, 행정적 지원의 성과를 분절적으로 편성된 예산과 추진체계에 맞추려는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임. 즉, 행정이 삶에 대해 성과를 진술하게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삶의 다면성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 행정이 필요로 하는 성과를 발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임.
- ◎ 이는 앞서 정리한 한국에서의 문화예술 정책의 흐름이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기본권 개념으로 전환되어온 것과도 관계가 있음. 공급자 중심 정책은 보급 성과를 가시화하는 방법을 통해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해왔음. 행정 차원에서 관람객수, 이용자 현황, 가동률 등을 집계하면 정책 보급/확산의 모습과 정도를 잉크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가시화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이러한 지표들은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체계에서 타 영역과 구별되는 자기 영역의 성과를 확인하기에도 유용한 방식임.
- ◎ 하지만 주민의 성장, 관계가 펼쳐지는 양상, 문화예술 활동의 질적 측면 등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이 둘을 운용하는 틀로서의 운영체계 문제를 누락하고 있던 기존 성과 평가에 최적화된 현재의 정책적, 행정적 추진체계는 생활문화 공간 인프라가 확대되는 추세 위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음.

(2) 성남문화재단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체계 개념

- ◎ 종합해 보자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의 구현과 작동에서 사업 추진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은 사업 성패의 주요 관건임을 알 수 있음. 구체적인 관계도와 권한, 책임, 협력 방식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체계의 요소별 관계와 역할을 개념화 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임.

[그림 46] 성남 생활문화 공간 조성 추진체계 개념도



- ◎ 위의 추진체계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함. 하나는 행정부처 내 유관 부서 사이에, 그리고 협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유관 기관 사이에 협의테이블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임. 특히 시의 행정 부서 간에서는 생활문화 공간, 혹은 운영 주체에 대한 개별적인 개입이 아닌 협의된 통합 창구를 구성하여 현장 운영의 혼란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함.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조성 외에도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태평동 구한전부지 등 4~5개의 문화공간 관련 논의 주제가 재단에 개별화된 사업 형태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임.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들이 추진 구조와 추진 주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통합적 방향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대부분의 공공공간에 대한 소유권이 지자체나 교육청에 있어 문화재단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기도 어려움.

- 마을 문화공간이나 문화예술단체의 문화공간 등 민간 공간들은 파편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자치적인 힘으로 움직이는 곳이 상당수라서 네트워크를 위한 협의테이블의 구성이 필수적임.
- 문화재단 내부 이슈로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을 주도하는 문화기획부 내부 역량과 자원의 문제가 있음. 무엇보다 문화기획부의 규모가 민관협치 형태의 15개 공간을 아울러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음.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과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역시 일종의 민관협치 형태였는데 두 사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벅찬 상황임. 전체적인 사업의 재조정, 문화사업부 등 콘텐츠를 들고 있는 타부서와의 협력 연계 체계, 민간 전문 기구의 활용 등 다각도에서 이 해결방안을 검토해봐야 함.

- 이러한 모델은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캐나다 토론토의 Artscape 사례와 유사함. Artscape는 지역 내 예술가의 지속 가능한 활동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유무형의 토대 위에서의 생활문화를 조성하고 있음. 이를 위해 시정부, 주정부의 유관 부서, 토론토 주택공사, 기타 민간 기부 조직 등과의 협의회와 조율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Artscape 스스로 적극적인 조율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걸맞은 권한을 행사함. 이를 통해 행정,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이슈에 대해 Artscape 차원에서 조율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임. 영국의 중간지원조직(Umbrella Body)도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민과 관의 협치 구조의 경험이 오래 축적된 곳들에서 주로 발견되는 체계로 보임.
- 다만 캐나다와 영국 등에서의 중간 지원조직이 5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지원 체계와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매개 역량을 키워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시간에 이와 같은 체계가 안정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
- 이상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사업 추진 체계를 세우는데 있어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시정공약의 철학에 따른 시 차원의 추진 로드맵 위에서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 다양한 종류와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 생활문화 관련 시설들의 협의체를 통해 정책 방향성과 사업 중복 문제 등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함.
-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시나리오를 크게 2방향으로 검토해 보자면, ①성남 전체 생활 SOC 전략 일괄 추진을 위한 시 차원의 부서 간 협치체계 마련과 사업 통합창구 개설 ②지자체 각 부서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의 생활 SOC 추진 현황을 상호 간 파악하여 중복 정책을 최소화하고 주요 아젠다를 설정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되 추진체계는 개별 기관 및 단체에서 개별 구축하는 절충적 방안을 생각

해 볼 수 있음.

- 생활문화의 철학적 측면이나 향후 지속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①과 같이 일괄적인 전략을 세워 현장에 하달하는 방식보다는 ②와 같이 일종의 민관 연대 기구를 구축하고 각 현장에 필요한 사업 결정 및 실행 권한은 현장 스스로 주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임.
- 성남문화재단에서 2월 공간 전수조사 연구를 시작하는데 이 조사결과는 성남시 전역의 문화공간을 중앙 차원에서 재배치하고 조정하는데 활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문화공간이 운영되는 실태 위에서 15개 공간을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함.

2.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구현 방법론

2-1. 정책 프레임 워크의 문제

(1) 15개 공간의 구조적 관계

- ◎ 구체적으로 성남문화재단의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조성 계획은 2019년 2개소의 운영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2021년까지 차츰 15개소까지 확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2개 공간이 먼저 개소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서는 15개 공간에 대한 로드맵 구상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 로드맵을 15개 공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체성 측면과 공간 간 구조적 관계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현재 세워진 계획은 관계의 형태에 집중하고 있는 편임.
 - 계획서는 15개소를 거점형, 준거점형, 생활밀착형으로 위계화하고 있는데 거점형 공간의 역할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파편적으로 흩어진 공간을 종합적으로 묶어주는 관리 기능 등 전반 운영에서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 위계를 세워야 한다면 이러한 거점 시설은 공동체 공간이기보다는 중간지원조직의 모습을 띠게 될 것임.
 - 연구 과정을 공유하고 공간 조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기획부와 함께 논의 테이블을 열었을 때 확인한 바로는 이 같은 구분이 역할보다는 공간 규모에 따른 것에 가깝다고 함. 즉, 15개소 안에 생활권에 밀착된 소규모 마을형 공간 뿐 아니라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도시 문화재생 관련 대형 공간을 포함할 여지가 있다는 뜻임.
- ◎ 현재 계획에서의 15개소 공간의 구조적 관계는 공간들을 묶어주는 통합적 정체성, 지역 특성에 따른 실체적 필요 위에서 구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때문에 2개소를 먼저 시범 사업의 성격으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수집될 구체적 현장 정보,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른 사업의 수정·보완 과정에 대한 사업 주체들의 합의가 중요함.

(2) 통합적인 공간 정체성의 문제

◎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공간 정체성의 문제

- 향후 조성될 공동체 공간의 규모 차이가 공간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망했을 때 생활문화 공간이 지금까지 지향해왔던 주민 주체의 존재, 주

민 간 교류 환경, 문화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하고 주민 주도적인 활동 내용 등의 궤도에서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전반적 경향을 수용하는 동시에 성남 지역의 특성을 녹여낼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성과평가 조사 결과 및 참여자들 인터뷰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성과평가 및 생활문화공동체 참여자들 인터뷰로부터 알 수 있었던 주요 시사점은 생활문화공동체로 진입하기 위한 “징검다리” 과정이 없다는 것임.
- 생활문화공동체는 진입 후부터는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힘이 강하지만 진입 자체가 매우 어려움. 진입이 어려운 이유는 파편화된 시간 사용, 공동체의 고령화 및 고착화, 주변 사람이 제공하는 생활문화정보 부족 등이 있음.
- 특히 30~40대의 시간이 부족해 참여가 어려우며 이들을 위해서는 생활권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 보임.
- 공동체의 고령화 및 고착화는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현재처럼 운영위 중심으로 단단하게 결착된 공동체 멤버십을 기반으로 사업을 풀어나가게 될 경우 신규 진입자들의 설 자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성남 생활문화 공간 정체성의 핵심

: 탐색과 교류를 위한 시공간 및 프로그램의 경험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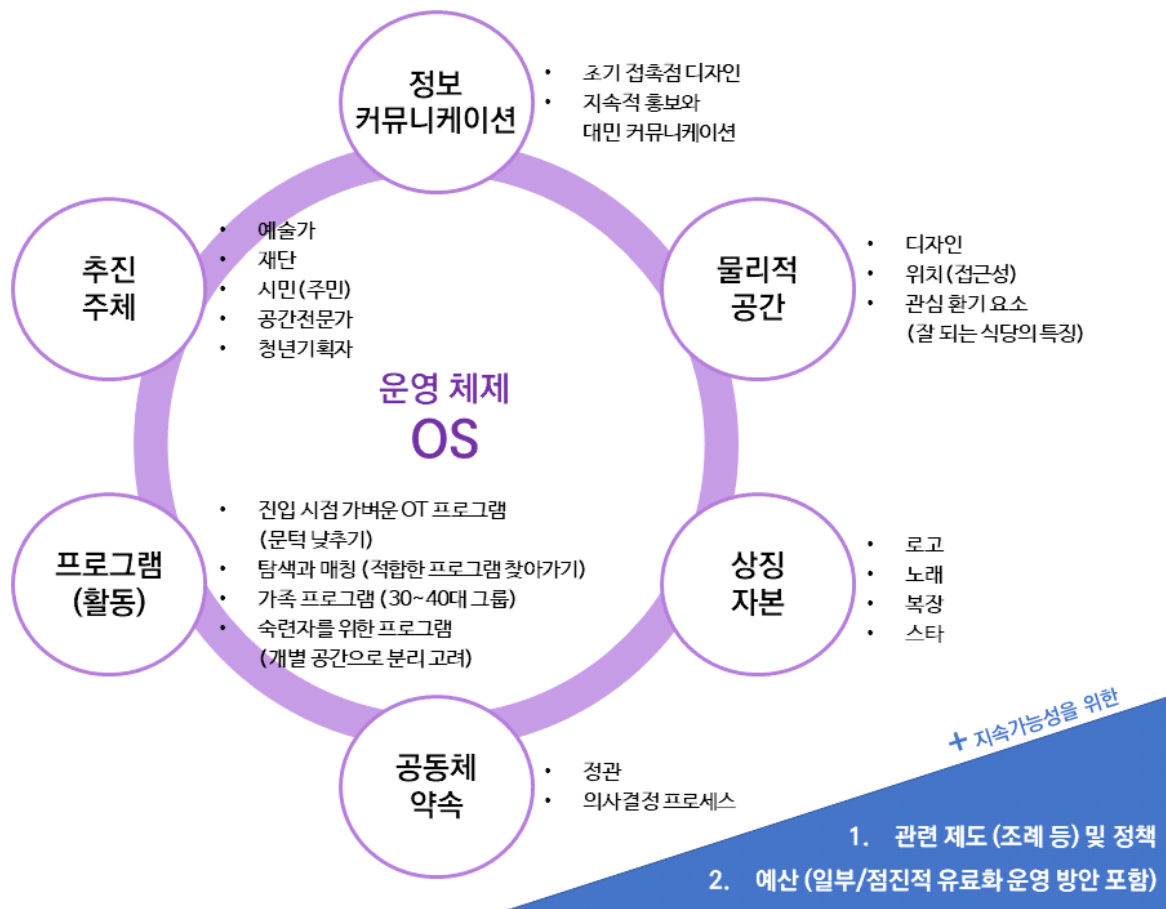
- 생활권 문화공간이 징검다리 공간이 된다고 하면 이 공간에서는 다양한 탐색이 일어나야 함.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전에 호흡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자리, 기존 생활문화공동체의 숙련 위주 과정이 아닌 일상을 새롭게 환기해볼 수 있는 문화예술 경험을 나누고 느끼는 자리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프로그램의 질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프로그램이 생활권 문화공간의 성장 및 정체성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어야 함. 성과평가 결과에서 사업 참여를 지속시키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창의적 학습>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2-2. 분산 공간의 공통성과 개별성 (운영체제 가이드)

(1) 공간 운영체제의 공통 뼈대

- ◎ 여러 개의 공간은 지역의 에너지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띄어갈 것임. 예를 들어, 육아 부모가 많은 곳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성장해나갈 것임. 그러나 기본적인 공간의 운영 골격은 통일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기본 운영 골격의 수립은 전문 행정, 건축, 문화기획의 융합된 역량이 필요하고, 이렇게 세워진 안정적 구조물 안에서 주민들이 더 자유로울 수 있음. 또한 사업의 가치적 측면에서도 하나의 브랜드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
- ◎ 아래 그림은 개별 공간을 구성해 나갈 때 고려해야 할 보편적인 운영 요소들을 나누어 본 것임. 추진 주체와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다루었고, 그 외 정보 커뮤니케이션, 상징자본, 공동체 약속 등의 문화적인 요소들이 개별 공간의 내용과 분위기, 활동 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비물질 자본이 될 것임. 이러한 요소들 역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해 공통적 뼈대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림 47]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의 공통 운영 골격



(2) 개별 공간의 운영모델 유형화

- ◎ 공간의 구현 및 작동에서 공통 운영체제는 일종의 운영 가이드가 될 것이며, 개별 공간별로 실제 운영 내용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도 있으며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에 대한 특수한 요구가 나타날 수도 있음. 이에, 성남문화재단이 그동안 축적해 온 생활문화 자원을 토대로 구현 가능하며 사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개별 공간 운영모델 유형을 도출해보고자 함.

가) 전략모델 (R&D 모델)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세대 문화의 차이 뿐 아니라 생애주기적으로도 중장년과는 결이 많이 다르고 요구하는 활동 내용도 다름. 이처럼 특수한 대상 및 주제를 다루는 생활문화의 전위적/전략적 실험 공간은 향후 생활문화 발전을 견인하는 R&D 요충지가 되어줄 수 있음.

나) 민관협치형 모델 (시민/주민 성장형 모델)

최근 생활문화 공간들이 주로 지향하는 운영 모델로 시민/주민이 자치권을 가지고 공간과 함께 구성적으로 성장해나가는 특징이 있음. 시민/주민협의체 등 민관협치 프로세스가 근간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공간 사용자의 유입을 위한 다양한 생활문화 탐색 활동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구성원이 건강하게 순환하는 생태계 형성이 최종 목표가 될 것임.

성공적인 생활문화 공간 중 공간을 구성하는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공간의 사용 목적을 논하고 그에 따라 리모델링을 주민, 기획자, 예술가가 결합해 진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음. 자치와 문화예술 활동을 융합하면서 생활문화를 낯설게 느끼는 초보자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 같은 방식이 공동체의 형성 및 구성원 순환에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됨.

다) 대관모델 (시민/주민 자율 활동 모델)

전주시민놀이터는 생활문화동호회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대관하고 연습할 수 있으며 24시간 운영되는데, 이 같은 시민 대관 모델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등을 통해 활동 중인 숙련자들에게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연습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동시에 민관협치 모델보다는 운영 자원이 덜 소요되는 효율성이 장점임.

라) 허브형 모델 (지역 네트워크 모델)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생성된 작은 문화 공간 및 자율적으로 생겨난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공간을 엮어주는 지역 모델. 예를 들어 태평동의 작은 문화공간들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태평동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공간 간 연합을 통해 마을 문화예술 활동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동사무소 등 기존 생활형 기관에서 운영 중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직/간접적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 기대함.

마) 소프트웨어 결합 모델 (공간/프로그램 운영 재조정 모델)

새로 공간을 조성하는 것 뿐 아니라, 기존 공간의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를 재조정함으로써 새로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모델. 문화재단은 그 역할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급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요구를 발판삼아 재단이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에 대한 컨설팅 및 사업 지원을 하는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음.

2-3.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검토 이슈

(1) 공간 이용계약의 문제

- ◎ 공간을 일단 조성하는데 성공하더라도 해당 공간이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도전적 문제임.
- ◎ 현장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조성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가임.
 - 토론토의 Artscape는 토론토시 소유 건물을 50년으로 임대받았고⁶⁹⁾ 국내에서도 자퇴 청소년의 문화적 학습을 위해 조성된 서울시립청소년직업센터(일명 하자센터)의 경우 영등포에 위치한 동일 시설을 근 20여 년에 걸쳐 재위탁 받고 있음.
 - 그러나 많은 현장에서 민간과의 공간이용 계약관계 뿐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 등과의 계약관계에서도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음. 임대 계약기간 이후 공간 이용 불투명으로 장기적 차원의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시설이 매각되는 경우,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공간 활용 정책 노선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⁷⁰⁾, 민간 소유 공간인 경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함.
- ◎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테이블이 열렸을 때 이러한 공간의 소유권 및 이용 계약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논의되고 확정될 필요가 있음.

(2) 지역에서의 생활문화 민간전문단체 육성 및 지원의 문제

- ◎ 개별 공간의 운영 문제, 15개소의 공간을 전반 운영하는 문제에서 민간전문단체 및 예술가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결합할 필요가 생길 수 있음.
 - 개별 공간에 코디네이터를 1인 배치하는 정도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임.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질수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여러 개의 생활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면 규모의 경제를 이해하는 동시에 법적 책임이 명확한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있음.
 - 대부분 지역에서는 규모와 역량을 갖춘 문화예술 전문기획단체를 찾기 어렵기 때

69) "Building Ownership Detail: Owned by the City of Toronto and operated by Artscape under a 50-year lease. Artscape Non-Profit Homes Inc. administers the residential component of the Barns as part of its arrangement with the Canada-Ontario Affordable Housing program and the Affordable Housing Office of the City of Toronto. The City of Toronto Parks, Forestry & Recreation operates the park and space surrounding three sides of the Barns."

<https://www.artscape.ca/portfolio-item/artscapewychwoodbarns/>

70) 우주희 외, 「유희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9. 76~77p.

문에 이러한 위탁 사업을 서울에 거점을 둔 단체가 맡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지역 민간 운영 주체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란 문제가 대두하게 됨.

- 지역 전문 단체의 존재는 예술가의 생계 및 지역문화예술 생태계의 성장에서 중요한 지점인데 성남문화재단의 경우 예술가 지원정책 부분에서 일정한 공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영리 모델 도입의 문제

- ◎ 부분 영리화 문제도 공간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중요 이슈임. 생활문화 공간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로그램보다는 인건비 문제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지적됨.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각종 공모사업, 지역 후원자 등을 통해 일부 충당⁷¹⁾할 수 있는 반면, 인건비는 고정비용으로 부담이 높아 재정 마련이 쉽지 않은 편임.
- ◎ 때문에 재정 충당을 위한 유료화 사업의 가능성을 공간 마련 초기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음. 강의 프로그램을 유료화하는 방안이 가장 손쉽지만 이는 사교육 시장과의 충돌을 불러올 수 있음. 민간 시장에 관공서가 플레이어로 개입하게 되는 본의 아닌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이러한 비판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좌 위주가 아닌,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갖추게 된 이들의 작품 및 공연 판매 플랫폼 기능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음. 현재 성남 생활문화공동체는 성숙한 시민 문화예술 활동가의 출구 전략 역시 부재한 상태인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라 보여짐.
 - 시민들의 바자회, 벼룩시장 등과 함께 하면 공익적 가치가 있는 생활권 공동체 축제의 형태를 갖추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운영 비용의 문제

- ◎ 현재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조성에는 대략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 전술한 지점들을 고려해 공간을 조성해나간다면 여유 있는 비용은 아닐 것이라 판단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파출소 사례를 살펴보면, 파출소 공간의 임대료 없이 1개 공간을 조성하고 1년 간 운영하는데 대략 1억 2천~1억 4천 정도가 소모되었다고 함. 2/3 내외 정도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소모되며 나머지가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관리비 등으로 사용됨.
 - 이를 근거로 거칠게 계량하자면 15개소의 1년 비용이 21억에 달함. 개별 공간의

71) 위의 보고서, 80p.

운영 외 15개소를 통합하는 브랜드 및 운영 관리 위탁, 전문가 활용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 문화예술 전문단체 육성 비용, 각종 연구비용 등을 더할 경우 예산이 부족할 수 있음.

- ◎ 때문에 사업 1년차에 급히 공간 조성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 목표를 합의하고 예산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진체계 안정화가 우선 필요해 보임.

주요 참고 문헌

- 김성희, 「문화예술정책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8.
- 김성균, 「더불어 피는 마을꽃 논골」, 이야기너머, 2018.
- 김유진 외, 「2017 생활문화공동체사업 성과평가 연구」, 성남문화재단, 2017.
- 김유진 외, 「2018 생활문화공동체사업 3개년 종합 성과평가 연구」, 성남문화재단, 2018.
- 김휘정, 「문화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입법 과제」, 『이슈와 논점』 제 810호, 국회입법조사처.
- 문화관광부,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2018. 5.
- 민경은 외, 「2018 ‘성남 마을 공동체 사업 심층연구’ 보고서」, 성남문화재단, 2018.
- 양현미 외, 「2017 생활문화센터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지역문화진흥원, 2017.
- 엄광현 외,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정책 추진방안 연구」, 성남문화재단, 2017.
- 엄광현 외, 「성남형 문화공간 개발 및 운영전략 연구」, 성남문화재단, 2016.
- 우주희 외, 「유희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9.
- 이수철·윤수진, 「도시에서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 탐색 : 성남문화재단과 논골문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2017 동계학술프로그램 - 지역사회변화와 사회운동』, 지역사회학회, 2017
- 전수환 외, 「사랑방 문화클럽 발전방안연구」, 성남문화재단, 2016.
- 정종은 외,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 성남문화재단, 2013.
- 조광호 외, 「생활문화활동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107p.
- 최혜자 외, 「생활문화 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7.
- 추미경 외,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지역문화진흥원, 2018.
- 커뮤니티스, 「2017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평가연구」, 지역문화진흥원, 2017.

성남 생활문화정책 평가 및 발전 방안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전략

발 행 인	박 명 속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편 집 인	이 상 훈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代)
발 행 일	2018년 12월 31일
발 행 처	(재)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www.snart.or.kr

© 본 저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성남문화재단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